



동창회 창립 40주년...새 비전으로 다시 도약합니다

己丑年 신년교례회에 1천여 동문 자리 가득 메워



본회 林光洙회장이 “위기 때마다 뭉쳐 일어났던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3면〉

관악추추

올해로 총동창회 창립 40주년이 된다. 총동창회는 숙원사업이던 동창회관 건립을 동문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해 보유재산 1천억 시대를 구가할 만큼 외형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동창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동창회관 건립사업이 단기간 내에 목표금액 3백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10월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행사에는 8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당

일 행사장에서 1백억원이 넘는 발전기금이 약정됐으며, 금년 신년교례회에는 1천여 명에 이르는 동문들이 참석하는 유례없는 대성황을 이뤘다.

총동창회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도 있었겠지만, 40년의 연륜을 쌓는 동안 동

모교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재학생 장학지원의 규모 확대와 모교를 매개로 한 동문간 휴먼네트워크 강화, 서울대인의 문화·예술·보건·체육사업의 전개, 그 외 온라인 동창회보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마

장서보면 어떨까 한다. 향후 인간 수명 1백세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생교육이다.

물론 e-learning학습이다. 총동창회 네트워크를 매개로 해 모교의 우수한 콘텐츠를 온라인을 비롯한 모바일, IPTV 등으로 동문들에게 서비스하는 ‘서울대 동문을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을 뜻한다. 모교에서도 e-learning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SNUi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안성맞춤이다.

지나간 40년을 기리는 것은 앞으로의 동창회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다. 창발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계속 개발해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의미 있는 40주년이 됐으면 한다.

(安國正논설위원)

동문 위한 e-learning 平生教育도...

문들의 총동창회와 모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는 점이다.

총동창회도 ‘중흥 비전과 도약 플랜’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정적 기반확립에 따른 새로운 동창회 활동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외지부 조직강화,

련한 실천 플랜인 만큼 말 그대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지만, 향후 예견되는 사회적 변화와 트렌드에 맞춰 동창회 역할을 더 넓혀보면 어떨까 한다.

예를 들면, 노령화 사회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평생교육사업에 총동창회가 앞



金信福·李吉女·金滉植·崔時仲·卞柱仙·孫一根·鄭元植·金在淳·林光洙·李長茂·權彞赫·金炯昨·李御寧·洪性大·李基秀등문

“來者可追… 지난 일 교훈 삼아 미래를 계획하길”



林光洙회장·金炯昨국회의장



林光洙회장·金滉植감사원장



林光洙회장·鄭哲圭동문



공로패 수상자와 함께 (좌로부터 姜錫大·崔秉瑄·李長茂·金昌哲·尹煥植·姜實根등문)

신년교례회서 축하·공로패 수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역대 가장 많은 선후배 동문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 및 지정 좌석제로 예약문화의 모범을 보여 많은 동문들로부터 훌륭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한정된 좌석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든 동문들을 수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林光洙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는 온 국민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강조한 뒤 “來者可追라는 말처럼 지나간 일을 교훈 삼아 미래의 일을 계획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신념으로, 위기 때마다 뭉쳐 일어났던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林光洙회장은 장학빌딩 건립 및 모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원을 보내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동창회

관이자 랜드마크로서의 위용을 펼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모교를 위한 수익사업을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총동창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동창회에서 추진할 각종 행사는 그 규모와 품격을 높이되 동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교 발전 기금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자주 모교를 방문해 교직원과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그동안의 양적 성과가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하고, 맞춤형 장학제도 확대와 기숙보조 장학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를 위한 인턴십·재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權彞赫고문은 신년사에서 “해마다 화두를 던지는데, 올해는 ‘Old

Boys, Be Ambitious’로 정했다”고 말해 행사장 분위기를 화기에 애하게 만들었다. 이어 “힘든 시절을 극복하려면 젊은 사람만 꿈을 갖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도 꿈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 모두 꿈을 갖고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金炯昨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외국과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불성 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金滉植감사원장은 신년사에서 “앞으로 국가원직을 제대로 세워 국민민복에 기여하는 따뜻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 權彞赫·鄭元植고문,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李吉女·洪性大 부회장, 卞柱仙사대동창회장, 모교 李長茂총장, 金信福부총장, 중앙일보 李御寧상임고문, 방송통신위원회 崔時仲위원장, 金炯昨국회의장, 金滉植감사원장, 고려대 李基秀총장 등이 새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시루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축가로 미국 일리노이주립

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羅有宣(성악02-06) 동문이 ‘그리운 금강산’과 ‘달에 부치는 노래’를 불렀다.

또 전대상(성악98-03)동문을 비롯해 8명의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성악과 중창단’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멋진 하모니를 이룬 ‘Stein Song’과 ‘Funiculi Funicula’ 노래

가 끝나자 동문들의 열띤 앙코르 요청이 있었으며, ‘O Sole Mio’로 화답했다.

만찬에 앞서 金在淳명예회장은 공연을 마친 재학생들을 가리키며 “역시 젊음은 아름답다”고 말한 뒤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는 ‘불굴의 희망’, ‘대담한 희망’ 그리고 ‘Yes, We Can’을 강조했다”며 “우리 동문들도

2009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 ① 제11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②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심의

◆한정된 좌석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3차·관악회 107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金信福·崔時仲·趙 淳·河永基·鮮于仲皓·李基俊·李吉女·白文基·趙完主·朴奉植·李長茂·林光洙·金在淳·權彞赫·鄭元植·李御寧·孫一根·洪性大·李基秀등문

“장학빌딩 건립에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현관에 설치된 2009년도 신년교례회 현수막



모교 성악과 중창단의 멋진 하모니

장학빌딩 기금출연 줄이어

경영학과 86학번

“1백60명 마음 담았어요”

최근 경영학과 86학번 동기 회인 상백회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백만원의 보내 왔다. 금액은 거액출연자들에 비해 작지만, 어떻게 해서 모아졌는지 과정을 살펴보면 모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어느 동문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연말 개최한 송년회 겸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회장을 마친 金泳坤전임 회장은 “蔡耕玉동문이 모임에서 종종 장학빌딩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목표액은 달성했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함께 동창회관을 지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기회 전체의 마음을 담아 출연하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자연히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연회비 10만원

을 거둬 1년간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작정하고 동기회 명의로 장학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학과, 단과대, 모교 지원사업으로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백회는 현재 인터넷 카페에 1백60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재학 당시 활동하던 4개의 반에서 각각 임원 2명을 선출해 회장과 함께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금을 출연한 동기회는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 벽면에 ‘경영학과 86학번 동기회’ 명의로 영구히 그 이름이 새겨진다.

黃南周동문 천만원 출연

지난해 시디네트웍스 黃南周(물리87-92)상무가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만원을 출연했다.

각계 동문 1천여명 결속 다져

어떤 풍파에도 불굴의 희망,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자”고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 가진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전임 관악회 이사인 鄭哲圭동문과 직전 단과대학(원) 및 지방지부동창회 회장인 李載厚(법대)·林香淳(사대)·鄭英彩(수의대)·李金器(약대)·崔秉瑄(한대원)·姜錫大(AIP)·李東俊(ACAD)·尹煥植(AMPFRI)·梁在鉉(ROTC)·高光平(관무회)·朴源澤(인동지부)·金永德(마산지부)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지난해 취임한 金炯昨국회의장, 韓昇洙국무총리, 金滉植감사원장, 鄭正佑대통령실장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만찬 중에는 李吉女·李世中·金讚淑·李相周·劉常夫부회장, 관악언론인회 李炯均회장을 비롯해 중앙일보 李御寧상임고문, 농림수산식품부 張太平장관, 모교 鮮于仲皓전임 총장, 趙 淳명예교수, 평의원회 朴彬沃의장, 공대 姜泰晉학장 등 각계 동문이 새해 덕담을



羅宥宜동문의 아름다운 축하

했다.

李吉女부회장과 농림수산식품부 張太平장관은 “온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기원했으며, 관악언론인회 李炯均회장은 동문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말해 큰 웃음을 선사했다.

李世中부회장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다며, 모교 趙 淳명예교수는 “동문들의 높은 참석률과 결속력이 나라를 위하는 의지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相周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鮮于仲皓전임 총장, 평의원회 朴彬沃의장, 공대 姜泰晉학장은 한 목소리로 “모교가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소피 동문인 金讚淑부회장은 “소처럼 묵묵히 인내하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李御寧상임고문은 새해 덕담으로 “구한말 시절, 한국에 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외국인들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는 금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있다’고 말했듯이 금년 한 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의 가슴과 머리 속에 있는 금을 캐서 나라를 구하는 데 사용하자”고 강조했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제작한 포켓용 다이어리와 탁상용 달력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表)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소위원회 모임

校史 바로잡기는 모교 법인화의 첫걸음

“논리적 근거 다지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해야”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소위원회를 구성기로 하고 우선 참석이 가능한 위원들이 지난 1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辛鉉雄부회장, 본보 徐玉植·尹在錫·李相起·蔡耕玉논설위원, 모교 국사학과 李泰鎭교수 등이 참석했다. 소위원회는 본 사업의 이론적 토대를 구체화하고 대내외 홍보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차례의 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의 역사적 전통이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심사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교 역사를 점검해 보게 됐다”고 다시 한 번 필요성을 강조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恒産恒心이라고 할까, 이를테면 다락 위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던 족보를 꺼내 정리하는 셈이며, 이제야 우리 모교의 역사를 찾을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년 찾기 사업은 모교 법인화의 선결과제이며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恒産恒心…校史찾을 여유 생겨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본 사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蔡耕玉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동문, 재학생, 일반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李相起·尹在錫·李泰鎭·徐玉植·朴薦壽·蔡耕玉·孫一根·林光洙·辛鉉雄동문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다”며 “결국 현 총장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우선 재학생과 교수를 상대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할 것 같고 대외적으로 모교 출입기자를 통해 공표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李相起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정당성은 충분히 논의됐다고 본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학내·외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대학신문 등 학내 언론매체와 연계해 이런 모임에 대해 알리고 더 나아가 1천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尹在錫위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포함해 미진한 부분들은 李泰鎭교수께서 잘 정리해 역사 찾기의 완벽한 논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그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비판에 대응하고 또 다양한 홍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尹위원은 특히 “현대사를 정리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경우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보전략과 관련해 辛鉉雄위원은 “타임스케줄을 짜서 그 계획에 맞춰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며 “모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 예상되는 비판, 긍정에 대한 문답지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명 동문 연예인들의 도움을 받아 법관양성소부터 시작하는 역사 동영상을 만들어 동창회 행사 때마다 보여주자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林光洙회장은 “여러 위원들이 조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책자 발행 날짜에 맞춰 본격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책이 나오면 먼저 총장께 건의를 하고 그 다음 단과대학 학장회의와 평의회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李泰鎭교수는 고종황제의 교육정책과 몇몇 관립 고등교육기관의 개교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李교수는 “1882년 연말교서

에 보면 ‘양반들도 상공업에 종사해 국가의 부를 늘리는데 노력하고 그 자제들은 기술교육을 받게 하라’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종황제께서 교육제도의 현대화를 일찍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교의 시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법관양성소의 개교일은 4월 16일(음)로 알려져 있다. 법부관제와 학부관제에 의거해 법관양성소와 한성사범학교가 3월 25일(음) 같은 날 칙령이 발표됐지만 실제 개교일은 한성사범학교가 5월 1일(음)로 2주 정도 늦다. 법관양성소 개교일인 음력 4월 16일은 양력으로 5월 10일에 해당한다.

법관양성소 5월 10일 개교

1895년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법학교(1909~1911)→(前)경성전수학교(1911~1916)→경성전수학교(1916~1922)→경성법학전문학교(1922~1946)(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1926~1945)→경성대학 법문학부 법학과(1945~1946))→서울대 법대(1946~2008)→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2009~)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 제증원과의 문제에 관해서 李泰鎭교수는 ““공해원 규칙”에 따르면 ‘제3조 학생 4명을 선발, 병원에 배치한다. 제4조 이들 학생들은 병원 의사를 도와 주고 의사의 감독 지시하에 의약품을 조제 투약한다. 그리고 외국인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환자를 간호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교 원년 찾기와 관련해 지금까지 각 단과대학동창회장과 동창회보 논설위원을 초청해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가 네 번째 회동이 되며, 동창회보의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지상토론을 통해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南)

관악언론인회 2009년 정기총회

2월 23일(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서울대 언론인 출신 모임인 관악언론인회가 제7회 정기총회 및 제6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동문 언론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후 6시 30분

◆장 소 :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관악언론인회 회장 李 炯 均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위한 1년에 한번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 동문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각종 모교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동창회 연회비

- 일반회원 : 3만원
- 동창회보, 포켓용 다이어리, 탁상 달력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사회원 : 10만원
- 일반회원 혜택은 물론 동문 음악가의 기념음반(CD), 업무용 다이어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님의 주소 변경시 전화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총동창회 사무처(02-702-223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맞아 「中興 비전·跳躍 플랜」 선포

제19대 林光洙회장 취임때 천명한 동창회 장학빌딩 건립 2010년 준공되면 재산 1천억 시대, 중흥의 元年 열린다

지난 1969년 2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본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참여, 협력, 영광’이라는 지표와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대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林光洙회장이 2002년 19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동문들의 숙원의 하나였던 새 동창회관의 건립을 천명하고 2007년 기공식을 가졌으며, 오는 2010년 말 동창회관인 ‘장학빌딩’이 완공되면 본회 재산 1천억원 시대가 펼쳐지고 동창회 중흥의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본회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고 동창회의 새로운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중흥 비전과 도약 플랜’을 선포합니다. (아래표 참조)

그동안 본회는 회원간 커뮤니케이션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미주관 회보 7천부를 포함해 매월 10만부의 동창회보를 발행해 국내외 동문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포함해 약 20만부의 동창

회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 1월 재단법인 관악회를 발족, 운영해 오면서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여와 교수 연구저술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회는 2008년 12월 현재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을 입학해 수료·졸업한 동문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준한 특별과정 출신의 동문을 포함해 약 30만명이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본회를 중심으로 단과대학(원) 동창회 24개, 특별과정동창회 17개, 지방지부동창회 26개, 미주총동창회를 포함한 해외지부동창회 49개, 직능지부동창회 3개(관악무역인회, 관악언론인회, ROTC동문회) 등 광범위한 조직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회는 1987년에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연건평 3,745.92㎡(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동창회관을 건립해 2006년 12월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 이후 모

교 지원과 장학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 장학빌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을 바탕으로 현 대지에 지상 19층, 지하 6층, 연건평 21,277.88㎡ 규모의 장학빌딩을 건립하기 위해 2007년 6월 25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 후 2008년 7월 23일까지 구 건물과 불법 침범한 인접 건물의 철거 작업을 완료했으며, 터파기와 토사반출을 시작으로 지하층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학빌딩 건립은 공항철도 등 주변건물과의 조정을 위해 Top-Down방식의 신공법(BRD공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31일 현재 지하 5층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월 중순 지하 6층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상층 작업을 실시해 2010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은 모교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도서관 휴게실 제공, 전리포 수련원 부지 매입 지원, 교수 연구저술비 지원, 재학생 운동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펼쳐왔습니다. 또 동문들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해서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등산대회, 골프대회, 바둑대회, 음악회, 미술전 등 각종 행사 및 이벤트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제 재정적 기반 확립에 따른 ‘중흥 비전과 도약 플랜’이 제대로 시행되면 우선 장학금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게 될 것이며, 교수 연구저술활동에도 약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도 다양하고 획기적인 동창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미래로 나아가는 동창회’ ‘모교와 함께 하는 동창회’ ‘동문에게 다가가는 동창회’로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동창회

1. 재정적 기반 확립에 따른 새로운 동창회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보유재산 1천억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 개발
- 서울대 구성원(동문, 교직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개발
-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NGO 활동 전개

2. 동창회의 세계화를 향한 국제적 제휴 및 교류 강화

- 해외지부 동창회의 적극적인 조직 강화
- ‘베세토하’(BESETOHA)대학 동창회와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
- 외국 국적 동문의 조직 강화 및 참여도 제고

모교와 함께 하는 동창회

1. 모교 지원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강구

- ‘(재)서울대 발전기금’과의 유기적 제휴로 모교 지원 강화
- 모교에 대한 동문들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문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기부문화 정착 유도
- 모교의 초일류 대학 진입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 개발

2. 재학생 지원방안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수혜방안 도입

- 장학금 수혜 대상 및 규모 확대에 따른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 강구
- 재학생 지원을 위한 단과대학동창회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특유의 전통문화적인 동아리 및 동호클럽 활동의 지원

동문에게 다가가는 동창회

1. 동문간 휴먼네트워크를 통한 상호 협조 체계 구축

- 동창회보의 질적 향상과 부수 확장(ON LINE 회보 확대)으로 기능 확대
- 각종 회의, 직능별 모임 및 각 지부 조직 강화를 통한 결속
- 모교를 매개로 한 인적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사업 개발

2. 동창회 사업의 다양화 및 확충 강화

- 인프라가 구축된 모교의 각 기관 및 단과대학동창회와의 협력으로 동문 눈높이에 맞춘 문화 예술(미술, 음악 등) 분야의 사업 전개
- 서울대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건·체육활동 강화
- 보다 실효적인 동문의 편익을 위한 웨딩, 장례 사업 등의 기획



2007년 6월 25일의 장학빌딩 기공식



파이팅 외치는 장학금 수여식



거의 마무리되는 장학빌딩 바닥공사



2010년 완공될 장학빌딩 조감도

우리나라부광장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의사당 취임 선서와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워싱턴 일원의 여러 무도회장에서 떠들썩하게 진행된다. 막 ‘당선자’ 꼬리를 뺀 대통령 부부가 새벽까지 이곳들을 순례한다. 이 행사들은 우리 생각과 달리 극히 상업적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비싼 표를 사서 오고 입장권 액수와 파티의 정치적 비중에 따라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과 연설 내용, 악수의 범위가 달라진다.

‘젊음’을 강조해온 오바마는 20~30대 젊은이들이 참석하는 youth ball을 언론에 공개하고 오래 머무르면서 부인과 춤을 췄다. 취임식 준비위는 아직 넉넉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접근을 허용한다는 뜻에서 이 표를 70달러에 싸게 팔았다. 오바마가 오래 그리고 은밀하게 머무는 파티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폄잡으면서 떠난 우리 정치인이 얼마나 센지는 누가 주최하는 연회에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방송특과원에게 파는 취임식 취재석의 입장권도 상당히 비싸게 팔아 준비위가 돈을 쟁긴다. 언론 배려를 당연히 하는 미국의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지만 비싼 표를 사야 근사한 스탠드업을 만들 수 있으니 다른 도리가 없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양당 전당대회를 취재할 경우에도 방송기자의 스탠드업용으로 행사장 시간과 장소를 파는 것을 보면 취임식이 예외적이라고 할 수 없다.

美대통령 취임식은 새벽까지

辛京珉
MBC 선임기자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2월의 문

柳亨俊(필명 柳潭·의학71-77)
시인·한림대 의대 교수

문 하나 장만하세요
2월이 짧아요

기지개 펴 내어밀
가슴 두께만큼만 도톰한
문

봄비가 꽃이 되고
붉은 꽃잎 드디어
열매로 움츠러드는
마땅한 기다림을
들녘에 은밀히
쏟아낼 직전

남색 하늘 한 패기
뜰에 담아
휘익 날줄로 이랑을 그으면

겨우내 열린 운기
턱 넘어
아지랑이로 돌아날

문 하나 장만하세요
2월이 짧아요

동문칼럼

작년 11월 28일 서울 서부지법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김씨·75세)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자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 보도는 이 판결을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되는 문제로 오해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특히 재판부가 “김씨 자녀들의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는 기각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秦教勳
(철학56-60)
모교 명예교수
前한국생명윤리학회장

부한다는 자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환자의 정황에 따라 이를 ‘병원 윤리위원회’나 권위 있는 기관(법원)이 대리할 수도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 생명윤리협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어서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 여명기

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환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번 판결문에서 자녀들의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파생될 수도 있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의 인정여부와 같은 위험과 오해를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은 정당한가?

것처럼 이 재판은 존엄사나 비윤리적인 안락사를 다루거나 인정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바르게 행사됐는가? 둘째 ‘그 환자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누가 내리는가? 셋째 담당 의사가 해당 병원의 ‘병원윤리위원회’ 또는 ‘기관심사위원회’(IRB) 심의를 거친 후 계속 치료행위를 했느냐는 점이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재판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바르게 행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사전에 친권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

보여진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 그 환자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지 아니한지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당 전문의의 소관이다. 만일 전문의가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전문의의 의견은 존중돼야하나 죽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담당 의사나 병원당국이 자기방어라는 점을 고려하거나 관례에 따라 처치를 고집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래서 환자의 친권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大同憲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법과대학동창회

장학회 명칭 ‘법대 장학재단’으로

법과대학동창회(회장金正國)는 지난 1월 21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현직 임원과 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동창회 회원 10여 명을 포함해 3백여 동문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로스쿨 출범을 앞둔 모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모교 金建植학장은 축사를 통해 “법대가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

지만 전통의 계승에 역점을 두고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장학장은 이어 “동문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법학관, 도서관, 모의법정 등이 2월말에 완공될 예정”이라며 “교수회의실에는 ‘명예교수의 전당’을 만들어 명예교수님 37분의 얼굴을 동판으로 제작해 벽면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올 봄에 동문 가족들을 모교로 초청해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李載厚·丁海昌·李大淳·孫一根·李爽熙·金建植·金正國·玄勝鍾·金許男·金春鳳·鮮于宗源·琴震鎬동문

이날 동창회는 낙산장학회를 ‘서울법대 장학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며, 장학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故 金性洙동문, 尹世榮·吳允德·裴命仁·權炳壹·李壽榮동문 등에게 문진을 제작해 감

사에 보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히말라야 랑탕히말 체르고리(5천33m)를 등정한 법대 OB산악회 明魯昇산악대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번 산행에 金周仁·申明均·崔弘健동문 등 18

명이 참가해 전원 등반에 성공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金許男·琴震鎬·劉鐘海·孫一根·李爽熙동문 등 많은 분들이 금품을 협찬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吳應準회장 유임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월 12일 대전시내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각계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吳應準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추진하는 ‘Vision 2025’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吳應準(약학58-62)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으며, 감사에 林貞洙(법학73-

77)·姜信成(경영75-79)동문을 선임했다.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2월 중 새로 구성되는 이 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다.

이어 가진 유공 동문 시상식에서 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온 李英燮(전기공학59-66)·姜殷模(외교78-82)부회장, 명예회원인 선양 金光植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金康造(약학64-68)약대 회장, 吳壽丁(약학66-72)의대 회장, 黃仁祺(영어교육69-73)사대 회장, 姜信成감사, 金昇俊(농화학78-85)기우회 총무, 趙漢苾(체육교육89-95)관악회 간사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李笑雨·俞淑子·洪麗信·李倫京·李愛珠·朴貞浩·尹順寧·宋美順동문

간호대학동창회

장학금 두 배 증액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지난 1월 9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학장 이·취임식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俞淑子전임 회장, 李倫京회장, 金花中여성단체협의회장, 李愛珠국회의원을 비롯해 1백여 동문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모교 尹順寧전임 학장과 宋美順신임 학장의 이·취임을 축하했다.

李倫京회장은 신년사에서 “2009

년 동창회 캐치프레이즈를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정했다”며 “그 동안 병원,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문들의 참석이 동창회 활동의 주를 이뤘는데 올해는 3천5백여 동문이 다함께 흐르는 한 줄기 강물이 돼보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지난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연구재단기금 7억4천만원과 동창회 기금 2억원을 합쳐 총 9억4천만원을 보유하게 됐다. 올해는 재학생 장학금을 대폭 상향해 지난해보다 8백만원이 늘어난 1천6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학과와 무역학과가 합쳐 경제학부가 신설된 바 있다.

洪聖穆회장은 “모교가 정치, 외교 두 학과로 나뉘면서 발전은커녕 정원 각 27명의 군소 학과로 전략한 모교의 획기적 도약과 발전을 이루고자 추진위를 결성하게 됐다”며 “2010년 학부 설립을 위해서는 5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동문과 교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지부동창회

신년 축하공연 가져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弘中)는 지난 1월 21일 대구시내 노보텔대구시티센터 Burgundy홀에서 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KBS 기자인 郭惠正(국어교육96-01)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경북대 盧東一(정치68-72)총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도약의 기회가 온 것 같다”며 “지역발전에 동문들께서 주축이 되고, 동창회 행사 참석률을 높여 더욱 단합해줄 것”을 당부했다.

金聖彬(성악86-92)동문의 해설로 진행된 축하연주에서 ‘이간판때 남성 앙상블’이 10여 곡의 가곡과 영화음악메들리를 선사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李弘中(토목공학67-71)회장, 李載亨(기계설계76-80)간사장, 崔城植(경제57-65)감사를 비롯해 대구사이버대 李英世(경제65-69)총장, 金範鎰(경영69-73)대구광역시장, 黃永穆(행정70-74)대구지방법원장, 李俊甫(법학80졸)대구고등검찰청장, 朴漢徹(법학71-75)대구지방검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농생대동창회

잡지형태 회보 발행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韓仁圭)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2009년 제1회 임원회의 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55학번 동기회(회장 宋鍾益)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韓仁圭회장, 모교 朴恩雨학장, 潘性紱원로동문, 許信行 前농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1백여 동문이 참석해 2009년 사업을 논의하고 덕담을 나눴다. 특히 이영재 학생회장 등 20여 재학생이 참석해 선배들과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韓仁圭회장은 “지난해 동창회가 창립 60주년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출연, 상록탑 건립, 상록인 명예의 전당 개설, 60주년 기념문집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동창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윈속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특히 동창회 보를 고급스런 잡지형태로 탈바꿈시켜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선배 사이를 더욱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학동문회

홈페이지 새 단장

임학동문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1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7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鄭潤煥회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故 朴泰植교수에 대한 추모목념과 함께 지난해 경과보고 및 신년 사업계획에 대해 간단한 보고가 이뤄졌다.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4월 여성동문회가 창립대 회장에 金玟珉(신림지원88-92)동문, 총무에 박필선(신림지원90-94)동문이 선출됐으며 동문회 홈페이지를 학내홈페이지(eo.snu.ac.kr)로 옮겨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南)



정치·외교학과동창회

모교 학과 통합위 결성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洪聖穆)는 지난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정치학과와 외교학과 통합안을 인준했다.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정치·외교학부 설립 및 입학생 증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崔時仲(정치57-63)방송통신위원장과 洪思德(외교61-68)

국회의원을 공동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교문에 金炯昨(외교67-71)국회의장을 추대한 바 있다.

추진위원회는 로스쿨 발족에 따라 자동 소멸된 법대 입학정원 3백명 가운데 1백50명을 정치·외교학부의 신입생 증원에 배정하도록 모교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상대로 접촉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이 계획이 성사될 경우 현행 54명에 불과한 양학과 신입생 정원은 3배 늘어난 1백5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과거에 경영학과와 상학과의 합쳐 경영대학이 됐고

상과대학동창회

‘빛내자상’ 沈昞求·李鎭芳동문 받아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1월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3백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洪龍濤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는 영웅과 장수가 등장하고 이들이 승패를 좌우했다”며 “우리 동문들이

무한경쟁의 글로벌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교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역량 있는 후배들을 양성해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영웅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한 모교 安泰植학장은 축사에서



李鎭芳·洪龍濤·沈昞求동문

“타 사립대에 비해 정원도 3분의 1 밖에 안 되고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대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동문들이 뭉쳐 모교를 돕고, 빛내주시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모교 沈昞求(경제49-53)명예교수와 대한해운 李鎭芳(경영67-71)회장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인 ‘빛내자상’을 수여했다. 특지장학금을 출연한 金正銀·李鍾衍·沈晶求·金榮奎·池昌壽 동문 등 40여 명은 ‘뚝자상’을 수상했다.

동창회는 올해도 산행대회(5월 5일), 바둑대회(10월 10일), 회보 발간(격월간),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洪淳昊·李泰衡·金奎台·洪宗浩·金夏中·林光洙·金鍾燮·梁在鉉·柳和善·金東進동문

ROTC동문회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

ROTC동문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1월 9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자랑스러운 동문상(101 Honor’s Card)’ 시상식을 갖고 金東進(체육교육62-66)·柳和善(사회68-72)동문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孫一根상임부회장이 특별히 참석해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축하하고 李泰衡·鄭武鎬·洪淳昊·洪宗浩·梁在鉉·金夏中동문 등 70여 회원들과 덕담을 나눴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도 ‘행동하는 지성인’을 표방하는 ROTC동문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뛰어난 리더십과 충성심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향상과 모교의 세계 10위권 명문대학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덕담을 나누는 시간에 金夏中(중문65-69·7기)통일부 장관은 후배인 柳明桓(행정66-70·8기)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ROTCian이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외교부 여권과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장관으로 같이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문회는 올해 모교 지원, 동호회 활동 등에 2억3천8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ACPMP동창회

자랑스러운 동문 선정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鍾洙)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에서 1백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李鍾洙회장 신년사, 모교 공대 姜泰晉학장 축하, 케이크 나눔 및 건배제의,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및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ACPMP를 빛낸 자랑스

러운 동문으로 다원녹화건설 김용각(1기)대표, 대우건설 윤춘호(1기)부사장, 울트라건설 강현정(2기)대표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또 조찬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한 회원들에게 우수회원패와 중간시장으로 수고한 장한종합건설 蘇在喆(1기)대표 등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기계동문회

金東晉수석부회장 선임

기계동문회(회장 李奉柱)는 지난 1월 9일 서울 을지로6가 두산타워 레버락에서 신년교례회를 개

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崔昇喆전임 회장, 李奉柱회장, 관악회 明泰鉉이사, 본회 孔大植·禹仁性부회장을 비롯해 1백20여 동문이 참석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동문 직원들이 서빙을 맡아 수고했다.

임시총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수석부회장직을 신설하고 현대모비스 金東晉(기계공학68-72))부회장을 선임했다.

동문회는 등산, 바둑, 스키 등의 동호회 활동과 가을 흠커밍데이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동문작품지상전시회

柳寅淑作

〈작가약력〉

- ▲68~72년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 ▲71년 제5회 상공미전 특선
- ▲72년 제6회 상공미전 특선
- ▲82~88년 KOTRA 디자인실 근무
- ▲08년 12월 제1회 개인전
- ▲현재 서양화가

‘풍경 눈’ Oil on Canvas
117×91cm, 2008.



金光石회장,정맹기(金鍾燮대리)·姜榮中·元大淵수상자, 孫京植명예회장

AMP동창회

姜榮中동문 등 3명 대상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1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8회 AMP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AMP대상 수상자로 대교 姜榮中(28기)회장, 삼익약기 金鍾燮(사회사업66-70·33기)회장, 삼성디자인학교(SADI) 元大淵(44기)학장을 선정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沈甲輔심사위원장은 “AMP대상에 대한 권위가 높아짐에 따라 각 기수 회장들의 문의는 상당히 많았으나 탈락할 것을 우려한 것인지 총 7개 기수에서 7명의 후보만 추천했다”며 “그러나 예년과 같이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해 24명의 위원들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세 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孫京植명예회장, 金光石회장, 모교 安泰植학장, 鄭八道·朴永寬부회장, 朴聖姬집행간사 등 2백50여 동문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AIC동창회

李達坤의원 특별강연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敬俊)는 지난 1월 1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유니버설룸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李敬俊회장은 신년사에서 “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崔鍾元원장님이 취임해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교 행정대학원 崔鍾元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 50주년을 맞아

AIC동문 가족을 초청해 5월 중 흠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생각이며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대학원장을 지낸 李達坤(공업교육73-77)국회의원이 연사로 나와 ‘IT산업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AIP동창회

李昌鏞동문 금융 특강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喜鎔)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역

삼동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신년교례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鄭八道·朴燾爽·金永壽·姜錫大전임 회장, 鄭喜鎔회장을 비롯해 모교 姜泰晉학장, 金光禹주임교수 등 3백여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시총회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회칙을 일부 수정 보완했으며, 만찬 후 이어진 강연회에서 금융위원회 李昌鏞(경제80-84)부위원장이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 초석 마련’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南)

AMPFRI동창회

申一汕회장체제 공식 출범

식품 및 외식산업보전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서초로알프라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孫一根상임 부회장, 관악회 朴明濤이사, 보대원동창회 姜寅求회장, 보대원 李承旭교수를 비롯해 崔仁植초대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이 참석해 尹煥植전임 회장과 申一汕신임 회장이 이·취임을 축하했다.

申一汕회장은 취임사에서 “尹煥植전임 회장을 비롯한 전임 임원들께서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보대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우리 동창회 역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축사에서 秋史 金正喜선생의 歲寒圖의 발제문을 인용해 “세한의 추위가 돼서야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혹한의 추위에 오늘 자리를 가득 메운 회원들에게 그 지조를 느낄 수 있고 역시 맛과 멋을 겸비한 동창회란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뗀 뒤 “홈커밍데이 행사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尹煥植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申一汕신임 회장께는 참여의 폭을 더욱 넓혀서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申一汕회장을 도와 文榮鐵(18기)수석부회장, 李基浩(12기)사무총장, 최인호(16기)·강덕순(16기)사무차장이 수고하며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등은 3월 임원 워크숍에서 선임할 예정



尹煥植전임 회장이 申一汕회장(左)에게 동창회기 전달

이다.

동창회는 시산제(3월), 국제박람회 참가(3월), 보대원 50주년 기념행사(4월), 골프대회(5월), 하계수련회(8월), 체육대회(10월), 송년회(12월) 등의 사업에 2억1천1백만원을 책정했다.

전북지부동창회

신년하례식 개최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1월 8일 전주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金聖吉(법학60-64)회장, 金亨燮(치의학73-79)총무를 비롯해 申鐵享(교육행정57-61)前전북대 총장, 洪性宙(상학58-64)전북은행장, 金完柱(정치66-70)전북도지사, 金英媛(고고학72-76)국립전주박물관장, 鄭甲柱(법학73-77)전주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金聖吉회장의 개회사, 金完柱전북도지사의 신년사가 있었으며, 洪性宙동문이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달력 및 다이어리를 기념품으로 나눠줬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마산지부동창회 尹德重회장

(경남대 국제언어문화학부 교수)

매년 12월 12일 정기총회 겸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마산지부동창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경남대 국제언어문화학부 尹德重(불어교육 64-68)교수를 선출했다.

30년 전 한국의 7대 산업도시였던 마산지역은 80~90년대에 접어들어 창원으로 경남도청이 옮겨가면서 인구가 줄고 경제도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마산지부동창회 활동의 변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尹회장은 “지난 20년간 새로 전입되는 회원은 적고 전출되는 회원이 많은 데다 연령층이 점차 높아지면서 동창회가 정체됐다”며 “주춤하고

있는 동문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 과거엔 동창회 활동이 활발했는지.

“제가 1979년 경남대에 부임했는데 동창회 설립도 그 해였던 것 같아요. 1983년 11월 27일자 정기총회 및 친선 체육대회 기념패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니 저도 20년 넘게 참여한 셈이죠. 경남대 체육관에서 단과대별로 친선 배구경기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회보를 발간해 동문소식도 전하고

특강을 개최하는 등 활기가 넘쳤죠.

마산지역도 아침마다 출근 시간이면 수출자유지역으로 들어가는 여성 근로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또 한일합섬의 봉급날이면 시내 중심가의 음식점들이 손님들로 북적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 시대 경남지회장도 역임하셨는데.

“처음에는 마창(마산·창원), 진주, 통영, 울산 분회를 통합 운영했는데,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3개 지역 회원들을 모아 친목을 도

모했습니다. 정년 교수와 교사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매년 지역을 바뀌기면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활동도 활발한 편이었죠.”

－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동창회에는 마산 출신 회원을 비롯해 고향은 아니지만 저처럼 오래 거주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또 몇 년간만 이곳에서 근무하고 대부분 서울로 가는 회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하나로 모이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



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래도 동창회에 참석하면 어깨를 활짝 펴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 모교 지원은.

“마산에서 근무하며 서울에서 개최하는 모교 또는 동창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다만 동창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당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노키아

TMC 명예회장인 李梓旭전임 회장 등 기여를 많이

하신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임 尹회장은 올해로 경남대에서 재직할 지 만 30년이 된다. 그는 “순수한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보낸 세월이 행복하다”며 “사업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골치 아픈 일도 잊어버리고 머리로 맑아진다는 말을 듣는데, 젊은 대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니 그들의 사고방식을 닮아서 그런 것 같다”며 후학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表)

“힘든 시기에 웃음을 나눠드려요”

모교 캠퍼스내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에 일조

동문록 찾아서

朴 相 大 IVI 한국후원회장 겸 이사장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제기구 본부로는 유일한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의 후원회 수장에 오른 朴相大(동물학56-60)동문을 설 연휴 이틀 전인 1월 21일 오후,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안에 있는 IVI 후원회장실에서 만났다. 생명공학 연구와 후진양성에 평생을 바친 朴동문은 국제백신연구소(IVI) 진흥을 위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朴회장의 임기는 2월 19일 시작된다.

대 담 : 본보 尹在錫은설위원
(국민일보 논설위원)

— 바쁘신 데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임자들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초대 후원회장은 총동창회 金在淳 명예회장이셨고, 이사장은 趙完圭 전임 총장이셨죠. 2대 회장은 李鎬王 前학술원 회장, 이사장은 녹십자 회장인 許永燮 동문이었고요. 이번에 제가 3대 회장과 이사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 권한이 막강해지셨네요.

“아니에요.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남에게 후원에 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서 오히려 어깨가 무겁죠.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역할도 해야 되고...”

— 대한민국에 유치한 유일한 국제기구 본부이다 보니 기금 모금을 비롯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일도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유엔이 도와줘서 6·25전쟁에서도 나라를 지켰고, 폐허로부터 이만큼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계제에 IVI를 국내에 유치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초대 李姬鎬 여사, 2대 權良淑 여사에 이어, 작년 10월 金潤玉 여사를 3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 IVI를 잘 성장 발전시켜야 우리의 國格도 확고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VI를 유치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이뤄졌나요.

“1993년 故 金鍾云 전임 총장 시절 제가 연구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재미교포 과학자 한 분이 유엔개발계획(UNDP) 고문으로 계셨어요. 그 분이 ‘유엔에서 백신관련 국제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시아권 나라가 유력시된다’며 ‘한국이 유치하면 어떨겠느냐’고 하더군요. 곧바로 17명으로 구성된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울대 안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1994년 3월 15일이 마감일이었어요. 국고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안이기에 문에 경제기획원(당시) 등 관련 부처 승인을 받고, 3월 15일 부랴부랴 김포를 출발

해 현지시각 3월 15일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UNDP에 제출했습니다.”

— IVI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유치 현장에 있었는데요. 6개국이 출사표를 내 막판에 중국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당시 주룽지(朱鎔基)총리가 IVI 소장의 저택 제공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유치위원들이 우리 손을 들어줬죠.”

—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뒀나요.

“프레젠테이션도 우수했지만, 가장 점수를 많이 얻은 이유는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백신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녹십자사가 B형 간염백신을 생산해 저개발국에 싼

값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었어요.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가 개발한 것을 대상 국가에 맞게 변형해서 만든 거지만, 백신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방어적 메카니즘으로 생각하는 선진국과 다른 자세가 점수를 땀 거죠.”

— 서울대 캠퍼스 안에 들어오게 된 연유도 흥미롭겠는데요.

“서울대에는 백신과 관련된 분자생물학, 의학, 약학 등의 분야에서 우수인력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대학원, 포스트닥 과정에 있는 연구원을 같이 쓸 수가 있고요. 한 마디로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서관, 유전공학연구소, 전산원 등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유치조건 중 하나가

백신 3종 개발·논문 5백편 발표 연구 시너지·고용창출 효과 거둬

• 朴相大 동문은

1937년 8월 20일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모교 동물학과와 세인트존스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1967년부터 2002년까지 모교 생명과학부(분자생물학) 교수를 지낸 후, 현재 모교 명예교수로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분자유전학)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 제3세계과학학술원 회원, 나노소재랩센터 이사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및 DNA 손상에 흥미를 느껴 연구를 시작한 것이 평생의 연구 분야로 삼아 매진해 왔다.

1980년대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분야가 부상하기 시작할 때 이 분야를 주도한

첫 세대 대표주자로 서울대 대학원 분자생물학협동과정과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설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한국분자생물학회를 창설해 관련 학문간 화해 소통에도 힘썼다. 아울러 IVI 유치과정에서 IVI 한국유치추진위원회 간사, IVI 설립지원특별기획단 위원장, IVI 사무총장 특별고문 등 16년째 IVI에 몸담아오던 중 이번에 공간을 채우는 사명을 담당하게 됐다.

부인 柳京子(동물학57-61)동문, 장남 朴慶烈(응용화학98-04 제46대 총학생회장)동문을 비롯, 처남 柳雄錫(토목공학68-72)동문, 동서 郭東秀(건축53-57)·高光彬(토목공학60-66)동문, 조카 李憲坤(조선공학73-77)·朴志烈(금속공학89-94)동문 등 가내에 서울대인이 25명 쯤 된다.

국제공항이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TX가 개통되기 전이니까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과학기술부가 원했던 대덕까지 가려면 3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여기는 공항에서 40분 거리잖아요. 또한 정부의 유치 의지가 큰 것도 한몫을 한 것입니다. 결국 유치 제안서에 IVI를 서울대 안에 설립한다고 못 박은 것 역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치에 성공은 했는데, 유치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현재까지 40개국이 설립 서명국인데, 미국과 일본이 서명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 이유가 뭐니까.

“IVI가 우리나라에 설립될 경우, 미국의 멀크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한국이 가져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에서였죠. 이들 나라는 아직도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IVI의 설립 목적이 콜레라, 말라리아, 이질, 설사병, 장티푸스 등으로 연간 1천만명이 죽어 가는 저개발국 아이들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가면 값싼 백신 하나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단순 질병으로 숨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IVI는 백신 연구와 개발만 하고, 생산 판매는 다국적 기업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젠 미국도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빌 앤 멜린다 게이츠재단(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에서 11년간 1억3천2백만 달러를 쾌척한 것 아닙니까?”

— 연구소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백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연구인력과 행정지원 인력 비율은요.

“연구인력은 절반 이상이라고 봐야죠.”

—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1997년 개소 때부터 근무하고 있는 존 클레멘스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상급 과학자가 현재 47명입니다. 그 중 클레멘스 소장은 스탠퍼드대와 예일대를 나온 의학자로 국제적인 명성이 대단합니다.”

— IVI를 한국에, 더욱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 유치한 것 자체가 높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죠.

“IVI를 이곳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50명의 정상급 과학자가 상주하면 이들을 옆에서 돕는 인력, 예를 들어 포스트닥, 대학원생 등 1백50명 정도를 붙여줘야 하거든요. 연구 시너지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또 운영비(30%)는 국내에서 대지만, 연구비 중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유입 효과도 큼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예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쓰게 되니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 그동안 연구 성과를 정리해 주시죠.

“설립 직후 곧바로 IMF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연구소 건립은 자연히 미뤄졌죠. 1998년에 완공하기로 한 것이 2003년에 가서야 준공됐습니다. 서울대 연구공원으로 오기 전까지 캠퍼스 안 자그마한 임시 연구소에 있었죠. 최근 IVI는 콜레라



“연구 교류·인프라 지원 등 國格 높이는데 기여”

백신 1종, 장티푸스 백신 2종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다는 의미는 새롭게 만들었거나 있는 것을 조금 개량했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논문도 Nature, Science, Lancet 등 저명 국제학술지에 한 5백편 정도 발표했고요. 에이즈 바이러스, 암 유전자 등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완벽한 ‘생물안전차폐시설’인데, 작년에 이 최첨단 시설이 완공돼 앞으로는 수준 높은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요. 그럼 후원회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영부인께서 명예회장이시고, 회장, 부회장 2명, 총리를 비롯해 전임 대학 총장, 장관, 기업체 등 각 분야 지도자들로 구성된 20명의 고문과 40명의 이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총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했고, 앞으로 회장님께서 연간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나와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먼저 지금 이 건물이 있는 부지가 1만9천6백68㎡ 정도됩니다. 유치 초기에 평당 2천만원으로 산정하면 1억 달러, 즉 1천억원(당시 환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물을 짓고, 기자재 및 특수시설 등을 들여오는 데 6백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운영비의 3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2천억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차원에서는 약 25억원 정도 모아졌고요.”

— 조금 미흡하군요.

“기금 모금한다는 게 결국 남의 주머니 터는 일이지요. 컨설팅회사에 IVI가 국내에서 얼마만큼 기금을 모금할 수 있는지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1백억원 정도는 모금할 수 있을 거라고 진단하더군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1년에 1백억원 가까이 모금을 하고 있으니, 거기보다 더 국제적인 기구이고 저명한 분들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더군요. 현실은 달랐어요.”

— 두 기관을 냉정하게 놓고 보면 유니세프는 어린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치니까 기금이 잘 되잖아요. 그런데 IVI 하면, ‘백신은 맞긴 맞는데 백신을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된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 월급도 받지 않고, 직원들도 후원회에서 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운영해도 기금 모금은 정말 어려워요. 동창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 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기금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나올 겁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부각시키고, 일반인에게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4년 동안 적어도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겠다고 하는 방침이나

아젠다가 있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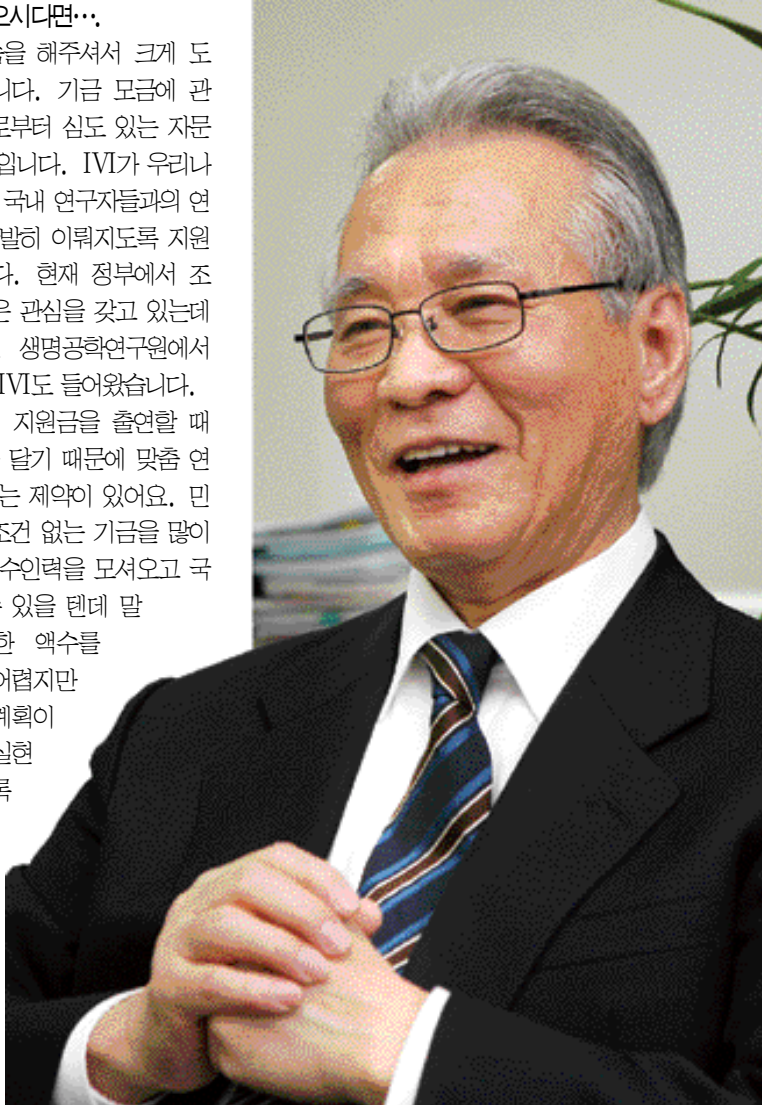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금 모금에 관해선 전문가로부터 심도 있는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IVI가 우리나라에 있는 한 국내 연구자들과의 연구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류독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명공학연구원에서 팀을 구성해 IVI도 들어왔습니다.

외국재단이 지원금을 출연할 때는 꼭 단서를 달기 때문에 맞춤 연구를 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요. 민간차원에서 조건 없는 기금을 많이 내야 해외 우수인력을 모셔오고 국격도 높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구상 중인 계획이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명공학기술(BT) 분야의 선구자이시고, 학자 그리고 과학자로

살아오신 이력이 40여 년이 되시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지금 BT의 기초가 되는 분자세포생물 분야를 공부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좌절도 맛보고 또 보람됐던 일들도 많으셨을 텐데.

“1980년대 초에 유전공학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지만, 막상 유전공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첫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



죠. 기반도 안 닦여져 있으니 매사 개척자 정신으로 했죠. 과학기술부에 건의해 유전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했고, 교육부에 유전공학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13년 동안 대학에 지원하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20여 개 대학에 유전공학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한국 생명공학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안에 분자생물학협동과정은 개설

하고, 분자생물학회(1989년 4월 15일)도 창설했습니다. 의학은 의학대로,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농학은 농학대로 장벽을 치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풍토를 이 학회 설립으로 생명과학의 공동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杗桴大, 네가 있었기에 분자생물학 발전을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고요. 최근에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연구 실적들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학자들 정말 대단해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데 매력이나 보람이 됐다는 것이 보람이죠.”

— 지난 10여 년 이공계 기피, 이공계 홀대 현상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계획도 다 공염불에 불과할 텐데요. 과학자로 평생 살아오신 분으로 작금의 이공계 기피, 이공계 홀대 현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때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물리학과에 갔습니다. 응용 쪽을 좋아하는 학생은 화공과를 선택했고요. 창의력이 있는 학생들은 기초과학 분야에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잘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특정 분야 말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이렇게 많은데 자꾸 잊혀지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어쨌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에서 흥미를 가지고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터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연구현장에서 경륜 있는 중견과학자를 배제하는 풍토 역시 비뚤직하지 못한 현상 같아요.

“대학에서도 50세가 넘으면 연구계획서를 써도 후배 교수들이 조용히 쉬시라고 그러한다고 합니다.”

—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도 고령자(?)의 이름을 제안서에서 빼라고 한다더군요.

“중요한 연구실적은 겉면에 10년, 20년도 넘게 걸립니다. DNA이종나선 구조를 완성한 왓슨과 크릭도 9년 뒤에야 가설이 입증돼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경륜 있는 인력이 중요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 마지막으로 서울대 울타리에서 평생을 보내고 계신 동문의 한 분으로 동창회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운동 등에 대해서 30만 동문이 발 벗고 나서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동문들의 구심점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동문 각자는 서울대를 나온 덕으로 받은 혜택의 일부를 돌려줄 책무가 있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 볼까요. 기금 모금할 때, 큰돈을 한 번에 내라기보다 매월 정례적으로 쪼개서 내는 방법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소액 기탁자들도 배려해 주면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학비딩 건립기금 모금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대의를 위해, 좋은 일을 위해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이겠죠. 장시간 감사합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表智媛기자)

분자생물학 발전 10년 정도 앞당겨

국고지원의 모교 유전공학연구 설립

• 국제백신연구소(IVI)는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주도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백신 개발과 도입 촉진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한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다. 세계 40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참여하고 있고, 20개국 출신 과학자 및 연구원 1백57명이 포진하고 있다.

IVI는 모교 안에 있는 세계본부에서 백신을 개발해 지금까지 콜레라, 장티푸스에 대한 3종의 백신을 개발 및 개량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28개국에서 백신 현장적용 연구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대북 백신 지원사업에 착수

해 작년 초 북한 남포와 사리원에서 북한 어린이 6천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과 수막염 백신을 접종해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최빈국에서 매년 4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후원기관은 UNDP, WHO 외에 게이트재단, 록펠러 재단, UBS재단, PATH의 어린이백신프로그램, 한국과학재단 등 공익 기관, 각국 정부(한국·일본·호주·스웨덴·미국·쿠웨이트 등)와 기업(LG전자) 등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속적인 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배전의 지원이 시급하다.

“모교에 대한 우리 가족의 보답입니다”

“지난 2004년 회갑을 맞으면서 몇 가지 장래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가운데 동창회 장학금 출연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3억원을 생각했다가 아내가 자기 뒤통도 포함 시켜달라고 해서 5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금액이 커지니까 생각도 많아지더라고요. 우물쭈물 하다가 시기를 놓쳤죠. 그러다 평소 잘 알고 있던 삼익약기 金鍾燮회장의 10억원 출연 소식을 접하고 다시 마음을 먹었죠. 아내의 핀잔도 한 몫 했습니다. 남자답게 과감히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었죠. 기왕 출연하는 김에 모교를 졸업한 두 자녀, 사위 뒤통까지 더해서 10억원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장학발딩 건립기금 10억원 고액 출연자 대열에 朴浩田(경영62-66 (주)삼덕 회장)·金英姬(작곡62-66)동문 부부가 19번째로 합류했다. 고액 출연자가 지난 1년 동안 없던 터라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朴浩田동문은 약정 다음달 바로 1차분으로 6억5백만원을 보내왔다.

출연 동기에 대해 朴동문은 “저와 아내 그리고 두 자녀, 사위가 모교를 졸업해 누려왔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모교 졸업장 하나로 알게 모르게 받은 혜택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심의 원천이기도 했고, 서울대 출신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모교를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식들을 잘 가르쳐준 것도 감사하고요.”

자녀 등 10명 ‘서울대 가족’

그는 林光洙회장이 장학발딩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고 했을 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모래알 같은 서울대 동문들이 과연 이 운동에 호응할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금 시작 후 매월 동창회

보를 통해 기금 모금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라웠어요. 회장님이 열정을 갖고 하니깐 서울대 동문들도 뭉쳐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느 동창회에서든 하지 못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발딩 건립기금에 출연함으로써 ‘朴浩田·金英姬특지장학회’가 자동적으로 설립된다. 특지장학회는 출연자가 지원 학생을 지정할 수 있다. 10억원을 약정했기 때문에 금리 5%를 적용할 경우 매년 5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원하는 재학생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朴동문은 영·호남 농어촌 지역 출신 학생들이 혜택 받기를 희망했다.

“저와 아내가 대구출신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지역간 갈등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제가 지원하는 영·호남 학생들이 계속 늘게되면 친목 모임도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들끼리 화합하는 모습도 보일테고 이런 작은 노력이 결국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어요.”

朴동문과 金英姬동문의 인연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남녀공학이었던 경북사대 부속 중학교 동급생으로 처음 만나 모교에 입학하면서 캠퍼스 커플로 발전했다. 그리고 졸업 후 25세의 나이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의 가족 중에는 모교 출신이 많다. 직계로 장녀(朴祉炫 의류91-95), 차녀(朴素賢 언론정보93-97), 맏사위(安秉旭 경영86-90·서울고법 관사)가 동문이고 자형 皇甫漢(화학공학56-60)초대 항공우주 연구소장, 매부 鄭鎭碩(의학77-83)한림대 의대 교수, 처남 金錫賢(기계공학68-72)국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 동서故 俞明植(경제57-4)대한방직 감사·李根國(치의학73-79)치과병원장 등 모두 10명이 서울대 가족이다. 朴동문은 미혼인



金英姬·朴浩田동문 부부

셋째 딸과 막내아들도 동문과 맺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셋째 딸은 이화여대를 나와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근무 중이고 막내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현재 싱가포르 크레디트 스위스뱅크에서 일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동문들은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영·호남 지역 학생 지원 희망

자녀들을 잘 키운 비결에 대해 묻자 朴동문은 “특별한 비결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엄마 아빠가 서울대 졸업생이란 것이 은연 중에 압박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가훈이 ‘安分知足, 誠勤是實’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성실과 근면이 보배라는 뜻이죠. 그런 집안 분위기가 작용했을지도 모르겠고요.”

朴동문은 부친의 뜻에 따라 경영학을 전공했다. 당시 대구에서 (주)삼덕연탄을 경영하던 부친은 장남인 朴동문이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다.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사해 7년간 조사부, 은행감독원 관리국, 기획부를 돌며 조직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30세에 가업을 이어받아 단양광업개발 및 삼덕연탄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1984년 도로포장재료인 아스콘·래미콘 업종으로 변경하며 회사명도 삼덕으

로 바꿨다. 이후 25년간 이 분야에만 집중하며 현재 동종업계 1위 업체로 일궈냈다. 2001년 구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건물을 인수했으며 서울·경기 인근 5개 공장에 1백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 매출액은 9백억원.

“회사 경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원칙고수’, ‘정도경영’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았어요. 무차입 경영을 지켜가며 어음도 발행하지 않았고요. 직원들에겐 월급 등은 아

끼지 않으면서 기타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1994년 서울 경인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2004년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 2002년 모범중소기업인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앞으로 朴동문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환갑 때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갑 기념일에 ‘이제는 더이상 돈을 벌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기업경영 40주년을 맞는 70세에는 은퇴할 계획이고요. 이후 계획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재단도 준비하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람찬 노년기를 보낼 생각이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청년시절엔 농구, 배구, 수영을 즐겨 했으며 최근엔 등산, 골프, 헬스 등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골프 핸디캡은 12 수준.

상과대학 20회 동기 모임인 ‘五商會’의 와인담당을 자처할 정도로 와인에 조예가 깊다. 와인수입사가 주최하는 ‘소믈리에 시음회’에 초대받아 테이스팅에 관여할 정도의 실력이다. 오상회는 1백60여 회원이 매월 등산모임, 골프모임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朴동문도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南)

동문기업 탐방

(주)포 시니어스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성원 모두 실버 전문가

포 시니어스 강점은 구성원들의 전문성에 있다.

본점 및 사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원 43명이 실버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다. 보건복지가족부 실버산업육성



李燾賢대표

포 시니어스(forseniors.co.kr)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실버산업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회사명 그대로 ‘노년 세대를 위한 (For Seniors)’ 모든 분야를 서비스한다. 특히 신문 광고를 통해 실버타운 기획·분양·관리만 하는 ‘부동산 기획사’ 정도로 알고 있었다면 오해다.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타운, 전원마을,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실버기기의 컨설팅을 하며 고령친화사업관련 연구와 조사도 대행한다. 그밖에 실버산업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노인복지 출판사업도 담당한다.

李燾賢(체육교육72-76)대표는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를 도와주고 컨설팅해주는 업체는 드물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책임감을 갖고 노인 복지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실버타운과 관련해 포 시니어스의 경력은 화려하다.

1998년 국내 최초로 도심형 실버타운인 ‘서울시니어스타워’ 3개 타운을 기획·개발해 실버타운의 도심화를 선도했으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실버타운 사업의 절반 이상이 포 시니어스의 컨설팅을 거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시니어 팰리스 실버타운 개



포 시니어스가 분양 관리하는 성남 분당 정자공원내 실버타운 ‘정원 속 궁전’ 전경

국내 유일 실버산업 전문 컨설팅기업

발, 현대건설 실버 수요층을 위한 신 주거 상품 개발, 부산 I·H시니어타운, 벽산건설 용인 B실버타운, 분당 ‘정원 속 궁전’ 운영 및 분양, 용산 H실버타운 등 약 50건의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도심형 실버타운 첫 선포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요양부문에서도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원주 수노인 전문병원, 광주 도적면 노인요양시설 컨설팅, 대전 S병원 사업성 검토 및 상담, 분당 노인요양시설 사업성 검토 등 10여 건의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또 연구 및 기타 부문에 서전군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계획 수립, 교육부지정 실버타운산업 특성화사업 수요 조사, 홈네트워크 H사와 홈네트워킹 개발제휴, 건강생활용품 D사와 제휴해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49억원의 계약실적을 올리는

실무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역임한 李燾賢대표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와 노인전문간호사, 공인중개사, 실버타운 행정전문가, 법률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다. 주요 임직원은 대학 교수를 겸직하거나 강의를 나가고, 실버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과정의 특강이나 세미나에 나가 강연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다. 노인복지학 교수, 관광경영학 교수, 건축사 인테리어 전문가, 스포츠의학 교수, 홍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등 체계적인 서포터를 두고 있다.

포 시니어스를 이끌고 있는 李燾賢대표는 ROTC 14기로 과천시 초대 시의원과 경기도 4대 도의원 재임 시 ‘수도권 노인 전철요금 무료화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노인복지와 교육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건국대에서 50세의 늦은 나이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강남대 실버산업학부에서 겸임교수를 맡는 등 왕성한 강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南〉

에스엔유프리시전 (주)

지금부터 11년 전, 모두가 힘들었던 IMF 시절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바로 1998년 2월 20일 모교 공과대학 실험실 한 쪽에 에스엔유프리시전(주)의 현판식이 거행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산업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장비와 소재 등에서 무역적자가 누적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엔유프리시전(SNU Precision)의 차喜載(기계설



朴喜載대표

취소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기업은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LCD제조용 장비를 신규 개발해 기술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일본시장에서도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밖에도 2006년 공급과잉으로 LCD시장의 규모가 축소돼 시장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도 착실히 개발을 준비한 신규장비 개발이 성공을 거둬에 따라 타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LCD시장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진정한 기술력과 경영은 현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현장 고객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마인드 등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 實事求是정신이 제 경영철학입니다.”

최근 합병을 통해 그 규모가 한층 더 커진 에스엔유프리시전은 LCD, OLED, 반도체, 태양광 사업 등 크게 4개의 사업 분야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약 9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LCD제조용 신규 장비 개발

차대표는 2005년 1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때 장학기금 및 연구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약 80억원 상당의 주식을 모교에 기부했었다.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에스엔유프리시전이 위치한 서울 낙성대동 동아타운 빌딩

LCD·OLED·반도체·태양광 사업 구축

계79-83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대표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반도체 분야 등에서 연구개발이 상품화와 사업화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업이라는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국민세금의 지원을 받아 학문을 연구하는 리더로서 반드시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논문 등의 아카데미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라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일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난해 매출 9백억원 달성

이러한 차대표의 정성을 하늘이 알아준 것일까?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에스엔유프리시전은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2000년대 초 IT거품붕괴 때도 당시 주력으로 추진하던 광통신 장비의 수많은 수주가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친화적인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전시회, 학술대회 등 대부분의 행사를 참관하고 최신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습득한 현장경험을 학생들의 강의에 접목시키죠. 또 바쁜 가운데서도 매 학기마다 2개 이상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환원 및 국가경쟁력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에스엔유프리시전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봤다.

“금년 또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예상되는 등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이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선후배, 동기간의 정을 돈독히 해온 차대표는 지금까지도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 배우고 돕는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樂〉

朴孟浩회장 발전기금 2억 쾌척

일반인 위한 인문학 강좌 지원

모교 소식

지난해 1월 7일 도서출판 민음사 朴孟浩(불문52-57 인문대동창회장)회장(사진 右)이 모교 李長茂총장에게 인문대학 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했다.

인문대학(학장 邊昌九)은 이 기금을 5월 중순부터 개설되는 일반인을 위한 무료 인문학 강좌에 사용할 예정이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서울대 인문 강좌’는 심도 있고 포괄

적인 인문학 지식을 원하는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문대는 이를 위해 8명의 교수로 구성된 ‘서울대 인문 강좌위원회’(위원장 邊昌九)를 두고 홈페이지 및 소식지의 공고를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 강연이 종료된 후에는 교수별로 내용을 묶어 책을 간행하게 되며, 출판은 향후 3년간 민음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朴회장은 “우리 사회가 각박한 이유가 인문학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인문학이 발전하길 바



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대학은 오는 3월부터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IFP)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金東勳동문 1억5천만원 출연

도서관 학술서적 확충에 사용

지난 1월 6일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金東勳(화학48-54) 명예교수(사진)가 모교 중앙도서관 발전기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출연했다.

고려대 식품공학과 창설을 주도하며 30년간 봉직한 金동문은 모교와 고대에 동시에 같은 금액의 기금을 쾌척했다.

‘金東勳도서관’은 金동문의 뜻에 따라 Chemical & biological science 분야의 학술지, e-journal 및 전문 학술서적의 확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金동문은 1961년 미일리노이대



에서 식품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 부교수를 거쳐 1968년 고려대에 부임해 식품공학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저서로는 식품화학개론, 식용유지의 산패 등이 있다.

27세 존 라이트너 미국 변호사

모교 최연소 교수로 법대에 임용

모교는 지난 1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존 라이트너(John M. Leitner)씨를 법대 전임강사로 임용했다.

올해 27세인 라이트너 씨는 지난 2005년 당시 29세였던 기계항공공학부 金敏辰교수의 최연소 임용기록을 경신했다.

2007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우등(cum laude)으로 졸업한 라이트너 씨는 학창시절 세계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베이크 앤드 매킨지’의 일본 도쿄지점에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유명 학술지 ‘법과 기술’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

라이트너 씨는 도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돼 한국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한국의 법제도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

모교 법대 丁相朝교무부학장은 “라이트너 변호사가 금융분야와 회사, 경제 발전 등에서 한국 특유의 역동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껴 한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싶어 모교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라이트너 씨는 이르면 다음학기부터 미국법과 기업법, 저작권법 등의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다.

경영대학 학장에
安泰植교수 선임



지난해 12월 10일 경영대 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에 安泰植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지난 1월 2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安학장은 1975년 모교 경영학과에 입학, 1980년 졸업한 후

1989년 美텍사스 오스틴대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美에리조나주립대, 아주대 교수를 거쳐 1997년 모교에 부임해 경영대 교무부학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자연과학대학

‘다윈탄생 2백주년’ 강연

자연과학대학(학장 李鍾燮)은 ‘다윈탄생 2백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강연을 오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자연대는 매년 겨울방학에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현대 과학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공개 강연을 개최해왔다. 올해는 ‘종의 기원’으로 새로운 과학의 문을 연 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의 탄생 2백주년과 ‘종의 기원’ 출간 1백5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이 기획됐다.

이번 특강을 통해 다윈이라는 인물을 조명하고, 다윈이 관심을 가졌던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현재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종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강연자로는 모교 화학부 金熙濬(화학66-70)·생명과학부 洪性旭(물리80-84)교수, 이화여대 崔在天(동물73-77)교수, 동덕여대 장대의 교수가 참여한다.

“관악을 보고, 듣고, 맛보세요”

문화 향기 가득한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 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내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 기타 학내 체험 등

(홈커밍데이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선배님, 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㉔

배움의 연마 기념비

모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본관 잔디밭 앞에 세워져 있는 배움의 연마 기념비.

의과대학 8회 동기회(회장 丁長鎭)가 ‘몸과 마음 그리고 배움의 연마’라는 제목으로 기념비와 맷돌을 함께 세웠다.

공과대학

국제과학기술대회 열어

공과대학(학장 姜泰晋)은 지난 1월 4~13일 기후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국제 과학경영기술대 학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모교를 비롯한 고려대, 중국 홍콩과학기술대, 미국 일리노이대 등 4개 대학에서 12명씩 총 48명의 학부생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서울지역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사업모델을 구상해 이를 사

업설명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우승팀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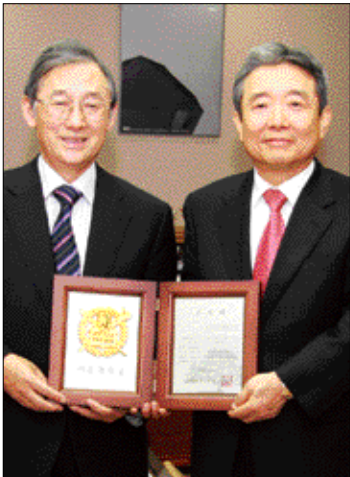
우승은 ‘에코스케이프(echoscape)-육상녹지와 모듈화’를 주제로 발표한 7조에게 돌아갔다. 우승팀의 이준혁(기계항공공학03입)군은 “서울시를 주제로 한국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학생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사를 맡은 모교 朴浚範(토목공학81-85)교수는 “무엇보다 창의성, 공학적 실현가능성, 환경친

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육상 녹지모델을 모듈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게됐다”고 밝혔다.

국제과학경영기술대회는 홍콩과학기술대와 일리노이대가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홍콩, 시카고를 거쳐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렸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일리노이대 정선희 교수는 “지난 대회에 비해 다채로운 주제들이 발표됐고 학생들도 적극적이었다”며 “다음 대회에도 서울대 재학생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榮)



李長茂·金鍾悟동문



高明三·車相均동문

세대 뛰어넘는 기부 릴레이 증가

제자·자녀들 모교 사랑에 동참

최근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에 제자와 가족들의 훈훈한 기부 릴레이가 증가하고 있어 동문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宋鶴麟(법학59-63)동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당시 지도교수였던 故 黃山德(경성제대41졸)교수 명의로 ‘황산덕 장학기금’을 설립, 1억원을 출연했다.

현재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宋동문은 “어려웠던 대학시절 黃山德교수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학창시절 기억을 되살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이 기

금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교 전기공학부 車相均(전기공학80졸)교수는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이하 자동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한 모교 高明三(전기공학51-55)명예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車교수의 기금을 통해 자동화연구소 5층을 리모델링했으며, 선배들을 존경하는 전통을 세워보자는 의미에서 이 층을 ‘一陽 高明三홀’로 명명했다.

자동화연구소 고문인 高明예교수는 공학 분야에서 열악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를 세계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어계측공학과를 설립하고 전기전자 분야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또 퇴임 후에도 자동화연구소 시설의 노후화를 걱정하며 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가족 기부 릴레이 가운데 지난 1994년 모교 국어교육과 金亨圭(경성제대36졸)명예교수의 기부로 시작된 ‘海巖학술상 기금’은 金동문이 작고한 후에도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기부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金亨圭동문의 장남 金鍾悟(물리교육60-64 충남대 재료공학과 명예교수)동문, 차남 金鍾哲(상학61-68 前영화회계법인 부회장)동문, 3남 金鍾和(의학63-69 김종화이비인후과 원장)동문, 4남 金鍾國(건축65-69 종합건축사 건원 사장)동문, 5남 金鍾珍(성악67-75 강릉대 음대 교수)동문이 3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해암학술상 기금’은 국어교육과 발전과 국어학 연구를 위해 헌신한 신진 연구자에게 해암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그밖에 해암학술강좌 및 해암기념학술회의 개최, 해암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교 발전기금은 세대를 뛰어넘는 기부 릴레이를 통해 재학생들에게도 이런 선배의 모습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 아름다운 기부의 실천을 통해 모교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미지마 교수는 지난해 7월 아사히(朝日)신문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설서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진보 성향의 知韓派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다. 30여 년간 ‘교과서의 사상-일본과 한국의 근현대사’ 등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고, ‘역사평론’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2월 1일 개교 이래 첫 국사학과 외국인 교수로 성균관대 마일란 히트매넥 교수를 임용했다. 美스탠퍼드대 출신인 히트매넥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한국사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미지마 교수와 히트매넥 교수는 오는 3월부터 모교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榮)

재학생의 소리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학생단체

지난해 2008년 2월, ‘인류애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고자 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 WISH(What Is Strategy for Humanity?)가 탄생했습니다.

WISH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연구하는 학생단체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현재 WISH는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경영지원하기 위해 경영대학 朴南奎(경영84-89)교수님의 지도하에, 경영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한 학사·석사 재학생 27명이 모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열정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Education), 둘째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활동을 하며(Support), 셋째 사회적 기업 가치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유 및 소통(Communication)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지원 네트워크(SESNet)와 연계해 총 3회의 WISH Report(1호:노인요양·간병 산업, 2호:재활용 산업, 3호:문화예술 산업)를 발간했으며, 해당 산업 분석을 통해 관련 사



金世正

(인류04입)

경영대 동아리 WISH 대표

회적 기업들의 운영상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We Can’ 프로젝트, 지구촌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과 사회적 기업화를 준비 중인 ‘공부의 신’의 경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경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학기 중은 물론, 방학 때에도 심화 세션을 하며 매주 4시간씩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된 WISH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사회적 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WISH와 비전을 공유하며, 저희의 열정과 가능성에 투자하실 선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합니다.

역사교육·국사학과에

3월 외국인 교수 강의

모교는 최근 일본 도쿄가쿠게이(東京學藝)대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교수를 사대 역사교육과 정교수로 임용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전공한

콩트 릴레이

농 부

權 武 一

(철학64 - 68)소설가·수필가



사위가 희끄무레한 새벽, 고두석은 말 달 구지에 몸을 싣고 집을 나선다. 현 달구지에는 쟁기가 실려 있다. 말발굽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깬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말(馬)은 시키지 않아도 두석의 발까지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다. 두석은 쟁기를 내려 말에 걸고 담배를 꺼내 문다. 연무가 깔려있는 비행장터가 내려다보이고 그 앞으로 바다가 은색 비늘처럼 반짝인다. 동쪽으로는 희뿌연 한라산이 아스라이 보인다.

두석은 반쯤 타 들어간 담배를 발에 획 내던지고 나서 손바닥에 침을 뱉뱌 빨고는 쟁기를 잡는다.

“이라.”

“

주위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경운기를 마다하고 말이 끄는

쟁기로 밭을 가는 두석을

답답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바보영감이라고 흉을 본다.

자신은 밭 근처에

열썬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

꿈적도 않고 주인의 하는 양을 결눈질해 보던 말이 천천히 쟁기를 끌고 전진한다. 쟁기날이 닿자 흙더미가 한 방향으로 실그러진다. 쟁기를 잡아 누르는 두석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고 그의 주름진 까만 얼굴에 금방 땀방울이 맺혔다. 성성한 백발이 갈대꽃처럼 바람에 휘날린다.

두석은 이 사래 긴 밭에 보리를 파종하고 있는 것이다. 보리가 싹을 트고 무성히 자라 누렇게 익을 때까지 겨우내 봄내 두석은 밭에서 산다. 흙을 돈고 보리를 밟고 검질을 매기도 하지만 월 일 없을 때에는 밭둑에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없는 식물을 내려다본다.

초여름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보리이삭이 마파람을 따라 물결칠 때가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보리는 영글어갈수록 더욱 고개를 꼴꼴이 세우는 모습이 고집불통인 자신을 닮은 것 같다고 두석은 생각한다.

보리를 거두자마자 그 자리에 바로 조를

파종한다. 이때도 밭 갈기는 말의 몫이다. 주위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경운기를 마다하고 말이 끄는 쟁기로 밭을 가는 두석을 답답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한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바보영감이라고 흉을 본다. 자신은 밭 근처에 열썬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초가을 조가 말꼬리만한 이삭을 척 늘어뜨릴 때는 참새들이 떼지어 몰려온다. 여기저기 허수아비를 세워두지만 새들은 오히려 허수아비 팔에 앉아 고개 숙인 우스꽝스런 모습을 조롱한다. 두석은 새를 쫓느라 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아니 새보다는 사 람 쫓기에 더 여념이 없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며 관광버스에서 우르르 내린 관광객들이

살이로 이어졌다. 그는 알뜰히 돈을 모아 밭을 샀고 물질하는 비바리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아 탈없이 키워 출가시켰고 그들은 지금 육지에 살고 있다. 아내는 전복과 소리를 따, 살림에 큰 보탬을 줬으나 요사이엔 전복의 씨가 말라 그녀는 물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농사에는 경험이 없는 터라 그녀는 모슬포 시내의 식당에서 주방 일을 돕고 있다.

그녀가 오며 가며 듣자 하니 남편은 모슬포 바다에 어리석은 농부로 소문나 있었다. 아직도 말을 부려 쟁기질하고 화학비료가 지천인데 보릿짚을 돼지똥에 이겨 뚫거름을 만들어 쓰고 남들은 경운기로 수확을 하건만 허리를 구부려 낫으로 보리와 조를 베는, 깨이지 못한 남편이 바보천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석 또한 아내를 소 닭 보듯 대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충직한 반려자인 말과 친해지고 있었다. 3대에 이어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말을 그는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 그는 허구한 날 말을 쓰다듬고 안아주고 말과 대화를 나눴다. 그가 말에게 말을 걸면 말은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행형 하며 웃어주기도 했다. 그는 말을 부려 쟁기질을 하고 말 달구지로 거름을 실어 밭에 나르고 곡식을 실어 공판장에 내다 팔곤 했다. 장에 갈 때면 말을 타고 다녔고 가끔은 해안가를 따라 말을 달리곤 했다. 한식에는 말

두석이, 낫선 양복쟁이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고 막걸리 한 대접을 들이켜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이장이 황급히 두석의 두 손을 잡아 주저앉히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XX 개발에서 호텔부지를 물색하던 중 삼촌 땅이 경관이 뛰어나서…; 말하자면 앞으로는 바다가 훤히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산방산 그리고 한라산이 그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실장이 말을 가로챘다.

“선생님 땅 2전평은 호텔 부지로 넓이가 알맞고 더욱이 4차선 도로에 몰려 있으니 주변지가의 두 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장도 알다시피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마누라 아니, 내 목숨과도 안 바뀝니다. 괜히 헛수고 말고 판 데나 알아보슈.”

두석은 이장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다. 풋감을 씹은 듯 입안이 펄펄름했다. 돌아서는 두석의 뒤통수에 대고 이장이 중얼거렸다.

“아주머니는 파시겠다는데.”

집에 드니 저녁상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상에는 회 접시가 놓여 있고 구운 전복이 지글거린다. 아내는 차조로 빗은 오매기 술을 들고 와 두석에게 엉덩이를 들이댄다. 늘 자물통을 달고 다니던 그녀의 입이 해 별어져 있고 눈매에는 어색한 애교가 지어진다. 아직도 부아가 안 풀려 씹씹거리는 남편의 심기를 읽지도 못하는 주제에,

“땅 안 팔아.”

두석은 상을 뒤엎어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내는 매일 어르고 조르고, 울고 북으며 밤낮으로 성화를 해댔다. 그럴 때마다 두석은 행하니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쐐었다. 종국에는 육지에 사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까지 동원됐다.

“아버지도 낼 모래면 칠십이오. 낚시나 즐기시고 말 타고 다니시며 노후를 편히 지내세요.”

“어머니가 늙은 나이에 남의 집 종살이하는 게 안타깝지도 않으세요? 장터에 국밥집이라도 차려 드

립시다.”

그러나 두석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냥 밭으로 나가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일이었다. 아내는 달포나 넘게 입을 자물쇠로 더욱 굳게 잠그고 밤에는 돌아누워 흘쩍었다.

보리는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두석은 잘 영근 보리를 베어 타작하고 공판장에 팔아 넘긴 다음날 쌀쌀하기만 한 아내에게 육지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섰다. 사흘 후 밤늦게 돌아온 두석은 아내를 덩석 끌어안았다. 부부는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운운의 정을 나눴다.

다음날 아침 아내의 머리맡에는 수표봉치가 놓여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든 아내는 밭으로 내달렸다. 보리가 베어나간 황량한 밭에는 남편도 밭도 없었다. 다만 ‘xx호텔 부지’라고 쓴, 페인트가 마르지 않은 팻말만이 꽃혀 있을 뿐이었다.

고두석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한라산 산록에 백발의 노인이 탄 말이 신출귀몰하더라 풍문이 제주도에 돌고 있었다.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 (서양화02 - 07) 동문

조 이삭을 한 다발씩 움켜 치마폭에 숨겨가기 때문이다.

그가 이 밭에 번갈아 보리와 조를 고집스럽게 심어온 세월이 40년에 이른다. 보리가 동해를 입어 쭉그렁 보리쌀조차 건지지 못해도, 조가 익어갈 무렵 태풍에 쓰러져 실한 낱알을 못 얻어도 아랑곳 않고 그는 해마다 보리와 조를 심었다.

그가 일곱 살 때인 1948년, 소위 4·3사태가 일어난 때였다. 그의 부모는 한라산 중턱에서 火田을 일궈 보리와 조를 심어왔었다. 토벌대들이 공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며 10여 호 되는 화전마을을 불지를 때 할머니는 어린 두석을 데리고 대숲에 숨어들었고 그의 부모는 엄검결에 산으로 도망치다 토벌대의 총에 희생돼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할머니는 어린 손자를 업고 친정인 모슬포로 내려와 살았으나 일년도 못돼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남의 집에 얹혀 살던 두석의 신세는 머슴

을 타고 지금은 폐촌이 된 옛 집터를 다녀오곤 했다. 거기에는 그때의 대숲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리이삭이 연두색으로 물오르는 사월, 땅거미가 대지에 깔리는 늦저녁에 두석이 초원에 매어둔 말을 풀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다. 구멍가게에서 마을 이장이 특튀어나오더니 기역자로 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다. 이장도 벼슬이라고 평소에는 고개를 뺨뺨이 젓히고 거드름을 피던 그가 오늘 따라 눈웃음을 치고 있었다.

“삼촌, 막걸리 한 대접하시지요.”

제주도에서는 웃어른을 삼촌이라고 부른다. 마침 출출하던 터라 두석은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갔다. 그때 간이의자에 앉아 있던 허여말경계 생긴 양복쟁이가 별떡 일어서더니 양복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인사하는 것이었다.

“XX 개발 기획실장 김상규입니다.”

“고두석이라 하오. 난 농사꾼이라 명함이 없수다.”

동 정

수 상

▲李淑淵(약학48-52 숙명여대 명예교수)=최근 한국예술문화원 주최 서화동인 1000인 초대전에서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朴孟浩(불문52-57 도서출판 민음사 회장·인문대 동창회장)=지난 1월 15일 49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수상.

▲金哲洙(법학52-56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1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률대상(학술부문) 수상.

▲孫章純(불문54-58 소설가·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최근 장편소설 '폭죽'(은행나무출판)으로 제4회 默史 柳周鉉문학상 수상.

▲金容俊(법학55-59 前법재판소장·변호사)=지난 1월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사법부문) 수상.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한국종이접기협회장)=지난 1월 23일 시집 '뚜벅이 반추'로 제15회 한국농민문학상 수상.

▲金榮秀(법학60-64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지난 1월 19일 서울고충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柳岸津(교육학61-65 前모교 소비자아동학부 교수·시인)=오는 8월 만해죽전 기간에 만해사상실천선양회로부터 제7회 유심작품상 수상.

▲明魯哲(치의학63-69 명치과의원장)=최근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대통령 표창 수상.

▲李建榮(건축64-68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지난 1월 22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5회 일진상(기술정책기

여부문) 수상.
▲朴泳姬(작곡69졸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 교수)=오는 3월 4일 제15회 KBS 해외동포상(문화예술부문) 수상.

▲朴漢濟(동양사학69-73 모교 동양사학과 교수)=지난 1월 15일 제49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진인각, 최후의 20년'으로 번역상 공동수상.

▲李賢享(기계공학69-73 현대기아자동차 부회장)=지난 1월 19일 서울고충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劉永濟(화학공학70-74 모교 화학공학부 교수)=지난 1월 22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수여하는 제4회 해동상(공학교육 혁신부문) 수상.

▲丁相郁(수학75-82 미국 럿거스대 석좌교수)=오는 3월 4일 제15회 KBS 해외동포상(과학기술부문) 수상.

▲李東官(정치76-81 청와대 대변인·본보 논설위원)=지난 1월 6일 신일고충동문화 신년교례회에서 제7회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상 수상.

▲金衡鍾(동양사학77-82 모교 동양사학과 교수)=지난 1월 15일 제49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진인각, 최후의 20년'으로 번역상 공동수상.

▲朴槿惠(AIP 26기 前한나라당 대표·국회의원)=지난 1월 1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입법

부문) 수상.
▲金基星(ACAD 52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최근 헤럴드경제가 선정한 '2008년 올해를 빛낸 인물'상(정계인 부문) 수상.

▲鄭松鶴(ACAD 54기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최근 시사주간지 뉴스매거진이 주최한 제6회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대상 수상.

인 사

▲安鍾允(법학51-55 前한양대 교수·한국국제관 공개발연연구원장)=지난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정책포럼 회장에 연임.

장·차관급에 동문 15명

李明博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장에 元世勳(행정70-74)행정안전부 장관, 주미대사에 韓惠洙(경제67-71)前국무총리를 각각 내정했다.

이어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尹增鉉(행정65-69)前금융감독위원장, 국무총리실장에 權泰信(경제68-72)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 陳棟洙(법학67-71)한국수출입은행장을 각각 내정했다.

차관급으로는 기획재정부 제1

차관에 許京旭(경영74-78)청와대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李周浩(무역79-83)前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鄭昌燮(법학74-78)차관보, 제2차관에 姜秉圭(현대원77-79)소청심사위원장, 여성부 차관에 陳泳坤(경영75-79)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趙源東(경제75-80)국정운영실장, 기상청장에 全炳成(현대원83-85)청와대 환

경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또 1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 河榮帝(농업교육74-78)산림청장, 조달청장에 權泰鈞(경영74-78)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산림청장에 鄭光秀(대학원85졸)산림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1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李達坤(공업교육73-77)국회의원을 내정했다.

尹增鉉·李達坤장관, 元世勳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고, 韓惠洙주미 대사 내정자는 미국 정부 아그레망을 받아 부임하게 된다.



尹增鉉 재정장관



李達坤 행안장관



元世勳 국정원장



權泰信 총리실장



陳棟洙 금융위장

▲成炳旭(정치57-61 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세종대 석좌교수)=지난 1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독자불만처리위원 겸 윤리위원회에 위촉.

▲河權益(의학57-63 마디병원 명예원장·의과대학동창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월 20일 중앙대 의부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선임.

▲金秉柱(경제58-62 서강대 명예교수·한국개발연구원 초빙교수)=지난 1월 8일 기업 구조조정을 조율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에 선출.

▲金炯國(사회60-64 지속가능발전위원장·모교 현대원 명예교수)=지난 1월 21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에 내정.

▲金柱演(독문60-64 숙명여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지난 1월 7일 임기 3년의 한국문학번역원장에 임명.

▲李益煥(영어교육64-68 前연세대 교수·상명대 석좌교수)=최근 한국하버드연정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李錫采(경영64-68 前정보통신부 장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지난 1월 14일 KT 사장에 취임.

▲李承旭(수의학67-71 모교 보건대학원 교수)=지난 1월 1일 대한보건의협회장에 취임.

▲梁承錫(경영71-78 글로벌비즈니스장)=지난 1월 19일 현대차 국내·해외영업 및 기획실 사장에 선임.

▲李在弘(전자공학72-76 모교 전기공학부 교수)=지난 1월 1일 대한전자공학회 39대 회장에 취임.

▲鄭成福(법학73-7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지난 1월 21일 KT 윤리경영실장(부사장)에 선임.

▲金泰賢(독문75-81 순천향대 교수)=지난 1월 1일 임기 2년의 순천향대 교학부 총장에 선임.

▲禹亨植(사회교육75-79 前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지난 1월 22일 국립금오공대 제5대 총장(임기 2009년 3월 31일~

2013년 3월 30일)에 선출.

▲朴商龍(경제75-79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지난 1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

▲洪準浩(동양사학76-83 前조선일보 워싱턴지국장·편집 부국장)=지난 1월 17일 조선일보 편집국장에 선임.

▲尹正國(국사학77-81 前충무아트홀 사장)=지난 1월 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

▲林仁圭(법학77-8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지난 1

월 14일 국회 사무처장에 임명.

▲金大根(대학원79졸 송실대 대외부총장)=지난 1월 19일 송실대 제12대 총장(임기 2009년 3월~2013년 2월)에 선임.

▲朴良雨(행정학81-86 前문화관광부 차관·중앙대 교수)=지난 1월 14일 한국계임산업협회 회장에 추대.

▲尹碩敏(화학공학83-87 SBSi 부회장)=지난 1월 23일 SBS 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全載弘(AIP 17기 극동해운 회장)=지난 1월 14일 환경·에너지 다국적 기업인 바이오테크그룹 회장에 취임.

▲孫豐三(ACAD 21기 순천향대 대외협력부총장)=오는 2월 24일 순천향대 제6대 총장에 취임.

행 사

▲辛鉉雄(지리64-68 前문화관광부 차관·재단법인 웅진 이사장·문화 부회장)=지난 1월 31일 모교 관악캠퍼스 웅진R&D센터에서 수학·과학·예술 영재 고교생 63명에게 장학금 수여와 멘토링 실시.

▲梁在鎬(치의학64-70 모교 치과보철학교실 교수)=최근 미국 하버드대 과경근무 중 대학원에서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강연.

▲權載述(물리교육66-70 한국교원대 총장)=지난 1월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金聲烈 교육학 75-82)과 공동으로 한국교원대 외국어연수원에서 학술세미나 개최.

▲吳永鎬(화학공학72-80 前산업자원부 차관)=지난 1월 20일 제37회 도산아카데미 포럼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

▲金興朱(경제78-8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지난 1월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기대 효과'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金成恩(기약92-96 상명대 겸임교수)=지난 1월 21일 서울 신문

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비올리스트 김성은의 Monologue & Dialogue' 개최.

▲金琉璃(기약93-97 첼리스트·독일 오스나브뤽 교향악단 부수석)=지난 1월 15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월드첼리스트 시리즈에 초청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 개최.

▲羅有宣(성악02-06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박사과정·소프라노)=지난 1월 13일 Korean-American Day에 미국 일리노이주 청사에서 양국 국가와 한국 가곡 열창. 또 지난해 12월 배리 알렉산더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수상의 부상으로 1월 27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

1 명복을 빕니다

▲金敬朱(경성제대45졸 前성균관대 총장)=지난 1월 9일 별세.
 ▲李殿漢(전기통신45-48 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14일 별세.
 ▲鄭茂燮(임학46-55 前한국산업경영사업기구)=지난 1월 10일 별세.
 ▲具永昌(전기공학48-52 김&장법률 변리사)=지난 1월 16일 별세.
 ▲金斗漢(전기공학48-52 동경지부동창회장)=지난 1월 15일 별세.
 ▲鄭雲澤(수학49입 前중앙고 교사)=지난 1월 19일 별세.
 ▲閔靑弘(약학49-56 前대성기업 사장)=지난 1월 16일 별세.
 ▲沈載德(잠사학57-63 한국화장실협회장)=지난 1월 14일 별세.
 ▲禹勝勇(법학61-65 前문화일보 편집국장)=지난 1월 1일 별세.
 ▲具本英(경제66-70 前과학기술처 장관)=지난 1월 5일 별세.
 ▲姜憲植(화학공학69-73 前현대석유화학 부사장)=지난 1월 15일 별세.
 ▲安哲植(행정학81-87 지식경제부 제1차관)=지난 1월 28일 별세.
 ▲南宮哲(AMP 42기 前정보통신부 장관)=지난 1월 16일 별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한국언론과

투표행태 연구

— 安光植 지음



한국언론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논문을 책으로 펴냈다.

대통령 선거 때 정치적 정보원, 관심도, 투표 결정 시기, 정치적 의견 형성 채널, 대인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상황, 이미지 형성과 이슈 인지 등과 관련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정형화된 ‘기본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투표행태 연구의 이론적 고찰’에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배경 및 고전적 이론을 포함해 투표행태 연구의 각종 이론을 정리, 집약해 놓았다. (파워북刊·값14,000원)

■ 稅法學理論

— 金在吉 지음



세 무 법 인 정 우 金在吉 (법 학 56-60) 고 문 이 세 무 관 서 의 집행 경험과 20년간의 대학 강의를 통해 터득한 세법이론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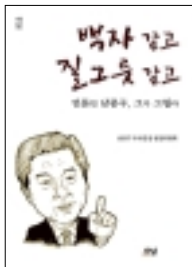
책의 구성은 크게 2부로 나뉘 제1부(일반이론)는 세법에 대해 저자가 처음 이해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1편 및 제2편으로 구성했다.

제2부(변경이론)는 말년에 와서야 이해한 세법이론으로 채웠다. 제3편 조세법률주의의 본체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본래 모습을 규명했으며, 제4편 세법학의 자주성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세법상 위치를 정립했다. 제5편 세법시설의 체계에서는 세법의 개념을 법학적으로 정립해 설명했으며, 제6편 관례연구에서는 세법의 실제적인 적용상황을 제시했다. (박영사刊·값45,000원)

■ 백자 같고 질그릇 같고 언론인 남중구, 그가 그림다

— 남중구 추모문집편찬위

지난해 1월 별세한 南仲九(정치



58-64) 前 화 정 평 화 재 단 이사장을 추모하는 문집.

40여 년간 언론인의 외길을 걸었던 南동문과 친

분을 맺었던 지인들이 함께 펴낸 문집으로 생전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는 화보·연보 등이 실렸다.

본회 林光洙회장을 비롯해 安秉勳·鄭夢準부회장, 丘月煥·宋鎮赫·朴勝俊논설위원 등이 쓴 추모의 글과 韓昇洙국무총리, 동아일보 金學俊회장, 문화일보 南時旭前사장 등이 남긴 南동문과의 인연에 대한 글이 감동적이다.

부인 金定姬(영문65-69)동문, 南尙我(산업디자인91-97)·남혜아(미학93-97)·남재준 등 자녀들의 글과 더불어 南동문이 동아일보 재직시 집필한 칼럼과 동창회보에 소개한 ‘관악춘추’ ‘노티나무광장’ 칼럼도 담겨 있다. (나남刊·값25,000원)

■ 역사와 문화로 풀어 낸 영어이야기

— 朴榮培 지음



국민대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인 朴榮培(영 어 교 육 65-72) 동 문 이 펴낸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본 영어이야기.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는 2000년 조선일보에 ‘영어이야기’란 제목으로 연재된 내용을 다듬어서 수록했다. 2부는 영어의 역사를 강의하면서 영어의 어휘 발전에 관해 정리한 자료를 담았으며, 3부는 영국의 왕과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영어의 역사를 설명했다.

영미영어의 차이에서부터 흑인 영어, 영화를 통한 영어의 이해, 어원과 만화, 문화표현의 차이, 지명과 은유적 표현 등 영어의 다양한 모습이 흥미롭다. (경문사刊·값15,000원)

■ 문창극 칼럼

— 文昌克 지음



중앙일보 대기자인 文昌克(정치68-72 본보 논설위원)동문이 10여 년간 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 주필 등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정치·외교적, 경제·사회적 의제들을 설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한 글을 엮었다.

정치, 국제관계, 경제, 사회, 시대단평 등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칼럼집은 최근의 미국 금융위기, 불교 차별, 쇄고기 수입과 촛불시위, 독도 문제, 2008년 대통령 선거,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등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현안들을 실용적인 자세로 풀어간다.

이 책은 단순한 칼럼 모음이 아니라 文동문의 사상과 원칙을 근간으로 한국 사회의 지향점을 모색하고 있는 사회 비평서로, 한국 사회 과거 10년의 공과를 되짚어 보고 다가올 10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들 위주로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을유문화사刊·값13,000원)

■ 교향곡은 어떻게

클래식의 황제가 되었는가

— 崔恩閼 지음



바이올리니스트 겸 음악칼럼니스트인 崔恩閼(기 악 88-92 대 원 문 화 재 단 전문위원)동문이 클래식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떠오른 교향곡의 역사를 살펴본다.

교향곡은 의례적 기능으로서 음악 활동의 절대적인 중심지였던 종교곡과 싸워야 했으며, 오락적 기능으로서 궁정의 실내악과 오페라를 능가해야 했다. 이 책에는 그 역사적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는 공연 전에 관객들의 주위를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쳤던 교향곡이 어떻게 전세계 콘서트 무대의 황제가 되었는지를 음악사적으로, 사회·문화사적으로 추적한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음악가의 사회적 독립, 시민사회의 성립과 이에 따른 공공연주회의 탄생과 함께 했음을 보여준다. (마티刊·값15,000원)

■ 성악 비법 24

— 黃世珍 지음



강남성악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黃世珍(성 악 97-05) 동문이 성악의 꿈을 키우며 도전하는 이

들에게 전하는 스몰레 가지 성악 비법.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에서는 성악의 기본이 되는 발성법에 대해 설명한다. 발성의 핵심인 호흡, 성대, 공명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공 연

■ 이태정 바이올린독주회

— 2월 18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이태정(기악 93-97)동문(사진)이 2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한다.

현재 이니스 앙상블 리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객원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베토벤, 슈만, 스트라빈스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정남일 바이올린독주회

— 2월 21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정남일(기악 86-90)동문(사진)이 2월 2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강남교향악단 악장을 거쳐

수원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동문은 이날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조수현 피아노독주회

— 2월 25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조수현(기악93-97)동문(사진)이 2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연다.

경남대 음악교육과 대우조교수인 조동문은 이날 스키타티, 베토벤, 리스트의 소나타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스트링콰르텟 IN연주회

— 2월 27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민병희(기악 86-90)·오유진(기악 89-93)동문, 비올리스트 최지연(기악 88-92)동문 등으로 구성된 스트링 콰르텟 IN이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매번 색다른 레퍼토리로 수준 높은 실내악의 참맛을 선보이며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명했다.

브라질은 인구 1억9천만 명이 넘는 노동력, 철광석·천연가스·보크사이트·망간·알

루미늄 등 50여 종의 지하자원, 해안선(8천4백km)의 풍부한 수자원, 수출 1위인 커피 등 농산자원과 국토의 60% 이상인 산림에서 나오는 임업자원 등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종 통계를 통해 브라질의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를 조명하고 향후 한국과 브라질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제언을 도출했다. (유엔아이刊·값 10,000원)

2부는 레슨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MP3 등을 이용해 녹음하고 분석하는 방법, 슬럼프 극복 방법 등이 담겼다.

3부에서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경험담과 일화를 소개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알려준다. (예술刊·값12,000원)

■ 떠오르는 경제대국

브라질 읽기

— 尹伯重 지음

삼화비닐판매(주) 회장, 삼화빌딩 대표 등을 맡고 있는 尹伯重(AIP 4기)동문이 브릭스(BRICs) 4개국 중 하나인 브라질의 오늘과 내일을 통해 한국과의 미래를 조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통신공학48-56)
- △김종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지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제(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인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평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67-71)
- 추정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정운환(임학56-62)
- △정충시(화학공학72-76)
- △조병우(섬유공학59-64)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중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종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윤(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중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효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하상완(치의학64-70)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고원도(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윤(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약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약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륜(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회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한규택(원자핵공73-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광산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졸)
- ◆1천1백10만원
- △이홍중(역사교육54-58)

- ◆1천1백만원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내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옥(약학55-59)
- ◆1천30만원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지현택(치의학43-47)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용현(법학71-78)
- △강행언(토목공학61-65)
- △권동은(FIP 4기)
- △권혁웅(불어불문59-63)
- △금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졸)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재호(생물교육53-57)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욱(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김평우(법학63-67)
- △류태환(상학48-54)
- △문규철(응용화학69-73)
- △문대원(경영학71-75)
- △문명국(기계공학73-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중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백사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숙(기약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안경상(행정학57졸)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제(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희춘(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동철(토목공학78-82)
- △이병재(경대원69졸)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운(영어영문50졸)
- △이송은(상학53-57)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구(임학60-64)
- △이종웅(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 △이창기(약학55-59)
- △이창원(법학55-60)
- △장무환(경제학45-51)
- △장세권(농공학70-76)
- △장익용(기계공학54-58)
- △장지준(의학70-77)
- △장홍동(농경제학59-63)
- △조길웅(HPM 14기)
- △조성훈(자원공학75-81)
- △최남해(상학52-56)
- △최선집(사회교육75-79)
- △최승철(기계공학66-70)
- △최준기(조선항공57-61)
- △추재옥(의학63졸)
- △표상기(원자력공61-65)
- △하영기(정치학44-48)
- △한창섭(정치학57-62)

-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 △함정호(행정학53-57)
- △허 선(정치학64-68)
- △홍순자(독어교육61-65)
- △황경로(AMP 11기)
- △황남주(물리학87-92)
- △전북지부동창회
- △간호대학동창회
- ◆9백만원
- △김상복(종교학57-63)
- ◆7백만원
- △정경모(행대원65-67)
- ◆6백만원
- △김현산(법학54-58)
- ◆5백만원
- △박수복(농생물학56-61)
- △신박일(약학60-64)
- △윤성근(공업교육74-78)
- △윤순녕(간호학69-73)
- △윤익석(축산학49-53)
- △이윤경(간호학65-69)
- △이현구(AMP 52기)
- △조상근(행정학69-73)
- △조원환(AMPP 6기)
- △법대37회 동교회
- △AMPFRI동창회
- △FIP동창회(김명도)
- ◆3백30만원
- △김석만(화학57졸)
- △이종복(응용미술62-66)
- ◆3백10만원
- △한규법(AMP 42기)
- ◆3백만원
- △강영현(농경제학69-76)
- △권숙일(물리54-58)
- △권혁창(지구과학69-76)
- △김영수(법학60-64)
- △김재율(경성법전39졸)
- △박금식(화학54-58)
- △안재동(상학60-67)
- △이동수(건축학61-66)
- △이성기(행대원63-65)
- △이재식(교육학75-79)
- △임재주(경제학55-59)

△정영채 (수의학56-60)
△하재규(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축산학68-72)
◆2백30만원
△강충원(전기공학59-65)
△이준형(GLP 11기)
◆2백만원
△나정우(농공학72-77)
△박태원(정치학46-50)
△성기학(무역학66-70)
△오복동(법학57-63)
△윤정일(교육학62-66)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원태(농경제학64-68)
△이종순(법학57-61)
△이현조(철학52-57)
△이흥구(법학53입)
△이희호(교육학46-50)
△임규운(행정학53-57)
△정용인(법학60-64)
△정주석(법학61-65)
△최창식(의학54-60)
△한영국(경제학50-54)
△허영호(전자공학71-75)
△홍석준(사회학73-77)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선태(법학66-70)
△황의인(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의학70-77)
◆1백60만원
△인효석(농공학80-87)
◆1백50만원
△곽 승(화학공학59-63)
△김건호(수의학70-74)
△김혜경(생물교육70-74)
△윤옥영(수학58-61)
△이기남(수학67-71)
△이진호(화학공학85-89)
△정성진(법학58-63)
△조귀장(사법학86-90)
·김주영(지리학92-97)
△조현래(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영균(법학57-59)
△김진억(법학55-60)
△문일환(치의학65-71)
△송진혜(공업교육63-72)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양동관(법학67-71)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태형(상학59-63)
△임한조(물리학67-71)
△정휘위(법학62-66)
△조병철(섬유공학59-65)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현전욱(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67)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61)
△김영도(축산학68-75)
△김주현(의학65-71)
△김진원(건축학68-72)
△나명훈(의학76-83)
△부창렬(건축학77-81)
△이갑노(의학65-71)
△이계홍(농공학56-62)
△이상건(섬유공학74-78)
△이정우(AMPFRI 17기)
△이창건(전기공학49-54)
◆1백13만원
△홍성욱(GLP 3기)
◆1백10만원
△김기섭(정치학69-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76)
△김지호(화학공학55-59)
△명동근(경제학45-52)
△박영원(지리학74졸)
△백 철(상학56-61)
△백낙운(독어독문56-60)
△변재용(토목공학75-81)
△원우현(행정학61-65)
△유종일(신대원72-74)
△유해덕(법학53-57)
△이경보(토목공학46-50)
△이두현(행대원74졸)

△이명훈(농경제학69-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이종팔(경영학76-80)
△전계묵(금속공학56-61)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최병호(화학교육57-61)
△최연균(중어중문67-71)
△허신행(농경제학62-66)
△홍성완(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87)
◆1백9천원
△최인갑(금속공학57-62)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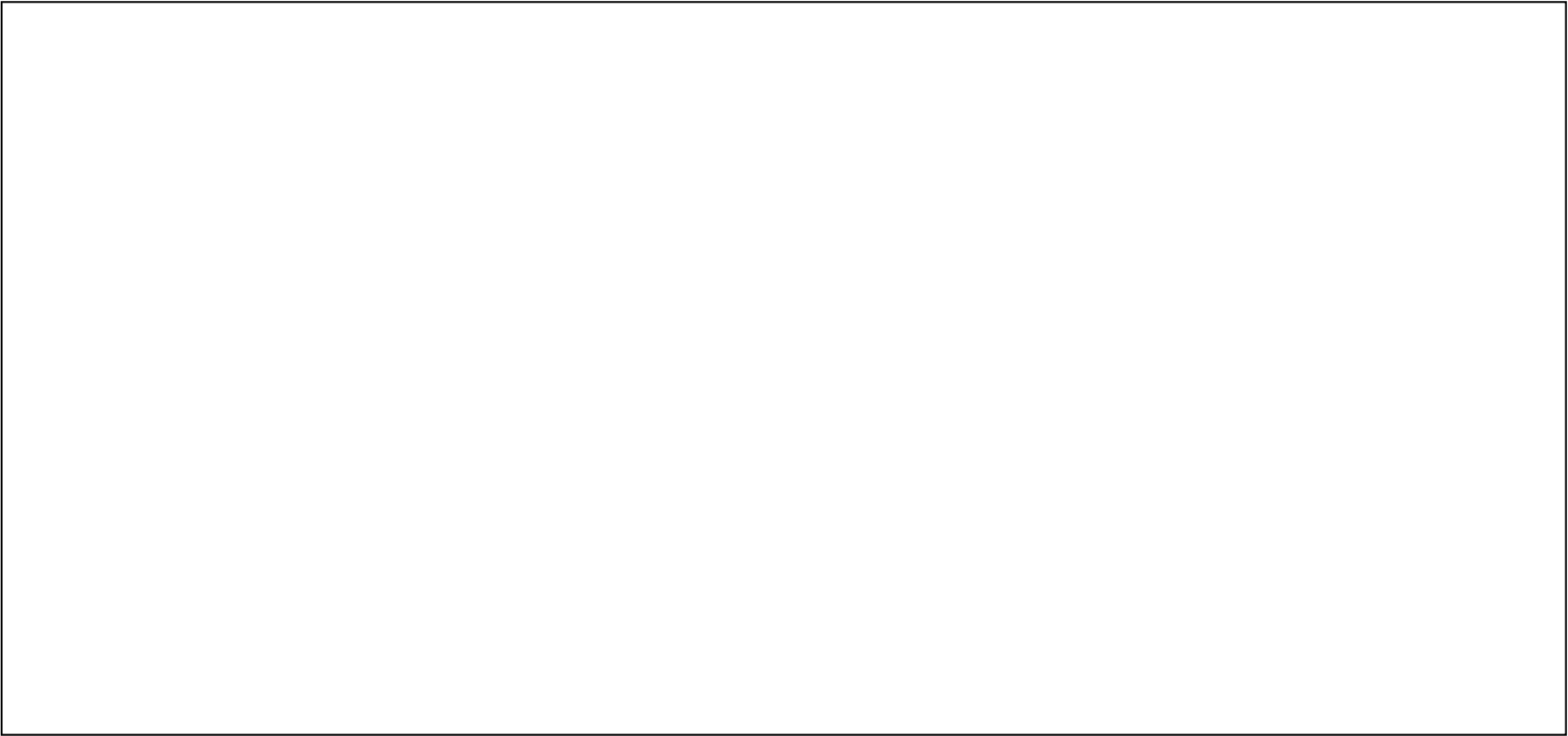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67)
△강규석(물리교육58-62)
△강덕수(GLP 8기)
△강성현(치의학69-75)
△강영복(상학51-55)
△강원일(행정학59-63)
△강정일(농경제학64-68)
△강종표(외교학76-83)
△강홍섭(화학공학59-63)
△고 건(정치학56-60)
△고광우(행정학53-58)
△고병우(경제학52-56)
△고의식(수의학56-60)
△고재선(섬유공학52졸)
△고호근(AMP 58기)
△구재철(의학78-84)
△권광중(법학61-65)
△권순철(전자공학83-85)
△권이혁(의학41-47)

△김교성(전기공학51-55)
△김국일(토목공학63-68)
△김규복(법학69-73)
△김규형(의학53-57)
△김기수(행정학47-51)
△김노수(섬유공학45-52)
△김달식(법학53-57)
△김덕영(토목공학45-47)
△김덕원(수의학50-54)
△김덕중(외교학71-75)
△김도언(행정학58-63)
△김동찬(생물교육51-55)
△김명자(화학62-66)
△김방연(상학52-56)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석건(농경제학50-55)
△김석기(행정학64-68)
△김석준(기계공학72-76)
△김승권(기계공학68-72)
△김연호(영어교육67-75)
△김영기(법학54-58)
△김영배(농공학78-85)
△김영수(경제학58-62)
△김영일(법학60-64)
△김영재(법학57-62)
△김용식(건축학70-74)
△김용운(치의학62-68)
△김용찬(농화학57-61)
△김우동(계산통계72-79)
△김유경(SPARC 2기)
△김윤재(상학54-58)
△김익모(AIP 23기)
△김인규(정치학69-73)
△김인중(법학56-60)
△김일환(천문기상64-72)
△김재락(법학78-82)
△김정일(금속공학58-64)
△김종국(농화학63-70)
△김종욱(경제학58-62)
△김주용(전기공학58-63)

△김준말(영어교육55-59)
△김중기(경제학54-58)
△김진우(의학54-58)
△김진호(법학57-61)
△김창국(법학56-60)
△김창순(경성여사범43입)
△김태현(제약학71-75)
△김태홍(화학교육71-79)
△김풍오(원자력공68-72)
△김학균(의학51-55)
△김현재(법학56-61)
△김형기(불어교육72-76)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55)
△김호룡(법학48-52)
△김홍종(수학74-78)
△김화중(간호학63-67)
△김환수(법학52-56)
△김효종(법학61-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의학67-71)
△노승행(법학58-63)
△류종묵(상학59-65)
△류철호(토목공학67-71)
△마인경(지리교육60졸)
△문광순(광산학60-64)
△문창국(정치학68-72)
△박국양(의학75-81)
△박석흥(불어불문63-67)
△박성숙(의학65-71)
△박성철(법학75-79)
△박순억(치의학66-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균(조선항공63-67)
△배인준(철학70-74)
△손두식(임학57-63)
△유진무(상학62-66)
△이국진(경영학77-81)
△장은식(치의학89-93)
◆60만원

△김승환(상학67-71)
△조양래(기계공학64졸)
◆50만원
△박태권(토목공학55-59)
△송임숙(생물교육55-59)
△지형준(의학53-57)
◆40만원
△서완수(농경제학58-64)
◆30만원
△김장연(공업화학76-80)
△김정희(간호학52-55)
△김호수(금속공학63-67)
△백태진(의학74-80)
△서완수(농경제학58-64)
△이광우(의학76졸)
△정성념(치의학86-90)
◆21만원
△신영준(생물교육81-88)
◆20만원
△이원복(광산학50-56)
△이종팔(치의학62-68)
◆10만원
△강신표(농경제학55-61)
△구장희(섬유공학59-65)
△김상주(영어영문62-66)
△김시연(디자인학00-05)
△김영규(정치학50졸)
△김용환(산업디자인85-92)
△서준호(경영학86-90)
△신대철(국악69-73)
△우상섭(상학53-57)
△이관교(경제학96-02)
△이상완(영어교육52졸)
△이정교(경제학99-06)
△이종용(법학61-65)
△이종진(행정학67-71)
△이태호(언론정보99-05)
△이형용(철학82-87)
△인만진(농화학81-85)
△인지종(농생물학54-60)
△임상순(독어교육60-64)
△정병관(교대원69졸)
△주원태(법학64-68)
△최윤종(국어교육57졸)
△추희엽(영어영문83-89)
△한준수(교육학76-80)

(이상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월 20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8년 11·1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8. 11. 20.~12. 16)·일반(08. 11. 20.~12. 15)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劉鐘海= 50만원
△부회장 裴命仁= 1백만원
△부회장 金宗鎬= 50만원
△부회장 鄭潤煥= 1백만원
△부회장 洪性大= 1백만원
△부회장 洪錫炫= 1백만원

상임이사

△金鳳九 미대동창회장= 20만원
△金光石 AMP동창회장= 20만원
△鄭喜鎔 AIP동창회장= 20만원
△林漳周 SPARC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국기호 경영79
△김균태 공대81 △김응진 의대39
△박달수 공대69 △박문진 자연73
△박순화 상대65 △박영준 경영81
△배재광 법대84 △오종훈 자연77
△이재성 공대87 △임승찬 치대68
△정우철 環院91 △조방호 경영86
△허 선 의대76

(일반) △권기윤 미대74
△김성민 사대72 △김수연 사대95
△김수환 사대77 △김영수 공대78
△김학무 공대78 △김혜숙 미대57
△김호일 FIP5 △박명하 공대62
△서화규 생활04 △송노현 치대91
△신대철 음대69 △신해성 공대92
△여동섭 미대98 △유문상 수의85

△유수연 자연99 △윤상현 자연98
△윤성욱 사회99 △이명진 공대01
△이은주 음대80 △이재연 생활74
△이충환 자연04 △임대윤 법대94
△전기숙 大院95 △정경진 사대04
△정민희 사회00 △정정희 사대62
△최현자 농대80 △팽동혁 공대01
△한민제 의대01 △황수연 공대81

이 사

◆인문대 △최찬실85
◆사회대 △강전석69 △김용태91
△손영준89 △신희창69 △이동관76
△이지수83 △전승철81
◆자연대 △김정기83 △민영철74
◆간호대 △김영숙56
◆경영대 △권기출72 △김성균82
△김용운83
◆공대 △김석준72 △김성도75
△김수홍69 △박광태80 △박재룡68
△박찬규59 △박희재79 △송재준66
△오창석52 △이상국80 △이시우65
△이유한82 △이종훈53 △이준의58
△전웅진64 △정두운64 △조규남72
△최상훈71 △황선근66
◆농대 △강창희66 △김대웅86
△송한용83 △우성봉79 △이병철59
△이종영70
◆문리대 △김춘자64 △김하진58
△김홍윤64 △남궁원61 △신건수71
△오종발68 △원용대48 △정만조65
△주강수64
◆미대 △김승욱82 △김춘옥64
△이학숙54 △한근석81
◆법대 △권일웅62 △김영훈54
△김재덕73 △김정보67 △김태성63

△이동춘59 △이상완64 △이성로64
△이영주58 △이인표54 △조용준79
△최거훈76 △최병국61
◆사대 △곽후섭52 △김병식70
△김선양53 △김찬균54 △김창선61
△김현미82 △박남기50 △서덕현69
△옥정석72 △조기호54 △최운식63
◆상대 △강문수67 △권태인46
△권희택56 △김승만59 △김진기67
△이계문70 △이순석58 △정 용61
◆수의대 △강부현72 △김기동78
△나종국54 △이충범65 △조영웅63
△황의경74
◆약대 △남승국70 △원용한78
△이강현75
◆음대 △김성배65
◆의대 △서동엽68 △신 실60
△이종구76 △최충신61
◆치대 △김상철73 △이상재75
△이석행58
◆대학원 △신종현91 △이재봉79
△정기성80 △지중수71
◆경대원 △양승현71
◆신대원 △안병찬75
◆행대원 △김성규70 △김영화68
△유금록80 △윤미량88
◆현대원 △석영철71 △조남건81
△황길연94
◆AMP △장동국43
◆AIP △박한창17 △이용수22
△이호재21 △정윤계31
◆ACAD △곽기영54 △박용호48
△정운기52
◆SGS △김성수2 △박영종5
◆APC △김철수6
◆AIC △박경숙8 △서희석16
△이재희9

◆AFB △강복순2 △김영철1
△윤희섭1
◆AMPFRI △김명구13 △김복희3
◆GLP △정용태9

일 반

◆인문대 △고경진00 △김범재84
△김성식84 △김수천75 △김의진97
△김정호90 △김진석77 △박중보97
△박혜윤94 △박희일91 △원종명99
△윤나경06 △이용두74 △이필환82
△조성무82 △최성기81 △최현욱02
◆사회대 △강경희72 △강은지02
△권일한97 △김난주03 △김미정03
△김용호75 △김종호91 △김현철83
△김혜진03 △박덕환72 △박성혁99
△박세미02 △박지환00 △백경원03
△송명달84 △송웅달89 △엄재규87
△오경수00 △오동석99 △오철수82
△이근태85 △이두식69 △이려주84
△이상웅98 △이영학82 △이정범99
△이종범74 △이종선87 △장경영92
△장민주01 △장태평70 △전병왕84
△차태서00 △최상훈98 △한상원87
◆자연대 △강경란88 △강동호00
△계정일88 △권지웅04 △김영수94
△김은하06 △김재연05 △김진규78
△김철구74 △김형권82 △김형준96
△김희웅83 △나병록73 △류승원02
△박종하03 △박택근89 △성하운74
△신영우99 △원재광91 △이 다87
△이 식85 △전남희98 △정동호03
△정민경00 △조봉환83 △최성섭76
△현민아02 △홍성금83
◆간호대 △곽선희99 △김순겸97
△김영신83 △김정옥87 △부경숙74

△서미란82 △이미정02 △이상미74
△이영선76 △이혜윤99 △이효원86
△지수연03 △채지혜01
◆경영대 △권용석02 △김기영72
△김희진77 △박상건85 △변은영05
△성기만84 △성태훈86 △신승철99
△이강욱82 △이용석85 △이정민04
△이호준95 △임성균77 △진성두99
△채훈기99 △하현봉82 △한재훈04
◆공대 △강금준02 △강정진89
△강춘식55 △강태호06 △고봉석67
△곽병근61 △곽병현67 △곽영명62
△권용재01 △권혁주74 △김건호64
△김경철00 △김경희69 △김계천53
△김두현72 △김문규63 △김병남73
△김성건01 △김세준94 △김수현74
△김수환69 △김승우00 △김영권01
△김영민71 △김영희55 △김원찬65
△김유희57 △김윤하01 △김인동80
△김재요94 △김종인99 △김종학74
△김주하01 △김철수70 △김춘수00
△김태현58 △김태형98 △김형기66
△김형태57 △김형호98 △문필규99
△박건중94 △박노희59 △박민혁01
△박봉철83 △박성일66 △박영춘62
△박원창70 △박원창70 △박재욱00
△박한희56 △배준일98 △백용현48
△변선호59 △변현철99 △서을상53
△석성봉55 △성준호04 △손호인74
△송대호64 △송희국55 △신봉수00
△신종섭79 △신현목45 △신현식50
△심정욱85 △안용수73 △안우희64
△안종찬69 △안지혜01 △안태영03
△양금식84 △여인선75 △오상철79
△우관식06 △우영돈96 △위정섭98
△유현준01 △윤봉환64 △윤영찬67
△이강우79 △이경선03 △이경현04
△이균상62 △이상경94 △이성기03
△이성재75 △이세열78 △이승무61
△이성호86 △이양성48 △이완희02
△이정태65 △이종근72 △이장섭70
△이춘성71 △이호원97 △임기엽70
△임무산69 △임상규96 △임정명58
△임정주67 △장근홍96 △장길희75
△장성호94 △장지훈03 △정병렬84
△정슬기04 △정은용46 △정진규73
△정태증48 △정해성89 △조경환69

△조장현⁸⁴ △조한모⁶¹ △조형준⁰⁰
△최원길⁷⁰ △최유환⁹⁵ △최준철⁷¹
△하재열⁹⁹ △한영철⁷⁴ △현재수⁷²
△홍성표³⁸ △홍승환⁷⁵ △황민균⁰⁵
△황인선⁰⁰ △황인준⁹⁵
◆농대 △강희종⁸⁹ △고석영⁹⁷
△김용규⁸³ △김교홍⁵² △김규식⁶⁸
△김기병⁸³ △김동수⁷⁴ △김동춘⁴⁴
△김명주⁸⁴ △김명진⁵⁶ △김무진⁶⁰
△김상순⁴⁶ △김영철⁵⁵ △김종호⁸⁴
△김진화⁸³ △김태우⁰³ △김한호⁷⁹
△김희창⁶¹ △박순흥⁸⁵ △박재욱⁵⁹
△박창서⁶³ △배정웅⁶⁴ △백상덕⁵⁹
△서정연⁸² △설성민⁹¹ △손동하⁸⁸
△손마리⁰⁶ △손영록⁷⁴ △송사일⁸⁰
△안병찬⁸¹ △안상근⁸¹ △안창조⁶³
△안호식⁰⁰ △예우영⁹⁹ △오흥석⁵⁰
△오희정⁵⁷ △우종원⁶⁶ △유영기⁸²
△유유상⁶⁸ △윤성준⁸⁸ △이광선⁵⁷
△이덕립⁵⁸ △이민정⁰³ △이상화⁷⁴
△이성주⁸³ △이영섭⁰⁶ △이원희⁷³
△이윤희⁶⁰ △이정환⁵⁸ △이재환⁸¹
△이종오⁹¹ △이종호⁵² △이춘녕³⁶
△이해수⁵⁹ △이형주⁸¹ △임병구⁶⁰
△장 용⁶² △장세영⁵⁷ △장우상⁶³
△정건성⁶³ △정경희⁰² △정진국⁶⁸
△정진훈⁸⁷ △정춘희⁵⁷ △조빈형⁵⁸
△조선희⁵⁴ △조일현⁸¹ △주봉철⁷⁸
△주항미⁰¹ △최영태⁶⁵ △최유지⁹⁷
△최윤용⁵⁸ △한휘석⁵⁷ △황영자⁵⁹
◆문리대 △강경식⁶⁰ △강길운⁴⁸
△강세원⁵⁶ △강영주⁶³ △고문종⁷⁰
△고상빈⁵⁰ △곽종흠⁶⁴ △김동욱⁶⁵
△김상철⁶² △김성수⁵⁴ △김영석⁶⁶
△김재욱⁵² △김종섭⁵¹ △김택술⁶⁰
△노명호⁷¹ △노대돈⁶⁷ △박옥순⁵⁹
△박응철⁵⁷ △박종렬⁶⁷ △박준택⁶⁸
△성낙현⁶⁹ △소광희⁵³ △안석주⁶¹
△안재현⁶⁷ △유광준⁷⁰ △이규호⁷²
△이상근⁵⁹ △이선숙⁶⁹ △이한국⁵¹
△임채호⁵⁸ △전광현⁵⁷ △조희곤⁷¹
△최 웅⁶⁹ △최상규⁶³ △최용영⁵⁸
△최인승⁵⁸ △최임순⁴⁹ △표재명⁵⁴
△한성건⁶⁹
◆미대 △강동환⁹⁹ △강재희⁸⁴
△강태성⁴⁹ △김기미⁸¹ △김용진⁷⁹
△김지열⁵⁶ △박동진⁸² △박연선⁹³
△우병탁⁷⁶ △유제국⁵⁷ △이성은⁶⁴
△장용주⁷⁹ △최충식⁸⁴ △한상희⁰⁴
◆법대 △가범현⁸² △강상진⁸⁷
△강정희⁸⁷ △고민정⁹⁸ △고연금⁸⁷
△권석진⁵⁶ △김기형⁵⁰ △김선종⁷⁴
△김성룡⁶⁰ △김성훈⁶² △김양일⁶¹
△김영선⁵⁵ △김준교⁸³ △김태희⁰²
△김학자⁸⁵ △김희태⁷⁴ △노병수⁸³
△문해성⁵⁸ △문호준⁹⁰ △박재원⁵⁵
△박주은⁴⁶ △박환승⁸³ △배영길⁶⁵
△배찬린⁵⁸ △서원경⁰¹ △신일규⁶⁹
△심연택⁷¹ △심우찬⁰¹ △안수경⁰²
△안장수⁵² △오동근⁸⁷ △오동일⁶⁴
△오성진⁸³ △오장희⁵⁶ △원의종⁵⁵
△유상렬⁶⁰ △유상순⁷⁶ △윤경식⁸¹
△윤두식⁵³ △윤정석⁵⁵ △이계성⁸¹
△이기석⁷⁶ △이석봉⁴⁹ △이성진⁹⁰
△이수철⁷² △이순기⁰³ △이승환⁵⁵
△이용규⁸⁸ △이춘식⁵² △이태일⁶¹
△임철목⁵⁵ △임한흠⁷³ △전완수⁸⁵
△전용학⁷³ △전창렬⁶¹ △정용상⁷⁴
△정진우⁴⁸ △정현국⁵⁶ △조기현⁵¹
△조병직⁴⁶ △조세연⁵³ △조승우⁹⁴
△조영목⁰² △조혜녕⁶¹ △진현섭⁹⁶

△차유경⁷³ △최병무⁵² △한영광⁶³
△한영수⁵⁸ △한찬식⁸⁶ △홍진태⁵¹
◆사대 △강민경⁰³ △강승호⁶⁷
△강신호⁵⁵ △권정순⁵⁹ △김 인⁷⁰
△김경모⁸¹ △김남일⁷⁵ △김미정⁸³
△김민관⁹⁵ △김삼욱⁸⁰ △김세영⁴⁶
△김예기⁵⁴ △김왕근⁷⁹ △김용석⁵⁴
△김윤미⁰² △김인숙⁵⁸ △김인숙⁹²
△김정인⁸⁵ △김종우⁵⁴ △김관금⁶⁴
△김필태⁸⁰ △나동진⁶⁶ △나병소⁶⁶
△노경주⁷⁸ △문정대⁵³ △민영업⁵⁵
△박기석⁶⁵ △박문수⁷⁴ △박문환⁸²
△박영덕⁴⁹ △박옥주⁵⁰ △배민정⁰³
△배성제⁸¹ △변승자⁹⁷ △서동엽⁸⁶
△설동균⁶⁸ △성백신⁴⁷ △송재식⁴⁹
△송혜진⁰⁴ △신태범⁰¹ △신통진⁰³
△신희정⁰² △심우엽⁷⁰ △안정훈⁹⁹
△여원혜⁶¹ △문기수⁷⁴ △유봉호⁴⁸
△유영선⁸⁶ △유효숙⁵¹ △윤혜경⁸⁶
△이계현⁷² △이규환⁴⁶ △이기정⁸⁴
△이대형⁷⁶ △이도영⁸² △이면우⁷⁸
△이병주⁵⁴ △이봉수⁷⁴ △이상구⁸⁴
△이성영⁸¹ △이영문⁷⁷ △이일철⁴⁸
△이창석⁹³ △이현주⁹⁰ △이환기⁸¹
△이환배⁵⁴ △장병기⁷¹ △전홍렬⁶⁷
△정근훈⁴⁹ △정덕영⁶² △정정권⁶⁷
△정진대⁷¹ △정희수⁴⁹ △조규태⁵¹
△차미란⁸¹ △최윤경⁸³ △최지순⁸³
△추병완⁸¹ △한장미⁰³ △한전욱⁷¹
△허 욱⁶⁹ △홍성열⁸⁴
◆상대 △강응선⁶⁷ △강화중⁶⁸
△김명용⁵⁹ △김병식⁶⁸ △김영태⁶²
△김용일⁶⁸ △김종남⁵⁹ △김철환⁵³
△김흥렬⁶³ △민병태⁵⁸ △박홍서⁴⁹
△배종규⁵⁷ △백운생⁶² △손태화⁵²
△신양우⁷⁰ △심항섭⁶⁵ △안홍지⁶¹
△연제성⁵⁶ △오준희⁵⁸ △유장희⁵⁹
△유춘식⁵¹ △이계훈⁵¹ △이종완⁶²
△이창희⁵⁵ △이호철⁵⁷ △전경진⁵⁵
△정기완⁵² △최창욱⁶⁸ △홍순호⁶²
△황상교⁵³
◆생활대 △강창자⁵⁷ △권덕윤⁸⁴
△김수미⁸³ △김윤정⁹³ △백선자⁶⁴
△서복선⁷⁴ △손하준⁷⁷ △송기철⁹⁵
△신소림⁸⁵ △이용호⁷⁸ △이창희⁰²
△조혜경⁷⁰ △황혜자⁶⁵
◆수의대 △강삼욱⁹⁰ △김민영⁵⁰
△노병의⁶¹ △박수원⁸³ △박승도⁶⁶
△방효범⁵⁵ △신광호⁶⁷ △유인광⁸¹
△이문성⁶⁰ △이인섭⁷¹ △이장락⁴⁵
△임인선⁵⁴ △조영선⁷⁸ △홍상희⁸²
◆약대 △김재기⁵² △김정희⁵⁷
△문경호⁷³ △문장기⁵² △박정희⁵¹
△반은미⁰² △백연희⁷⁶ △심관섭⁵²
△안삼문⁴⁹ △양은선⁰³ △오원정⁰⁵
△옥치완⁵⁵ △우제남⁶⁹ △우제안⁵⁷
△유용근⁵⁴ △이갑열⁵³ △이강추⁵⁴
△이나리⁰² △이대영⁹⁸ △이성태⁶⁰
△이재은⁵⁵ △장동필⁸⁶ △정기은⁸⁵
△최봉웅⁶⁸ △홍옥선⁵⁵
◆음대 △강평숙⁵⁴ △김민례⁶⁶
△김민식⁹⁹ △김완주⁸¹ △김혜리⁰⁴
△신용란⁷⁰ △안성준⁶⁵ △양귀애⁶⁹
△엄태현⁰⁴ △이상미⁸⁴ △이윤경⁰⁴
△이정화⁸⁹ △임미수⁷⁵ △장희순⁸⁹
△정미향⁸¹ △정은자⁸³ △정혜경⁹⁰
◆의대 △김남호⁷⁴ △김미진⁰³
△김상수⁸⁷ △김성구⁵⁸ △김한영⁸⁹
△남형근⁷⁶ △노 민⁸⁴ △노경운⁷⁹
△박명희⁶⁷ △박용일⁸⁰ △박이태⁷²
△박준규⁹⁹ △박철형⁹⁷ △박현승⁷⁷

△서동희⁸⁸ △신동주⁷⁸ △신찬수⁸¹
△안성준⁰⁰ △오익환⁸⁴ △이강훈⁷⁸
△이봉하⁴⁹ △이봉화⁵¹ △이상철⁷²
△이원기⁵⁶ △이재경⁸⁴ △이종주⁹⁸
△이종환⁹⁷ △이훈용⁷² △임대정⁹¹
△임영혁⁷⁸ △장성준⁰⁵ △정재욱⁰²
△조맹제⁶⁹ △최희목⁵¹ △추일한⁰⁴
△하재구⁵⁰ △홍순원⁴⁹
◆치대 △고영식⁶⁸ △고홍섭⁸²
△김경현⁸⁷ △김규순⁶⁸ △김병수⁸⁴
△김의배⁵² △김일영⁸⁶ △김정태⁶⁶
△김지현⁰⁵ △손동수⁵⁸ △송명욱⁸⁶
△신문혁⁶³ △안 박⁶⁰ △안진수⁰⁵
△양영태⁶⁴ △엄인웅⁷⁸ △윤경호⁵⁸
△이교인⁶⁵ △이대경⁸³ △이배진⁵⁹
△이병윤⁵¹ △이영애⁵⁸ △이종오⁷⁶
△이철규⁷⁸ △장삼욱⁷⁰ △정관희⁶¹
△정낙현⁴⁶ △정윤석⁷³ △정철표⁷⁴
△조 민⁸³ △조영진⁸² △최봉식⁷⁰
△한창수⁸⁷
◆대학원 △김 선⁰⁴ △김상복⁹⁸
△김현택⁸² △박준수⁸⁵ △박행모⁸⁴
△변달석⁹³ △손희중⁷⁷ △이규열⁸⁴
△이용욱⁷⁸ △장성모⁷⁹
◆국대원 △정한은⁰⁵
◆경대원 △김덕균⁶⁷ △유민철⁷¹
△이재호⁶⁸ △주정대⁹⁰
◆보대원 △김문서⁷² △문성환⁹⁵
△박남영⁵⁹ △송선대⁷⁰ △윤지선⁰⁴
△이경애⁰⁶ △이양재⁶¹ △이정식⁸¹
△임인수⁸⁴ △한순혁⁸⁹ △함기선⁶⁷

◆신대원 △이민희⁷³
◆행대원 △강태혁⁸⁴ △김현수⁸⁰
△조경규⁸⁷ △채희성⁷¹ △최재열⁶⁰
◆현대원 △박춘배⁷⁷ △유한종⁰²
△이광희⁸⁴ △이종규⁸⁴
◆AMP △곽덕근⁵⁴ △권석우¹⁵
△김규성⁴⁴ △김영인¹² △김준화¹⁸
△남재호⁶³ △노재천³ △문기곤⁵⁴
△박순관⁸ △신동호³³ △심계진³⁶
△안기욱¹⁶ △오승환⁶³ △왕기철⁴²
△우정욱³⁷ △유진광⁵⁸ △유한섭²³
△윤영호¹¹ △이병달²⁸ △이영호⁶⁴
△이장원⁶⁴ △이한중⁵⁶ △임도수²⁰
△정석재⁶¹ △정원민¹³ △조금제⁵³
△조용연²¹ △주영연⁹ △황철재⁶²
◆AIP △권영구¹⁹ △동월순⁸⁸
△박영기²⁹ △서정우²⁶ △이갑순⁹
△이명래¹⁹ △이영하³⁴ △이인자³¹
△이주연¹⁹ △장희천²⁰ △최배진¹⁵
△최정규²⁵ △황수천⁹
◆ACAD △김철규⁵⁹ △김춘식⁴¹
△박권섭⁵⁶ △박선만²⁵ △변승일⁶³
△성시철⁵⁵ △엄태항⁴⁷ △장호경²⁷
△정인원⁶⁵ △홍종광⁶⁵
◆ABP △김현운²⁰ △이재형¹⁷
△허 영¹⁴ △홍재문¹⁰
◆SGS △강태만⁴ △유금종³
◆APC △강대가⁴ △강영호⁶
△김종섭⁸ △박승갑⁹ △윤규한⁹
△황수경⁸
◆HPM △권영욱¹¹ △김성민¹²

△김용돈²¹ △김재중²² △문성호²¹
△민경부¹⁹ △유환고²² △윤민영²¹
△윤민상²² △이태선²¹ △지용광¹³
△최창욱¹⁴
◆AMPP △김형만⁸ △신석훈¹
△홍 근⁷
◆AIC △정재균²
◆AFB △황학주⁷
◆AMPFRI △문영철¹⁸ △임영애²²
◆ACPMF △임종식¹ △함천우³
◆FIP △이기준²
◆GLP △김병윤¹⁶ △김병철¹⁷
△김옥정¹⁰ △김종호¹⁷ △김형중¹⁷
△송원근¹⁵ △신준식¹⁵ △유충근¹⁷
△이성묵¹⁷ △이용문¹⁷ △임종호¹¹
△조순태⁵ △주성철¹⁷ △지종민¹⁷
△최정익¹⁶

◆ALP △왕이완⁴
◆SPARC △김해명¹³ △손태일¹³
△장재진²

분 담 금

◆상해지부 50만원

11·12월 계 : 97,350,000원
평생회비 : 27,600,000원
입 회 비 : 40,000원
총 계 : 1,356,060,482원



제4회 동문 골프대회 성황



단체전 法大 · 개인전 裴吉勳동문 우승

모교 발전기금 6천9백만원 모금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 렉스필드CC에서 제4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2백40명이 샷건방식으로 18홀씩 Mountain · Lake · Valley코스를 돌았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여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다.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모교는 앞으로 다가올 법인과 시대 등에 대비해 착실히 전략적 기반을 다져야 하며, 후배 재학생들도 자기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명성을 유지하고 세계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동문 모두가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께서 모교 사랑이 남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덕분에 모교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최근 모교는 창의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학문간 융합을 기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새로 설치하고, 모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교수 22명을 교육공무원법상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등 모교를 202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으

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 姜信浩대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을 움직이는게 힘들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선 많이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고 덕담했다.

발전위원회 尹鍾龍공동위원장은 “李長茂총장께서 2025년까지 모교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그 시기를 좀더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엔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다함께 모교가 초일류대학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건배제의를 했다.

朴榮敏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함께 2백27타를 기록한 법과대학동창회팀이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다.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치과대학동창회팀은 1타차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남자 친선팀에서 愼平宰(경제57-61)동문, 여자 친선팀에서 南姬先(사법85-89)동문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73타를 기록한 河光龍(법학76-80)동문과 82타를 친 李吉女(의학51-57)동문이 남녀 메달리스트에 선정됐다.

남녀 롱게스트에 2백98야드를 친 李丞淵(사법83-87)동문과 2백20야드를 기록한 權富玉(HPM 1기)동문이 선정됐다.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1.6m를 기록한 黃菊鉉(FIP 4

기)동문, 여자 니어리스트상은 朴賢愛(간호76-80)동문이 차지했다.

남녀 감투상은 裴容徹(AIC 20기)동문과 金貞子(치의학 59-65)동문, 행운상은 朴熙伯(의학51-57)동문에게 돌아갔다. 또 崔首賢(AIC 9기)동문이 Valley 8번홀에서 롱게스트로 선정돼 한국캘러웨이골프에서 협찬한 레가시 드라이버를 받았다.

이날 Mountain 7번홀과 Lake 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프라이모터스에서 부상으로 승용차 렉서스(IS250) 1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행운의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다.

경품추첨에서 삼익약기 金鍾燮(사회사업66-70)회장이 제공한 디지털피아노는 朴熙俊(정치65-70)동문이 당첨됐으나 본회에 기증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건강 검진권, 디지털 카메라, 압력밥솥 및 다기능조리기, 스팀청소기, 골프용품, 호텔 식사권, 버섯선물SET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테마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모교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와 한국캘러웨이골프 모자 그리고 즉석 기념사진 등을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했다.

한편 본회는 이날 대회에서 모금한 6천9백만원을 모교 발전기금에 전달하기로 했다.

단체전 法大 · 개인전 裴吉勳동문 우승

각 부문 별 수상자
▲대표팀 단체전 △우승 :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82-66) · 河光龍(법학76-80) · 金次東(법학80-84) · 朴贊烘(법학80-84)동문. △준우승 : 치과대학동창회 羅炳宣(치의학69-76) · 姜泰聲(치의학71-77) · 鄭炯泰(치의학74-80) · 林鍾昊(치의학82-88)동문. △3위 :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 崔首賢(AC 9) · 丁光榮(AC 18기) · 李萬炯(AC 19기) · 李雲學(AC 22기)동문.
▲대표팀 개인전 △우승 : 裴吉勳(철학65-70) △2위 : 林鍾昊(치의학82-88) △3위 : 黃鍾甲(AMP56기) △4위 : 朴珍吳(체육교육88-06) △5위 : 崔首賢(AC 9기)동문.
▲남자 친선팀 △우승 : 愼平宰(경제57-61) △2위 : 河權益(의학57-63) △3위 : 吳忠基(AMP 52기) △4위 : 申重九(FP 4기) △5위 : 鄭求忠(건축68-72)동문.
▲여자 친선팀 △우승 : 南始先(사법65-69) △2위 : 徐桂淑(기약66-60) △3위 : 朴賢愛(간호76-80) △4위 : 權富玉(HPM 1기) △5위 : 朴誠愛(간호66-70)동문.



대표팀 단체전 우승 법과대학동창회



대표팀 개인우승, 裴吉勳(右)동문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기계공학48-52)분회 회장 : 일금 5백만원 · 徐廷和(법학51-55)분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李吉女(의학51-57)분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孫京植(법학57-61)분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申榮均(치의학48-55)신영예술문화재단 이사장 : 일금 4백만원 · 趙南煜(법학53-57)삼부토건 회장 : 일금 4백만원 · 洪性大(수학57-63)분회 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 일금 4백만원 · 金鮮東(화학공학59-63)미래국제재단 이사장 : 일금 4백만원 · 李海遠(행정51-55)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朴熙伯(의학51-57)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崔斗衡(행정51-55)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竣鎔(경제56-6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讚淑(치의학56-6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孔大植(기계공학56-6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徐桂淑(기약56-60)음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河權益(의학57-63)의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朴柱仙(영어교육60-64)사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一燮(경영64-69)관악회 감사 : 일금 2백만원 · 金夏中(중문65-69)통일부 장관 : 일금 2백만원 · 洪禮杓(치의학65-71)치대 · 치의학대학원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柳 津(영문78-83)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鄭八道(AIP 1기)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辛東烈(GLP 3기)GLP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姜德壽(GLP 8기)STX그룹 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載厚(법학58-62)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일금 1백만원 · 姜信浩(의학46-52)분회 고문 : 블랙빈테라티 음료수 3백개 · 李金器(약학55-59)분회 부회장 : 아로나민 골드 · 씨플러스SET 2백40개 · 孫吉丞(상학59-63)분회 부회장 : 워커히호텔 외식상품권 10매 · 辛鉉雄(지리64-68)분회 부회장 : 웅진 스팀청소기 3대 · 李潤雨(전자공학65-69)삼성전자 총괄부회장 : 삼성 디지털 카메라 10대 · 金鍾燮(사회사업66-70)분회 부회장 : 삼익악기 디지털피아노 1대 · 尹錫金(AMP 27기)웅진그룹 회장 : 웅진쿠첸 압력밥솥 · 다기능조리기 각각 5개 · 金有煥(AMP 54기)한미스포츠 대표 : 골프공 50타스 · 姜普英(HPM 1기)HPM동창회장 : 안동병원 건강 검진권 4매 · 梁正武(GLP 15기)아이랜스필드 회장 : 아이언 5개 · 金明道(FIP 3기)FIP동창회장 : 버섯선물SET 10개 · 咸光鮮(FIP 5기)유니온정보시스템 대표 : 드라이버 1개 · 모교 발전기금 : 티셔츠 2백40개 · 드라이버 1개 · 한국캘러웨이골프 : 모자 2백40개 · 드라이버 1개 · YES 골프(주) : 골프백SET 1개?골프백 2개?보스턴백 4개 · 모자 2백개



대표팀 단체전 준우승 치과대학동창회



여자 메달리스트 李吉女(右)동문

제4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친선팀 남자우승 愼平幸(左)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南娟先(右)동문



朴熙俊(左)동문 디지털 피아노 당첨



남자 메달리스트 河光龍(左)동문



남자 롱게스트 李丞淵(左)동문



여자 롱게스트 權富玉(左)동문



남자 니어리스트 黃菊鉉(左)동문



여자 니어리스트 朴賢愛(右)동문

■ 이야기 골프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기사제공 : 골프저널〉

미국으로 건너간 지 30년. 그리고 프로 골프를 목표로 2년간 몰입한 골프. 부상으로 다양한 골프테크닉을 체득하고 연구한 임경 프로. 직접 체험에서 얻은 골프를 이야기 식으로 풀어가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임박사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그의 글을 보면 골프에서 왜 그런지 몰랐던 것을 석연하게 풀어가는 만큼 이 글이 아마추어는 물론 프로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 편집자 주

골프가 힘든 까닭

골프라는 운동은 다른 운동과 같이 팀워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싸움에서 이겨내면 되는 운동인데 왜 이리 힘이 들까? 스윙에 있어서는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아이언, 숏 어프로치, 퍼팅까지 14개 클럽 모두를 다 고루 잘 다뤄야 한다. 초보자의 경우 그날 드라이버 하나만 잘 맞으면 만족한다. 하지만 그다음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언 그다음에는 어프로치, 퍼팅까지 마지막으로 스코어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시로 변하는 몸 컨디션에 따라 14개 클럽을 모두 다르게 적응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스윙 모두를 교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치는 골퍼 뿐 만아니라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골퍼를 만났을 때에는 그날 골프를 망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자신의 골프를 성장시킬 자극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원수를 고마워하는 골퍼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라

자신감이 없는 샷은 우선 스윙 폼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신감 없는 스윙 폼의 대명사 헤드업(head up)은 가장 기본적인 스윙동작으로 자신의 스윙이 자신이 없을 시에는 빠른 헤드업으로 평상시보다 빠르게 고개를 들기 때문에 스윙이 무너진다. 거기에서 평상시 정상적인 강도의 스윙이 아닌 빠르고 느린 스윙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직된 근육에서 스윙이 만들어지면 스윙의 미스가 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은 골퍼일수록 경험이 적은 골퍼보다는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허나 자기의 스윙을 할 때는 여차피 감정의 동물인 인간인 이상 애기치 못한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되면 스윙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러할 때에는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느냐는 각자의 좋은 생각을 만들어 봄직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서 티잉그라운드 내에서의 예절, 그린 내에서의 예절의 기본을 뛰어넘어 자기가 퍼팅하는 동안 아예 퍼팅그린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골퍼가 있다. 남들 다하는 그런 기본예의를 넘어서 지나친 예의를 요구하는 골퍼는 상대방 골퍼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다준다.

기본적인 예의를 넘어서 과잉 방어적 골프의 예의를 상대방에게 주문하면 그 당시에는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계속하다보면 습관이 버릇이 되어서, 그러한 과잉 방어적 골프의 예의를 상대방들에게 원하지 않고는 칠 수가 없게 되고 상대방에게 기본이상의 부담감을 주게 된다.

골프에서의 조건은 이러한 예의 말고도 더 중요한 스윙조건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기본적인 예의 말고는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자신만의 또 다른 집중력으로 게임에 몰두 해야겠다. 라운드에서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는 예의는 삼가도록 한다.

자신이 정상 체형의 골퍼가 아니라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라

처음 골프를 시작하고 6개월까지는 거의 모든 골퍼가 정석적인 골프, 즉

골퍼가 하는 스윙은 몇 년 또는 10년 이 넘게 같고 닮은 스윙이다 이러한 스윙을 젊고 하체가 좋은 골퍼가 습득 하기란 몇 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같이 스윙 습득에 있어서 자신의 체형에 맞는 어떤 스윙을 배워야할지는 처음 골프채를 잡고 어느 정도 습득 기간을 걸쳐 선택이 되는데 대체로 나이별, 상·하체의 근육발달, 키의 크고 작고로 나뉘진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체형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석 스윙 틀에서 벗어남이 현명하다.

골퍼의 부상은 도약의 기회

프로 선수 중에는 부상을 딛고 일어나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는 부상을 당해서 체력이 더 좋아져서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렇게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스윙연습을 통해서 얻은 또 다른 스윙에서의 자신감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초보자 단계의 골퍼의 부상은 대체로 스윙을 빨리 못해주어서 당하는 상체의 부상이 대부분이고, 초보자 단계를 넘어선 골퍼의 부상은 대체로 무리한 하체 힘으로 인한 하체의 부



날아가는 새의 거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감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를 쉽게 얻을 수도 있는 운동인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나 보다.

원수를 고마워하라

사람의 기억력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기억에 남고 자극적이다. 그러한 기억력에 자극적으로 남은 기억들이 후에 자신의 스윙을 바꾸고 만들어 주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기억 속에 언제나 공이 잘 맞아 나간다면 스윙을 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스윙방법도 바꿀 필요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라운드 할 때 다른 골퍼에게 망신을 당했거나, 인상적인 스윙방법이 기억에 남았다고 할 때에 틀림없이 연습 중에 따라 해보거나 스윙을 만드는데 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골프는 항상 자신보다 잘 하는 골퍼와 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꼭 자신보다 공을 잘

그렇지 않고 실수한 스윙에서부터 거듭되는 다음 스윙에 있어서까지 계속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면 그러한 스윙의 계속은 게임을 포기하는 결과로 까지 간다. 많은 스윙의 연습과 좋은 자기 자신의 스윙이 자신의 능력에 믿는 스윙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라운드리면 스윙에 있어서 생명력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윙을 한다.

자신이 없는 골퍼일수록 까다롭다

한동안은 세계랭킹 1위인 타이거 우드로도 샷 하는 도중 사방에서 찍어대는 카메라 불빛 때문에 자신의 샷에 지장이 된다고 문제 삼을 때도 있었으니 꼭 까다로운 골퍼가 자신이 없어서만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성격이 간간한 할 경우와 자신이 없는 골퍼일수록 조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골퍼 중에는 드라이버 샷에

골프의 기본 틀에서 스윙을 시작하고 배워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골퍼의 체형과 남녀노소 각자의 몸 체형에 따라 스윙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이가 20대 초반의 골퍼라면 6개월이 아니라 1년, 10년이라도 정상 틀을 벗어날 필요가 거의 없다. 그러나 40대가 넘어서 시작하는 골퍼의 경우에는 체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노화현상으로 인해 기본 틀을 벗어나 변화된 자신의 체형에 맞게 스윙방법을 달리해야 한다.숙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윙방법을 찾아서 연습해야 한다.

자신의 체형이나 나이를 무시하고 골프 정석스윙의 틀을 고집한다면 몸의 무리도 가고 골프가 발전이 없다.

반대로 젊은 20대 초반의 골퍼나, 하체가 좋은 골퍼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골프의 정석 스윙방법을 무시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경륜이 있는 수준급 골퍼의 스윙방법을 고집하면 스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수준급

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하체 부상은 다친 몸의 부상에 무리만 가지 않게 연습할 수 있으면 자신의 스윙에서 빠르고 느린 스윙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으로서 자신의 스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운동에 있어 전문 지식일지 모르겠으나 하체의 부상의 경우, 왼쪽다리는 힘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 주므로 왼쪽 다리를 다친 경우 힘을 지속해줄 수 없어 하체 힘이 떨어짐을 염두에 두고 오른쪽 다리를 다친 경우는 힘을 넣어주는 힘의 부족으로 이어지는데 좀 더 많은 하체의 open을 요구한다.

이런 모두의 부상을 계산해서 스윙에 임하면 어느 정도의 부상으로는 스윙에 임할 수가 있고 부상을 회복하고 난 뒤의 스윙은 도약의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면 계속〉

〈6면 이어서〉

걷는 골퍼와 차를 타면서 하는 골퍼

프로게임에서는 항상 캐디가 가방을 들고 선수는 걸어가면서 게임을 하지만, 아마추어들의 게임은 걷고 싶으면 걸어가고 차를 타고하고 싶으면 차를 타고 플레이한다.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맞게 골퍼를 하다보면 어떤 골퍼는 차를 타고하면 잘 치다가도 걸어가면서 공을 치면 못치고, 어떤 골퍼는 걸어 다니면서 하면 공을 잘 치다가도 차를 타면 게임을 못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자의 체력 차이에서 오는 현상으로, 대체로 하체가 강한 골퍼의 경우가 걸어가면서 하는 플레이에 좋은 결과를 낸다.

차를 타고 플레이 할 때 몸이 풀려 나갈 때에는 아무래도 몸이 풀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평상시 3홀이면 몸이 풀리는 게 9홀을 돌고서야 풀려나가고, 그것도 경기가 더디게 풀려나가면 경기가 끝날 무렵에야 자기 스윙실력이 나올 때가 있다.

반대로 체력이 떨어 질 때에는 차를 타고하면 온종일 자기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 하면서 베스트 샷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봄·겨울 체력이 붙어 나갈 때에는 걸어가면서 치면 잘 맞다 가도, 여름·가을·체력이 떨어 질 때에는 걸어가는 것보다도 차를 타고 하는 경우 잘 맞아 나가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퍼를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마추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골프카를 타고, 안타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추어 공을 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처음 골프채를 잡고 1년 전후로 골프채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자신의 스윙문제보다 골프채가 자신의 몸에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내 경우에도 예외도 아니어서 1년이 채 안되어서 이채 저채 바꾸었던 망설임의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스윙이 잡혀 가고 부

터는 그러한 연장 탓은 수구려 진다.

이러한 연장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스윙이 잡혀 있지 않는 스윙을 어렵게 치는 경우가 많아서 공 못 치는 이들 중에는 고가의 골프채를 안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다.

골프채는 크게 가볍고 무거운 채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아이언클럽을 기준으로 할 때 가벼운 채의 경우를 보면 샤프트는 카본대가 대부분이고 무거운 채의 경우에는 샤프트가 스틸이다. 이러한 샤프트는 스피드를 빠르고 느리게 만들어주면서 가벼운 채는 하체가 약한 사람, 무거운 채는 하체가 강한 사람이 사용하면 적합하다.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샤프트보다는 클럽헤드 자체가 무겁고, 가벼운 채로 만들어진다. 무거운 채는 하체가 강한 골퍼가, 가벼운 채는 하체가 약한 골퍼가 사용하면 된다. 실은 요즘 나오는 골프채가 가볍고 크게 만들어져 나오고 조금씩은 골프브랜드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앞서 얘기한 가볍고, 무거운 채의 기본적 상식 하나만으로도 클럽선택이 가능하다. 골프채 보다는 본인 자신의 스윙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몸의 변화에 따른 스윙변화가 골프채의 차이에서 오는 것보다도 더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스윙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좋은 골퍼는 아무 채나 잡고도 금세 적응이 된다. 아무 채나 아무 붓이나 명필이 붓을 안 가리듯 명 골퍼는 채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비거리를 내는 요소

힘의 강도로서는 우선 세계 때려야 비거리가 나간다. 다음으로 세계 때린 스윙에 체중이 따라가야 하는데 그 같이 체중이 따라주는 스윙에서의 어드레스 자세가 골프스윙에서의 기본 자세이다. 무릎을 약간 구부린 고양이 자세가 쥐새끼를 잡아먹는 자세가 그러하고 복싱선수의 약간 구부린 무릎자세가 공격적인 자세의 하체 힘을 살리는 좋은 골프스윙에서의 기본 어드레스 자세이다. 궁둥이는 말탄 자세나

오리 궁둥이가 하체 힘을 실어 주는 골프 기본자세이다. 이와 같은 자세에서 좀 더 빠른 체중이동이 비거리를 더 낼 수 있는데 모든 골퍼가 체중이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하체 힘이 너무 강해서 체중을 빼야 하는 골퍼의 경우도 있으므로 체중이동에 관해서는 각자 골퍼의 체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하체 밸런스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스윙에서의 기본자세는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며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발휘해 비거리를 내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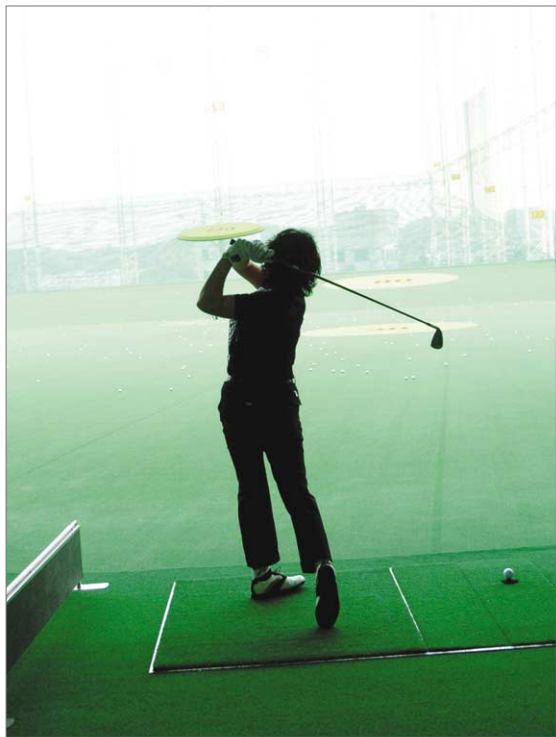
미래의 한국형 골퍼

골프라는 운동의 시작은 서양에서 시작됐고 그 골프 스윙은 서양인들의 체형에 맞게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골퍼가 동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는 의문이 생긴다.

운동에서도 동양인이 유리한 운동스타일이 있고 서양인이 유리한 운동스타일이 있다. 그 같은 예로는 올림픽 금메달을 최초로 딴 레슬링에서의 그레고로만형과 자유형에서의 체형은 다르다. 키 크고 하체가 강한 서양인이 유리한 자유형이 있고 발달된 상체 힘을 가진 동양인에게 유리한 그레고로만형이 있다.

이렇듯 같은 레슬링 종목에서도 동, 서양의 유리한 체형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밖에도 심리적 성격 또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매사 느긋한 성격의 서양인과 급한 성격과 악착스러운 동양인의 노력이 만들어지는 골프스윙의 결과는 동, 서양의 골프스윙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 단 이 모든 체형이 모든 골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의 스윙은 강한 하체의 빠른 스윙으로 스윙이 만들어짐으로서 동, 서양의 골프스윙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다. 20대 이후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하체 힘과 악착스러운 동양인의 노력으로 스윙은 서양인들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듯 동, 서양의 다른 체형과 다른 성격차이가 나는데도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골프 스윙은 하체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스윙의 중요성이 결여된 것이 사실이다.

하체의 중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스윙은 빠른 스윙의 체중이동을 말함고 같다. 이러한 하체 중심의 스윙은 어느 정도 기량이 갖추어져 있고, 나이가 들고, 상체가 강한 골퍼에게서 나오는 스윙이다.

이러한 하체 힘에 의한 스윙은 하체가 약한 골퍼의 경우에는 필수이지만, 하체가 강한 골퍼의 경우에도 가능해져서 체중을 역으로 빼주거나 또 다른 빠른 스윙방법을 해주면서 체중이동을 해줌으로서 헤드업을 안 해주는 안정된 좋은 스윙방법으로 스윙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하체중심의 몸으로 하는 스윙 만들기는 그 사용도가 하체가 좋던 나쁘던 어느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한국형 스윙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다.

■ Q&A 폭발적인 모래의 힘

그린주변 벙커 샷

Q 그린의 벙커 샷은, 클럽 페이스에 공이 맞고 그린에 볼이 떨어져야 하나? 아니면 페이스에 맞지 않고, 모래가 폭발하는 힘에 의해서만 그린에 올라야 하는가?

동영상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모래의 폭발적인 힘’이란 표현을 하는 프로들이 있다. 상황은 페이스에 맞는 공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가까운 거리는 분명히 모래 폭발의 힘에 의지해야하지만, 그 결과가 페이스에 공이 맞건 안 맞건,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면 되나? 내 생각에는 공이 페이스에 맞게되면, 안 맞는 것 보다는 컵을 겨냥한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듯하다. 또한 그린 주변에서의 벙커 샷이 모래만 퍼내는 것이며 공이 직

접 맞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TV 방영 중에 경기 해설자가 “스핀이 너무 많이 걸렸거나, 적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A 프로들이 일반 아마추어골퍼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론은 겸비하고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론을 장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어렵게 한다면 결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서 모래의 폭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설명하기 위한 가장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벙커샷은 일반 샷과는 달리 볼이 직접 맞지 않으며 볼보다 모래에 먼저 클럽(샌드웨이)이 닿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나타나는 실수가 볼을 직접

때려 볼이 생각보다 너무 멀리 나가게 되는 경우가거나 볼의 뒤를 살짝 때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프로들은 모래를 폭발시켜 샷을 하라고 표현하고는 한다. 질문자의 말처럼 모래만을 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볼이 맞기 전에 모래에 힘을 가하는 것일 뿐 클럽페이스에 볼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웨지의 로프트에 의해 스핀이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에 모래만 쳐낸다면 스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클럽의 로프트에 의해 임팩트시 볼과 접촉하기 전 모래가 있더라도 스핀은 발생하게 된다.

단지 프로들이 쉽게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느낌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본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 특별한 골프

형님들의 내기골프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는 시기를 적절히 알려주는 봄비가 내렸다. 사실 약간은 춥지만 필드에서 올라오는 풋풋한 향기가 코를 맑게 해줬고 많은 양의 비는 아니지만 꾸준히 내린 비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날이었다. 현재 인생에 골프가 전부인 나는 파주 J퍼블릭이라는 난이도가 높은 신설 골프장에서 프로를 꿈꾸며 현재 남자캐디로, 근무 중에 일어난 골프와 캐디역사에 제발 좀 잊고싶은 에피소드 하나를 전하려고 한다.

그때는 2008년 3월 비가 무수히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백을 받고 1번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나가 고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비가 오는 날이라 수중골프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온 고객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고객님들의 인기척을 느낀 나는 해맑은 미소로 인사를 하고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앗, 아니, 이분들은...” 그랬다.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시는 형님들이란 걸 한눈에 알아봤다. 남자 5명에서 3시간 동안 즐거운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를 보니 위박에 말이 없으신 형님들인 거 같아 부담이 무척 들었다.

대충 겪어본 짬밥으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형님의(플만이) ‘엑기스’, 작은 형님의(플만이) ‘용독이’로 불리는 손님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준비가 다 끝나고 불길이 될 거 같은 무게감도 잠시, 티샷을 먼저 하시는 큰 형님부터 줄줄이 해저드에 볼을 기부하시고 OB보내시는 것이었다.

그냥 별 내기 없이, 또 말 없이, 주룩주룩 빗소리만 들리고 이분들은 샷을 하실 때마다 산을 타고 다니셨다. 흔히 무게 있는 ‘비기너’라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홀, 한 홀 지나면서 어렵사리 ‘엑기스’, ‘용독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조금 대화를 나누게 됐다.

역시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이 더

볼 보기 정도 하면 자연스럽게 더블파를 나란히 가지고 가는 우울한 운명을 가진 분들이라 조금은 안타까웠다. 사실 보면 수준은 다 비슷하신 거 같았다. 이렇게 빗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 5번홀 그린에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되고 말았다.

줄곧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은 더블보기 수준을 꾸준히 지키시다 작은 형님이 5번홀 그린에서 투 온에 투 퍼트를 해 파를 잡게됐다. 난 오늘 처음으로 나온 파라 감격에 힘입어 “나이스 파!”라고 크게 외쳤다. 현대어째 이상했습니다. 조용한 필드..., 빗소리만 내리는 그 곳에서 제가 잘 못한 걸까요?

작은 형님은 어깨를 으쓱하고 용독이는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순간 줄곧 말이 없으셨던 큰 형님의 표정이 굳어진걸 보게 됐다. 자존심이 상한 큰 형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다. “아그들아, 비도 오고 이제 한 홀 남았는데 우리 내기나 한번하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그렇더라 1홀 남았는데 1인당 25만원씩, 즉 이번 홀 스코어가 가장 좋은 사람이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게 되는 게임이었다. 사실 스킨스 게임치고는 막대한 돈이 아닌가..., 작은 형님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아따, 형님이 하자면 해야지유?남자가 이까짓 거에 찢찢매겠습니까, 하, 하, 하...” 결국 엑기스와 용독이도 게임 선택에 여지없이 해야만 했는데 의외로 두 명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던가, 이것은 순전히 오기며 자존심이라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기라면 근성이 강하고 극성맞기는 하지만 여기 계신 형님내기는 오히려 억지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다. 뭐 어찌됐든 어둠의 강호들 명승부가 펼쳐질 순간이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6홀, 파4에 333m 미들홀로 J퍼블릭에서 핸디캡인 6번홀로 페어웨이 좌측이 해저드고, 우

측은 산지림에 가려져 안보이지만 벙커가 있고 생각보다 우측 페어웨이가 넓은 난이도가 높은 슬라이스 홀이다. 진행은 시작됐고 엑기스와 용독이는 결국 나란히 해저드에 볼을 기부하는 바람에 해저드티를 이용하게 됐고 큰형님의 샷이 보여질 차례였다.

강한 스윙과 함께 “띠~~~~잉~~~~”하는 특유에 헤드소리가 나는 멋진 드라이브 샷이 나왔다. 약간은 슬라이스가 있었지만 관촬을 거 같다고 말씀드렸다. 네 번째로 이에 질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작은 형님도 강한 스윙과 함께 멋진 샷이 나왔다. 작은 형님도 약간은 슬라이스가 있었기에 “먼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엑기스와 용독이에게 아이언을 전달해주고 뛰어서 볼이 날아간 곳으로 가게 됐다.

가서 확인해보니 벙커에 큰 형님 볼이 있었고 벙커턱에(자리 좋은) 작은 형님 볼이 있었다. 그런데 무서운 살기가 내 등 뒤로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뒤를 돌아보니 나를 향해 눈에 힘 딱 주고 달려오시는 큰 형님이 아니던가. 전후반 내내 말없이 걸던 분이 왜 ~뛰어오시나..., 아님 나를 위해 빨리 진행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엑기스와 용독이는 해저드터에서 거리를 재느라 정신이 없었고 작은 형님은 업무가 있으신지 천천히 전화를 받으며 걸어오셨다. 근데 순간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동반자들과 작은 형님이 안보고 있는 걸 눈치 채고 큰형님은 벙커턱에 있는(자리 좋은)작은 형님의 볼을 ‘꾸~욱’하고 밟는 것이 아닌가.

비가 꾸준히 내리는 날이라 벙커턱에 있는 볼이 잔디가 축축한 터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결국엔 페어웨이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는 큰 형님의 눈빛...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캐디야, 너의 눈엔 벙커 속에 있

는 볼 하나만 본겨...”

아... 정말 난감했다. 자칫하다간 캐디인 내가 막창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엔 난 지긋이 눈을 감아야만 했다. 뒤늦게 온 작은 형님은 매우 당황한 듯 “어라, 나의 볼이 거리가 덜 났을텐데..., 야, 캐디야, 분명 어딘가에 박혀있을 것이여. 벙커 파서라도 찾아내.”라는 소리에 나는 결국 나오지도 않을 벙커만 파고 있었다.

큰형님은 “야, 막창이여. 어서가자 ~비 온다.”라는 말을 남긴 채 멋지게 벙커샷을 해 30m지점에 잘 떨어졌었지요. 순간 나는 로스트볼로 처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형님을 바라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볼이 없다는 걸 확인한 작은 형님은 큰 형님이 벙커샷을 할 때 주머니에서 알(?)을 하나 꺼고 말했다. 그것도 캐디인 저의 뒤통치에 떨어뜨렸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작은 형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작은 형님은 뜨거운 눈빛을 보내며 큰 형님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아따, 캐디형아, 발 뒤에 있구마잉..., 어쩐지 안보이더라. 여기가 몇미터고?”

당황한 표정에 경악을 금치 못한 나는 이것 또한 자칫하다간 캐디인 내가 막창 날거라는 생각이 물씬 느껴졌다. 이 얘기를 들은 큰 형님도 당황한 눈빛으로 작은 형님과 저를 번갈아 보니 저로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상황에 저는 알(?)간 자리를 보며 미터를 말하게 됐고 난 또 다시 눈을 지긋이 감고 말했다. 아니, 이건 무슨 코미디 시트콤도 아니고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었다.

결국 작은 형님은 투 온을 시켜 아깝지만 ‘제주도 온’이라 보기라는 엄청난(?) 점수가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큰 형님도 혼심에 힘을 냈지만 쓰러 온 투 퍼트로 아쉽게 동타가 되고 말았다. 이건 또 웬일인가?

〈11면 계속〉



〈10면 이어서〉
전세 역전인 된 것이었다. 엑기스와 용득이의 명승부, 큰 형님과 작은 형님의 자존심 대결이라 볼 수 있었다. 물론 큰 형님도 쓸쓸할 테고 작은 형님도 찢찢할 텐데 앓싸리 못 먹을 바에 내 톨만이(엑기스)(용득이)가 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분 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엑기스 해저드 티에서 샷을 한 볼이 어처구니없게도 찾지도 못할 먼 산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기회는 용득이에게 찾아왔고 전후반 통 털어 보기한번 못한 실력이라 형님들은 기대 반 포기 반 심정인 거 같았다. 그런데 용득이가 샷 한 볼이 그린 중앙에 잘 떨어진 것이었다. 의외에 샷이 나왔고 형님들은 쓰리 온으로 혹시 모를 윈 퍼트로 파를 잡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표정이 역력했다.
볼의 위치에서 홀까지의 거리가 약 4m정도가 됐고, 사실 캐디인 내가 쳐도 들어가기 힘든 거리였다. 볼과 전에 있었던 사건 땀에 지친 저는 마지막이란 생각에 라이를 보고 퍼트를 기다렸는데 용득이는 꽤 진지한 눈빛으로 드디어 퍼트를 하게 됐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스코어가 좋지 않던 용득이의 퍼트가 물기를 가르며 한치에 오차 없이 과감하

게 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 ‘땡그랑’ 소리를 용득이가 듣게 되는 순간이었다. 작은 형님은 잠시 신분을 잊고 용득이와 하이 파이프를 하며 부둥켜안았다.
캐디인 저로서도 정말 눈물나는 광경이었다.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도 그렇게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국 큰형님과 엑기스는 쓸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저는 애써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돌아와 웃을 시키게 됐다. 지칠 대로 지친 저는 클럽정리를 하고 있는데 큰형님이 와서 얘기하셨다. “답에 우리 또 보자...” 그래서 전 “아, 네 고객님...”하며 애써 웃음을 지었다.
결국 이렇게 캐디피를 지금 받고 내려오는 길에 처음으로 고객과 저는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져야 했다. 이 황당한 일은 캐디와 골프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후 큰 형님과 작은 형님 사이가 어떨까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했다. 비록 수중 골프였지만 기억에 남는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난이도 높은 저희 파주 J퍼블릭 골프장에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찌 생각해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승부, 모두가 즐거워하는 승부, 비록 아쉬워도 서로가 축하하고 위로해주

는 승부, 그것이 골프 인생의 마지막 남은 동반자로 남을 것이고 명승부라 생각한다. 저 또한 프로가 되기 위해

캐디를 시작했고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 캐디들의 심리와 애환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잘 표현해 준 작품이다. 실제 현실에서보다 골프장에서 형님들의 해프닝이 극과 극을 이루며 뒤치락앞치락하며 결국 무사히(?) 마무리되는 아찔한 순간을 잘 표출했다. 소재의 특이성도 특선에 드는데 한 몫 했다.
- 심사 : 황정옥(시인)

* 이글은 골프저널이 공모해서 묶은 '필드의 메아리'에 수록된 조경영의 글

■ 골프를 예찬하며

〈기사제공 : 골프저널〉

나는 공 하나 들고 자연에 들었다

필력은 핀의 깃발
컵이 울었다
땡그랑
코스에 숨어있던 묵음들 한꺼번에 묵놓았다
침묵하는 홀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울지 않는 새여 이제 목청을 가다듬어서
하늘높이 떠오르며 대지가 울리도록 노래하라
나래짓을
뽕뽕 묶어놓았던
햇살이 부서진다
잔디위로 푸른 햇살이 쏟아져 내리면
벌레들의 더딘 걸음이 빨라졌다
코스 바깥으로 걸어나가 숲이 된 나무들이 돌아다본다
죽은 나무 몇 그루가 숲의 가장자리를 비를 때
고사목에 내려앉는 새
한줄기 바람살을 쫓아대며
휘청거리는 마른가지에 생의 무게를 싣는다
생의 티잉그라운드에서 출발해
OB로 연못으로 벙커로 러프로 스쳐오면서
정답없는 지친 길을 뒹굴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새
몸부림친다
페어웨이 위를 날면서
그린위로 구르면서 알들이 모이고
컵은 알을 불러모아 품는다
나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홀로 걸어 들어갔다
코스는 저절로 깊어지고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듯이 욕심도 고통도 빠져나간다
이윽고 하늘로 새 한 마리 날린다
꿈틀거리는 코스에
더 단단해진 한 생을 싣는다



시 정노천(시인, 골프저널 편집국장)

■ GOLF 의학

병이 되는 골프, 약이 되는 골프

건강한 에이지슈터가 되기 위한 의학적 노하우



골프를 하면 건강해진다? 지금까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의료인들 사이에서 건강하기 위해 즐기는 골프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골프는 스윙을 할 때 척추를 꼬았다 푸는 힘을 이용해 공을 날리기 때문에 허리부상이 잦을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골퍼의 남자 23.6%, 여자 21.6%가 허리부상을 입었으며 그 외에 어깨, 손목, 늑골의 피로골절 등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골프 스윙할 때 항문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치질 환자의 경우 골프를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의학적인 정보들 때문인지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동시에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 골프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골프를 해야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민간요법은 오래 전부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꾸준히 전해져 내려왔다. 이 민간요법이 정설처럼 알고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 민간요법의 허와 실이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학을 펼치다가 얻어걸리는 식으로 치료가 됐다고 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 중에 잘못 알고 있는 속설이 골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과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민간요법이 모두 좋은 것일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민간요법 중에 부정확한 의학정보가 상당수 있다. 인사랑 치과의 최복희 씨는 “흔히 알고 있는 속설로 골프를 하면 허리

에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연 허리에만 무리가 가는가? 골프 스윙할 때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항문의 압박이 심해진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민간요법 속설을 올바른 치료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벌레 쏘였을 땐 된장을 바르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된장을 바르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불순물이 포함된 경우는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무좀을 없애기 위해 식초나 빙초산으로 발바닥 각질을 모두 벗겨버리거나, 여름철 뜨거운 해변가 모래사장에 맨발로 부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속설이다.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켜 자극성 피부염, 세균감염 등을 유발하며 무좀 증상을 악화시킨다. 이런 예에서 보듯 속설을 따르기보다는 정확한 의학 정보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정형외과 최용순 총격과 치료실장은 “골프에서도 잘못된 속설로 고생하는 골퍼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운동으로 아픈 것은 운동으로 풀어야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험한 말이다. 만약 10대에서 20대라면 이 말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를 즐기는 연령층은 30대 중반 이후나 40대 이상으로 이 나이가 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어린 연령층에서는 염증반응의 결과물로 생기는 상흔 조직(유착된 상처)이 잘 형성되지 않지만 30대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오히려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 병을 키울 수 있다.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아프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다른 부위로 병이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 골프의 덕성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이 확실하면 응용이 쉬워

Back to the Basic

샷의 비중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골프라는 게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퍼들은 가끔씩 이 점이 무시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프로는 확실한 기본 위에서 다양한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고, 아마추어는 불확실한 기본 속에서 자신이 가진 장점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검증된 방법을 말한다.

운전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운전의 기본은 정자세로 앉아 운전대를 잡고 발로 페달을 밟아 차를 조종하는 기술이다. 운전을 업으로 삼는 운전사라면 더욱 빠르게, 그렇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확실히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마추어는 그런 기술보다는 단순한 운전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프로는 확실히 똑같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더라도 차를 잘 다룰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한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똑같이 운전대를 잡더라도 다양한 운전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원활하지가 않다. 어느 쪽이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 과정은 확실히 다를 수 있다.

골프도 마찬가지다.

골프라는 게임은 다양한 클럽을 사용해 목적지인 홀에 볼을 떨어뜨리면 되는 게임이다. 이 과정에서 프로는 기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술로 버디를 노리게 되고 대부분의 아마추어는 이보다는 단순한 기술로 파 셰이브를 겨우 노릴 수 있다. 같은 파를 잡더라도 내용이 다르다는 말은 이런 뜻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아마추어들이 좀 더 세련된 기술을 구사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기본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드나 드로우, 로우샷과 하이샷은 기본을 응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슬라이스 또는 훅이 난다고 해서 반대의 구질을 목표로 연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기본을 헛갈리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볼이 휘어지면 반대의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구질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모 프로의 경우 연습을 할 때는 스트레이트 구질을 목표로 연습을 하지만 실제 대회에 나가서는 샷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연습 비율은 스트레이트가 많지만 실전에서는 연습한대로의 샷보다는 나름대로 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하지만 기본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면 이런 컨트롤 샷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연습장에 도착하면 먼저 그립과 어드레스부터 잘 살펴도록 하고, 코치 혹은 거울 등의 연습도구를 이용해 확실하게 기본 스윙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본 동작을 익히는 동작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일단 기본 동작을 완전히 이해하고 몸에 익혔다면 응용샷은 요령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 그 프로는 샷을 짧게 조절하는 컨트롤 샷을 많이 하는 편인데 확실히 피니시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할 때 일부러 샷을 짧게 끊는 연습은 하지 않는다. 연습을 할 때는 확실히 기본에 입각한 스윙연습을 하고, 몇 개의 페이드, 드로우 샷 연습을 하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컨트롤 샷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기본을 바탕으로 샷을 응용하기 때문이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제4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겨레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사진으로 보는 제4회 서울대 동문골프대회





■ 快樂打毯

‘19홀’은 없다



“골프코스가 18홀인 이유는?”

“골프의 원조인 스코틀랜드 사람이 위스키 한 병을 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임에도 세상에는 의미를 부여받는 것들이 있다. 국가와 개인의 기념일들이 그런 것이다.

서양에서는 7을 좋은 숫자로, 13을 좋지 않은 숫자로 여긴다. 우리는 4를 피하려 한다. 이는 그냥 심리적인 것이다. 동양에서는 3을 완전한 숫자로 본다. 땅과 하늘과 사람을 3이라는 숫자에 대입시킨 것이다.

골프에서 18이라는 숫자는 각별하다. 골프코스가 18개 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골프코스가 반드시 18홀이 되어야 할 논리적 이유는 없을지 모른다. 초창기에는 코스의 규모에 따라 홀의 수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1860년에 처음으로 영국 오픈 챔피언십이 개최된 골프장은 12개 홀을 갖추고 있었고, 9홀 코스에서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1900년대에 이르러 18홀 코스의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역사의 산물로 18홀이 정립된 것이겠지만 그 연원이야 어쨌든 18은 골프에 관한 한 특별한 의미의 숫자가 된 것이다. 결혼식 날짜가 당초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그날을 정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처럼.

골프코스에는 18개의 컵을 필드에 배치하고 순서에 따라 거기에 볼을 클럽으로 쳐서 들어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린 위에 놓여 있는 108mm에 불과한 작은 구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깃발을 홀 위에 꽂아 놓는다.

36홀 또는 72홀을 갖춘 골프장이 있는데, 이는 정규코스 둘 또는 넷을 갖추었다는 말이 된다. 9개 홀만을 가진 곳은 같은 코스를 두 바퀴 돌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그린이나 컵을 홀마다 두 군데씩 만들어 두 바퀴째에는 다른 컵을 쓰도록 하기도 한다.

축구나 농구가 골 안에 공을 넣듯이 골프는 컵 안에 공을 넣는 경기

이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상대방의 볼을 빼앗으려고 다투거나 골문을 지키는 일은 없다. 누가 공을 많이 넣었느냐로 승부를 가리지도 않는다. 18개의 홀을 몇 타 만에 끝냈느냐로 점수를 매긴다.

남자 몇이 스포츠 바에서 최고의 스포츠가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하키와 미식축구가 최고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에 한 남자가 열을 올리며 주장했다.

“최고의 스포츠는 당연히 골프지!”

“그게 말이 되냐?” 다른 사내가 되받았다. “골프는 부자연스러운 운동이야. 이제까지 발전된 운동 가운데 제일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럽다니!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쓰기 때문이란 말인가?”

“가장 많이 친 사람이 진다는 게 말이나 돼? 이상한 게임이잖아?”

점수란 많이 나와야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주로 육상과 같은 기록 경기 종목에서는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이다. 골프는 공을 다루는 다른 경기와 다르다. 오히려 육상처럼 타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 타수인 72타를 넘어 치는 숫자를 핸디캡이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프로선수가 아닌 대부분의 골퍼는 다 핸디캡을 가진 자들인 것이다. 골프가 어려운 것은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18홀에 72타는 보통 사람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파4홀을 기준으로 4백 미터 정도 떨어진 그린까지 2타에 공을 올려 보내고, 그린 위에서 두 차례의 퍼팅으로 컵에 공을 넣어야 한다. 여기에 1타를 더 쳐서 보기플레이를 하는 것만도 평균적인 주말골퍼들에게는 힘겨운 목표가 된다.

홀마다 1타씩 더 치면 파에서 모두 18타를 넘는 스코어가 되니 이러한 핸디캡 18의 보기플레이가 일반인에게는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된다. 프로선수는 너무나 먼 당신이고 한 골프 한다는 싱글들도 그들끼리만 어울리는 게 낫지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는 어울리기 불편한 존재들이다.

여기서 18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나름대로 음미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골프에서 18이란 만족의 숫자가 아닐까 싶다. 핸디캡 18 이하로 내려가지 못해도 골프를 즐기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해주는 숫자가 아닐까. 직장인이 보기플레이 이상의 실력을 키우려면 생활의 무리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 유난히 골프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제대로 굴러가는 조직의 모습일 것이다. 싱글을 선망하는 풍조가 팽배한 직장엔 분명 잘 돌아가지 않는 경쟁력 없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 싱글 골퍼가 많은 회사의 앞날이 밝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망한 회사에 실사를 나가 보았더니 과장급부터 골퍼채를 닦는데 열심이었던 나.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갈 때 수많은 기업이 줄지어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때 망한 회사의 경영자들은 회사 일보다 골프를 더 사랑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과 후손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거든 골프의 싱글보다 본업의 싱글 아니 본업의 파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나라가 바로 서고 회사가 커져야 골프산업이 발전할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골프실력이 싱글을 유지한다는 것은 본업을 말아먹을 각오를 하고 골프에 탐닉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싱글을 조심하라. 둘째로 18은 마음을 비우고 골프를 즐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일주일일 7일이고, 1년이 12달이어야 하는 것만큼이나 골프에서 18일이라는 숫자는 이미 자연스러워졌다.

18에 무슨 매력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 불가의 설법 중 하나인 ‘18계(十八界)’는 인간사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는 가르침이다. 또한 ‘18공(十八空)’의 법문은 공(空)사상의 요체로서 그 모든 집착의 부질없음을 강조한다.

〈21면 계속〉



〈20면 이어서〉

내공 · 외공 · 내외공 · 공공 · 대공 · 제일의공 · 유위공 · 무위공 · 필경공 · 무시공 · 미래공 · 산공 · 성공 · 자상공 · 제법공 · 불가득공 · 무법공 · 유법공 · 유법무법공 등 그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일상생활의 일희일비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태도를 터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현재의 환경이 나를 결정짓는 것으로 알고 이에 반응하며 살아가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것 아닌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에 알았더라면’ 하는 뉘우침은 얼마나 많았던가. ‘공(空)하다’는 것은 삶이 그냥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이라기보다 집착할 것이 없다는 가르침이리라. 집착이란 중독

과 같은 것. 재미있는 골프에 중독되지 말고 즐기기 바란다. 집착은 연애에서나 부부의 애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착은 사랑과 즐거움을 마비시키는 올무일 뿐이다. 골프는 세상살이의 번거로움을 내려놓고 삶을 음미할 수 있는 최상의 스포츠라고 한다. 비싼 골프를 즐기려면 이러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18이라는 숫자가 지시하는바 명심해야 할 사항은 라운드는 18홀로 만족하고 19홀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의미로 새기고 싶다. 건전치 못한 19홀의 행각으로 골프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막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골프 저변이 많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여기에 퇴폐의 인상까지 겹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대부분의

골퍼들이 말하는 19홀이 라운드 후의 식사 정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과도한 술자리로 이어지거나 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을 자제함이 운동으로 얻은 건강을 지켜가는 일일 것이다.

골프는 품위를 함양하는 스포츠라고 한다. 골프에서 에티켓이나 단정한 몸가짐은 경기의 룰과도 같다고 하며, 그 모든 룰이 골프를 위대한 스포츠로 발전시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레이 플로이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필드에 나가 ‘언제나 신사처럼 행동하여라. 레이 플로이드처럼’”이라고 말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그런 신사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왜 골프장 안과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야 하겠는가.



18홀에 서면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중간에서 골프의 우승을 점칠 수 없는 법. 18홀에서 컵을 울리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는 법. 홀아웃을 하고 18번 그린에서 장갑을 벗어봐야 확신이 서는 게임. 그만큼 골프는 변수가 많다는 말이 된다. 언제 어디서 잘 못되어 공이 조화를 부릴 개연성은 엄청나게 많은 법이다. 홀마다 다르게 펼쳐져 있고 해저드 등이 포진해 있는데다 그날의 날씨에도 지장을 받는 골프. 그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받고 주변의 동반경기자들에게도 영향을 받는 미묘한 게임이 골프다. 하지만 일견에서는 말한다. ??골프는 미스 샷 때문에 존재한다??. 역으로 말하면 ??미스샷이 없으면 골프가 아니다??라는 말이 형성된다. 첫 홀에서 티샷을 실수했을 때, 버디를 노리다가 보기를 하거나 이글 찬스를 맞고도 파에 그쳤을 때, 좋은 드라이버샷을 날려 놓고도 어처구니없이 어프로치 샷을 실수했을 때, 파5홀에서 세컨드샷을 그린에지에 붙여 놓고 홀에 붙이려던 세 번째 샷이 샌크를 내어 그린을 넘어 OB가 났

을 때 등 실수는 라운드 내내 골퍼를 괴롭힌다.

실수는 암세포처럼 근육을 긴장시키고 정신을 어지럽혀 그날의 모든 샷에 영향을 준다. 미스샷을 자만과 해이감, 게으름의 산물로 받아들여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으나 ‘그때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나쳐 ‘또 미스샷을 범하면 어쩌나’ 하는 강박관념으로 변한다면 골퍼는 더욱 비참하게 되고 말 것이다.

실수가 없는 골프게임을 상상해보자. 드라이버샷이나 아이언샷이 때 번 기막히게 맞고 그래서 언제나 파운이 가능하며 퍼팅도 좋아 매홀 버디 아니면 파를 건진다면 골프할 맛이 나겠는가. 잘못된 샷이 없으니 연습장에 갈 일도 없고 속 썩을 후회나 절망도 없을 것이다. 다음번에 더 잘 치고 싶은 욕망도 없으니 필드행이 기다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골프는 쉽게 싫증나는, 가장 재미없는 게임이 되고 말 것이다.

벤 호건은 “미스샷에 대한 변명으로 동료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아니

라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만든다.”라며 미스샷을 원망하고 있지만 골프는 미스샷 때문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스샷은 독버섯처럼 아무 때나 돌아나 골퍼를 괴롭히지만 이 미스샷 때문에 골퍼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평생운동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공만 있는 인생보다 좌절과 실패가 점철된 인생이 더 보람차고 생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듯, 미스샷은 골프의 묘미를 더해주고 골퍼채를 놓지 못하게 한다.

미스샷 때문에 필드에서 돌아오자마자 연습장을 찾고 레슨서적을 뒤적이며 다음 골프 약속을 기다린다. 미스샷은 기막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샷이 잘 맞아줄 때 느닷없이 나타나는 자만을 꾸짖고 겸손을 가르치는가 하면, 게으른 골퍼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좋은 스코어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어쨌든 이런 모든 악재를 해치고 18홀에 서서 땡그랑 소리를 듣고 장갑을 벗을 때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관대해지자.



18홀, 그대를 위한 공간

18홀에 갇힌 공이 도망쳐 나가는 너무 힘들다. 18개 홀을 그냥 갇혀서 끝까지 가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골프공에 뱀뱀을 달다가 결국엔 날개를 다는 게 아닐까?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여! 날개를 파닥거려라 날개를 퍼덕여라 훨훨 날아올라라 저기 저 푸른 그린의 펼쳐지는 깃발을 향하여 날아라. 저기 하얀 말뚝을 지향하라! 그대로 쭈욱 날아서 홀을 벗어나면 그대로 OB 아니면 감질나게 홀 가장자리에 떨어져서 툭툭 바운드 되면서 OB 후후 공을 찾지 말라. 집나간 마누

라와 집나간 공은 찾지 말라던데 그래도 공이 아까워서 찾으려고 홀 법면으로 뛰어드는 족속들에게는 뱀! 뱀이다! 독사다! 지금 한창 독사가 우글거려요! 들어가면 꼭 물고 놓아주지 않을텐데... 칠점사 아시죠? 꼭 물렸다면 7발자국을 못가서 꼭 꼬꾸라지는 칠점사가 도사리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입을 썩 벌리고 있다가요. 간혹 페어웨이에도 나와서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캐디의 농을 들으며 새로운 공을 몇 개나 포기해야 했든가?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군 다소곳이 담겨서 18개 홀까지

가야하는 공들이여 끝까지 목숨을 부지하기엔 골퍼들의 욕망이 너무 강하지 않는가. 당신은 한 홀에 하나씩 보기를 범해 보기플레이어라 불리지만 쟁쟁한 한 홀에 공 하나씩을 뱀에게 먹혀 버리니 예그 18개의 공이 불쌍하고도 안타깝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잃어버린 것,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연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으렸다. 그 극복의 힘을 쏟아부어 또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해야할 시점이다.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치르는 한판 라운드라 생각하고 다음 라운드에 돌입하자.



〈기사제공 : 골퍼저널〉

■ 골프탐험대

스크린 골프장은 미래형 골프 문화

한국의 기술 발달이 골프와 결합하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세계 기네스 기록을 살펴보면 정동진역이 세계에서 가장 바다 가까이에 있는 기차역으로, 방송인 강호동의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2만 8233명과 악수하기, 가수 하춘화의 최다 개인 발표회(1260회), 허남진의 헤딩 오래하기(7시간 24분 54초, 횡수 4만 3백 51번) 등이 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량, 초고속 인터넷 사용율, 컴퓨터 보급률, 네티즌 참여도, 선박건조율, 휴대폰 보급 성장률, 의약 캡슐 등이 있다고 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IT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기네스 기록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IT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 기술은 현재 골프와 결합해 탄생한 것이 스크린 골프이며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한국

특유의 방문화가 한몫을 담당했다고 한다.

한국의 스크린 골프장 개수는 2003년에 300개도 안 됐지만 현재 약 5000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업체만 약 10여개, 수입업체까지 합치면 20여개에 달한다. 이는 예전에 노래방, PC방이 인기를 얻을 때와 비슷하다. 당구장에서 노래방, 그리고 PC방, 이젠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방문화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억압이라는 코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스크린 골프장은 하루 평균 약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해 스크린 골프장에

서 골프대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스크린 골프의 7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한국에선 가상현실 골프가 인기(Virtual-reality golf is a winner in South Korea)'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스크린 골프 열기가 소개됐다.

스크린 골프장의 장점은 무엇일까? 일단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다'의 장점을 들 수 있다. 스크린 골프의 '가벼움'이란 '부담이 적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겠다. 먼저 이용에 대해 부담이 적다. 일반 골프장보다 도심에 가깝게 있어 이용에 부담이 없다. 퇴근 후에 혼자서도 라운드를 할 수 있으며 복장에도 큰 제약이 없다.

이용 가격에도 부담이 없다. 일반적으로 1만원에서 2만5천원 사이면 1라운드를 마칠 수 있으며 골프 장비에 대해서도 대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대략 3시간가량 골프를 즐기며 지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비즈니스룸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골프 연습적인 측면에서도 '가볍다'는 장점은 통한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실제 라운드와 비슷한 상황에서 샷을 할 수 있는 만큼 골프 실력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연습을 통해 스윙을 교정할 수 있고 어프로치샷 연습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벼움은 스크린 골프의 독이 될 수 있다. 스크린 골프의 기계적인 특성만 파악해 치게 돼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일명 스크린 프로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스크린 프로는 실제 라운드에서 거리를 잘 못 맞추고 어프로치샷, 퍼팅 등 숏게임에서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봤다. 또한 방문화라는 이미지 때문에 자칫 여성접대부 고용 등 퇴폐적으로 흐르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현재 스크린 골프의 인기에 대한 전망으로 대체적으로 앞으로 3~4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당구장, 노래방, PC방에서 보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잔디의 촉감을 느낄 수 없고, 골프장의 신선한 공기를 맘껏 들이마실 수 없기에 스크린 골프가 실제 라운드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말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스크린 골프장은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골프 대중화를 이끄는 첨병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글 / 양수근
연극 '홀인원' 극작가,
협성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의교수

파3홀 골프장은 LESSON UP을 위한 필수 코스

숏게임 훈련장 등 실전 감각을 익히기에 적합

흔히 골프장이라고 하면 정규골프장 또는 대중골프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골프가 대중화 시대에 접어들어 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파3홀만 전문으로 만든 골프장 일 것이다. 처음 파3홀 골프장을 생길 때에는 '과연 파3홀을 만든다면 골퍼들이 찾을까?' 하고 의심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골퍼들이 애용을 한다.

그렇다면 파3홀 골프장의 장점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정규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보다 토지에 대한 제약이 많지 않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심과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도시의 골퍼들은 잠깐이라도 잔디를 밟을 수 있는 파3홀 골프장을 자주 애용한다.

파3홀 골프장은 대체로 아기자기한 맛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아기자기하게 설계됐다고 해서 절대로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파3홀이라고 똑같은 파3홀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롱, 미들, 숏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거리의 홀은 많은 골퍼들에게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파3 코스에서 고난도의 코스, 워터해저드에 대한 공포감을 떨쳐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파3홀 골프장은 정규홀 공략에 대한 교과서 역할을 해준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파3홀에서의 연습을 통해 숏게임 연습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미 2008년 골프 대회에서 보여지듯 파3홀에서 클럽 선택의 기준이 사라졌다. 최근의 대세는 파3홀에서는 클럽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샷 컨트롤에 따라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실전에서 샷 컨트롤에 의해 클럽을 정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파3홀 골프장은 골퍼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특히 골퍼들에 있어서 골프를 잘하는 비법으로 파3 홀에서 스코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파3홀 골프장에서 명심해야 할 것으로 첫 번째는 클럽 선택과 샷의 형태 선



택에 신중, 두 번째는 올바른 표적의 설정, 세 번째는 핀 위치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위치 선택, 네 번째는 샷의 구질 선택, 다섯 번째로 스윙 메카닉의 단순화를 염두에 두면서 연습을 진행하면 실전에서 숏게임의 강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글 / 박성진 / 인터넷골프동호회장

■ GOLF ISSUE

경제 위기 속 골프를 포기하다?

2009년 한국 골퍼 진단

〈기사제공 : 골프저널〉

2009년 기축년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저마다의 희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 때문에 골프계에서도 큰 태풍을 만났다. 물론 다른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싶지만 현실은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인 이유 등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제침체와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최근 골프방송의 시청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경제 불황과 연관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 ‘사회지표연구’에서 메릴랜드주립대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불행할수록 TV 더 많이 본다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이 TV를 주당 평균 19시간 시청하는 반면 불행한 사람은 주당 25시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한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이 30% 정도 더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골프방송의 시청 인구 증가에 대해 “경제 불황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다. 그리고 골프에서도 실질적인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경제적인 이유로 TV를 시청하게 된다. TV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빠져든다. TV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장기적 불행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미 2008년 중국발 경제 악재,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등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일으켰다. 그 후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2009년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10년 전의 IMF 상황보다 지금이 절망적이다.”라는 말로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불안한 직장인들은 취미생활도 잃어버리고 더욱더 일중독자로 변해가게 된다.

2009년에는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골프를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2009년도 달력을 보면 직장인들은 “절망감 느끼며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듯하다.”고 전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2009년 달력에 빨간 날이 사라지는 테러를 당했기 때문이다. 공휴일 대부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내년도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주5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내년에 쉬는 날을 계산해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모두 110일이다. 대부분의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 실제로 주중에 빨간 날은 고작 6일 밖에 되지 않는다. 구정(1월 26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중 하루가 일요일에 포함돼 있고 3.1절은 일

요일, 석가탄신일(5월 2일)과 현충일, 광복절은 토요일, 추석(10월 3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이며 개천절과 추석이 같은 날이 되면서 공휴일 하루가 사라지게 됐다. 이런 빨간 날이 사라진 상황에서 2009년에는 직장인 골퍼들이 골프를 포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골프를 즐기는 알뜰한 골퍼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알뜰한 직장인 골퍼들이 ‘자린고비 정신’을 발휘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불황시대에 골퍼들이 사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발품족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돌아다닌다. 상설매장을 돌아다니며 유행과 상관없는 골프용품들을 구매하고 다닌다. 이렇게 발품을 팔면 시중가보다 최대 50% 이상까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굳이 골프용품에서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골퍼라면 상설매장에서의 즐거운 쇼핑을 추천한다.

만약에 신상품에 민감한 골퍼라면 온라인몰을 추천한다. 온라인몰에서

구매할 때 사이트마다 최고 30%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로 두 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서 골프용품을 구입할 때는 직접 만져보거나 시타를 해보고 살 수가 없는 만큼 구입하기 전에 오프라인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해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골프클럽의 경우 몇 개월만 지나도 가격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최신 제품을 비싼 가격에 바로 구입하기보다는 제품에 대한 반응을 지켜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각 브랜드 이월상품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럴 경우 30~50%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골프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싼 기쁨값을 아끼기 위해 버스투어를 이용한 골프장 방문도 비용절감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정보공유, 그린피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골프전용카드, 저렴한 골프장, 다양한 골프장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불황시대에 골프를 즐기고 있다.

■ TODAY GOLF

골프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국내 경제위기 때 해외무대에서 빛을 발한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경제의 불황과 중국, 인도 등 성장 동력의 둔화는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가슴의 가슴에는 응어리가 커져가고 있다. 이럴 때마다 해외 골프무대에서 들려오는 우승 소식은 국민들의 속앓이를 풀어주는 비타민이 되고 있다. 골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고 하는 역설이 틀린 것일까?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IMF 시준2 과담이 퍼지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 장로 대통령, 서태지의 컴백, 스타크래프트시리즈 출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투수 박찬호의 선전, 국내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부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선장이 허정무 감독이라는 것도 경제 위기 과담의 중심에 서 있다.

이처럼 IMF 시준2 과담은 1998년의 IMF 외환위기 당시와 최근의 상황이 비슷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흉흉한 과담에 하나 더 보태면 한국 골프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시름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박세리가 미국 여자 프로 골프(LPGA) 최연소 우승을 하면서 희망을 주면서 외환위

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작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답답한 국민들은 속앓이를 풀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대안을 골프에서 찾았다. 실제로 한국 골프가 점차 살아나고 있어 경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커지고 있다.

스무살의 꽃다운 나이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박세리의 US여자오픈 제패 10년. 그러니까 최근 ‘박세리 키드’ 박인비가 같은 대회에서 박세리의 기록을 깨며 최연소 우승했다. 박인비는 후원사 없어 LPGA로 고 새겨진 모자를 쓰고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 마크를 모자에 붙이고 나와 우승을 차지해 10년 전 그때처럼 희망을 던져줬다.

한국 골프의 해외 부활 소식은 누구보다 국민들이 기대했었다. 그동안 LPGA 투어에서 11개월, 27개 대회가 치러지면서 단 1승도 건지지 못하고

긴 터널에서 허덕이는 모습이 마치 국내 경제를 지켜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긴트리뷰트에서 이선화의 역전 우승을 시작으로 웨그먼스LPGA에서 지은희의 역전 우승, US여자오픈에서 박인비의 전해지며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이선화는 LPGA 투어 P&G뷰티 NW아칸소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며 4주 연속으로 한국선수가 최고의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이미나는 제인 박과 함께 이선화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랐고 공동 4위에 안젤라 박, 공동 8위에 최나연, 지은희, 10위를 박인비가 기록하며 한국 선수 7명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국 선수가 LPGA투어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함께 차지한 것은 이번이 19번째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앤서니 김이

PGA 투어 AT&T내셔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코리안 남매가 나란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줬다. PGA 투어와 LPGA 투어 대회 동반 우승은 지난 2005년 최경주(크라이슬러클래식)-한희원(오피스데포), 2006년 최경주(크라이슬러챔피언십)-홍진주(코오롱-하나은행챔피언십)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그리고 25세 이하의 선수가 한 시즌에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우즈 이후 앤서니 김이 처음이다.

또한 모종경은 심하 타이랜드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12년 만에 아시아프로골프투어대회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고 양희영이 유럽여자프로골프(LET) 히포베레인스뱅크 독일여자오픈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2008년 대회 중 50퍼센트에 가까운 승률을 보이며 세계 골프계에 한국선수들이 살아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코스는 말한다

골프가 과학을 만나다

| TECHNOLOGY SYSTEM |

GPS로 신개념 골프를 즐기다

골프장에 늑늑하게 등장한 최 부장. 그는 평소 '길치 백돌이'라는 안 좋은 별명을 가졌다. 하지만 오늘따라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라운드가 시작되고 세컨샷을 하려고 페어웨이 에 올라서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신무기가 등장한다. 그의 무기는 'GPS 골프 전용 다목적 단말기'였던 것이다. 평소 길치에 방향치라서 스코어가 안 나오던 최 부장이었지만 그 날 라운드에서 싱글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아날로그적이라는 골프에서 첨단 과학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최근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골프 장비들이 속속 등장해 골퍼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을 이용한 위치측정시스템)를 이용한 골프 전용 다목적 단말기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골프와 과학의 만남, 'GPS 골프 전용 다목적 단말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골프와 과학의 첫 대면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국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에는 골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프로 골퍼, 싱글 골퍼에서 왕초보 골퍼까지 실력도 다양하다. 하지만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은 스코어를 줄여 재미와 실력을 함께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프 장비에도 골프기량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디지털 골프거리측정기는 골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래서 이용이 되는 것이 GPS이다. GPS는 위성을 통해 차량이나 항공기, 단말기 등의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1970년대 초 미국 방위에 의해 개발돼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 가동됐다. 처음에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민간용으로 확장돼 지금은 휴대전화에 적용될 정도로 일반화됐다. 생활 속에서 GPS의 활약이 눈부신 가운데 골프에도 첨단 GPS 시스템을 이용한 장비가 등장했다.

업체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골퍼들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는 중간에 자신이 친 공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 날아간 공의 흑과 슬라이스 정도는 얼

마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물론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물어봐서 알 수 있고 오랜 시간을 통해 골퍼 스스로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거리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GPS 골프거리측정기가 탄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GPS 골프 전용 다목적 단말기는 나이스캐디와 골프버디가 초기를 이끌었다고 본다. 초기의 기존 GPS 골프 전용 다목적 단말기는 조작이 많아 사용자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아마추어 선수가 사용하기에 적합했다."라고 회상했다.

▶앞으로도 GPS SYSTEM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한다

이 업체 관계자는 "앞으로도 GPS SYSTEM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 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 GPS 골프 전용 다목적 단말기는 기술의 발달로 오차율이 점차 떨어질 것이다. 또한 디자인의 대세는 슬림화, 스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골프 용품이 클럽과 공에도 GPS SYSTEM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라고 예견했다.

이미 영국에서는 GPS SYSTEM을 골프공에 장착한 미래형 골프용품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미래엔 골프공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골프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가끔 골프를 하다보면 골프공 분실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특히 초보 골퍼의 경우 수많은 볼을 잃는 성장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진정한 고수가 됐다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 영국의 서레이에 본사를 둔 GPS 회사 '지오데이트'는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골프공 개발에 성공했다. 제품 개발자 아나 스콧은 "골프공에 내장된 작은 칩이 날아간 거리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골퍼들이 공을 잃어버릴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전했다. 과히 골프에서도 장비의 미래 진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 : 골퍼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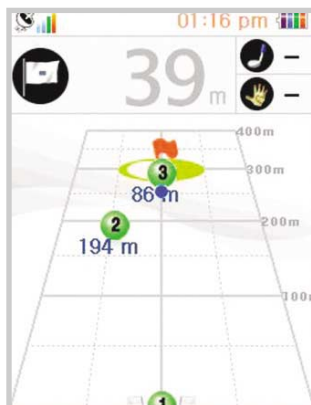
| GPS 기능 이미지 |



골프거리측정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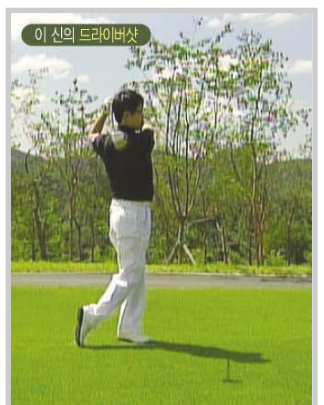
네비게이션 기능



스마트UCG 기능



최여진의 드라이버샷



이 신의 드라이버샷

동영상플레이 기능

■ 골프팁스 Golf Tip

고정관념깨기

임팩트와 팔로스루의 포인트



이론적으로 말해서 임팩트를 말로 해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너무나도 그 스피드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스윙을 익히는 단계에서 있어서는 물론 임팩트라고 하는 부분은 무시하는 편이 숙달되기 쉽다고 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골퍼는 임팩트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든 클럽헤드를 볼에 맞추는 것을 이미지한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스윙은 문자 그대로 임팩트의 단계에서 종료되기 쉽다. 즉 팔로스루에서 피니시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는 동안에 스윙이 멈추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스윙을 임팩트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다운스윙의 단계에서 모든 파워를 다 사용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볼은 날아가지 않고 휘고만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임팩트 무시의 스윙이다. 이것은 볼을 히트하는 단계를 임팩트가 아닌 팔로스루로 판단하는 방법이다 즉 다운스윙이 개시되면 다음은 한 번에 팔로스루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다. 연습장에서 연습하면서 프로들이 이런말 많이 했을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골프를 하라고하는 말이 철학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이 정답이다. 골프를 즐기라는 것이다. 골프를 잘하든 못하든 너무 스트레스 받지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라는 것이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다. 무책임한 말 같지만 그만큼 골프는 멘탈운동이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상반된 골퍼이론

골프장에서 레슨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회원들을 많이 만나고 스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프로들에게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 그중에 제일 많이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프로들마다 가르쳐 주는 레슨이론이 헛갈린다는 것이다. 그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 보려한다. 그립을 강하게 쥐어라. 그래야 파워를 낼 수 있다. 아니다. 그립을 약하게 쥐어라. 그래야 몸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게 헤드스피드를 낼 수 있다. 그립과 관련하여 공통된 점은 그립을 강하게 잡든 약하게 잡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립의 압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프로치샷은 한클럽으로 하라. 아니다. 다양한 클럽으로 하라. 아마추어들은 그린주변에서 볼을

띄우거나 굴릴 때 볼 위치를 바꿔가며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다양한 클럽으로 하기엔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가지 익숙한 클럽으로 다양한 거리를 맞추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프로는 '아니다. 한클럽으로 거리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스윙은 일정하게 하면서 클럽을 바꿔가며 어프로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어프로치샷은 클럽선택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클럽사용을 권장한다. 어프로치에 관련해서 공통된 점은 한클럽으로 하든 여러클럽으로하든 어쨌든 반복적인 연습밖에 답이 없다.

아이언은 찍어쳐라. 아님 쓸어쳐라. 아이언은 찍어쳐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상당수 유명프로들은 쓸어치라고 주장한다. 요즘 나오는 아이언들은 저중심 설계를 해 클럽헤드의 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즉 찍어치지 않아도 디봇 흙이 생기도록 제작됐다. 그래서 이제는 찍어 칠 필요가 없다. 디봇이 깊이 생길수록 샷의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못박는다. 찍어치려고 하면 헤드스피드가 더 나지않고 뒤땅치기나 토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제가 봤을 땐 찍어치거나 쓸어치는 것에 신경쓰는 것보다 임팩트 이후 가속이 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머리카락을 고정하라. 또는 약간 움직여라.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스윙과정에서 체중 이동하기가 쉽지않다. 아이언샷은 왼쪽에 체중을 싣고 하체를 거의 고정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백스윙에서 하체를 거의 쓰지 말고 고정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프로는 아마추어들은 스윙할 때 지나치게 머리카락을 고정하려고 한다. 그렇게하면 가뜩이나 유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더 굳어져 좋은 스윙이 나오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약간씩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는 스윙을 해보라 권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말한 이론을 내 스윙의 장단점을 알고 나서 점검시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간 운동과 레슨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다. 골프스윙의 자세에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다. 예를들어 옛날 놀이 중에 자치기를 해봤을 것이다. 자치기를 할 때 이각도 저각도 재면서 자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휘두를 뿐 자세를 너무 의식하다보면 스윙의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 생겨 장타나 정교한 샷을 칠 수 없다는 것이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다. 몸에 좋은 약도 계속 먹다 보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윙을 너무 과하게도 너무 실하지도 않게 중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사제공 : 골프저널〉

글 / 김일호 프로